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Vol. 13.

Published Semiannually by

The Institute for Biblical Text Research of the Korean Bible Society; October 2003

Table of Contents

• Paper •

[Kor.] Issues regarding Styles and Figures in the Korean Bible Translation -----	Chang-Hai Park / 7
[Kor.] The Character and Practical Use of the Korean Dictionary -----	Dong-Un Kim / 55
[Kor.] A Study on the Terms of Address in Korean Bible Translations -----	Hae-Young Jeon / 75
[Kor.] The Original Text and Translation of Luke 1:37 -----	Chang-Wook Jung / 92
[Eng.] Bible Translation in the context of Scripture Engagement -----	Aloo Osotsi Mojola / 114

• Translated Paper •

[Kor.] Bible Translation in the context of Scripture Engagement -----	Aloo Osotsi Mojola (Hwan-Jin Yi, trans.) / 127
--	--

• Report •

[Eng.] A Report on the <i>Revised Common Translation</i> -----	Moo-Yong Jeon / 139
---	---------------------

• Book Review •

[Kor.] A Review of the Hebrew University Bible, <i>keter Yerushalaim</i> -----	Ick-Sang Lee / 157
---	--------------------

성경 번역에서 나타나는 문체점들 (1)

성경 번역문의 ^{styles} 문체와 ^{figures} 문체

박창해*

0. 들어가는 말 - <연구 동기>

지나간 십여 년 동안에, 나는, 대한 성서 공회에서 발행한 한국어 성경책들은 물론,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하여 내어 놓은 사역본들까지, 할 수 있는 대로 다 사서, 읽느라고 수 많은 시간을 써 온다. 그것은, 원전어-헬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동안에, 번역인들이 어떤 문제들에 직면하고, 그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가, 함을 알고 싶어서다.

그런 이유로 시작한 것이 원전어인 헬라어의 문 구조와 우리의 모어인 한국어의 문 구조와를 비교하여 보면서, 헬라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우리에게 어떤 점들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인가 함을 찾아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성경의 한국어 번역문 구조와 헬라어에 들어선 문 구조들을 대조하여 보는 동안, 나는 차츰,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번역 이론들에도, 문제로 삼을 만한 점들이 있음과, 원전어 문법을 이루는 구성소들構成員을 constituents과 한국어 문법을 이루는 구성소들을 보는 관점들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아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헬라어와 한국어의 두 언어의 구조적 차이점을 한국 사람의 사고 방식-사고 구조에 비추어 보면서, 번역 작업에서 일어나는 또 일어남직한 문제들을 논하여서, 번역 작업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쓴다.

그런데, 그런 연구를 비롯하였을 적에, 나는, 뜻밖에도, 나의 앞에 나타난 비교적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였음을 알았다. 그것은, 나도 성경 번역인들이 봉착함직한 가장 어려운 덩어리에 걸려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런 문제들은, 보통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말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하여서 좋을 줄은

* 언어학.

알지만, 이왕이면, 내가 깨달아 안 문제들을 그대로 나의 마음 속에 감추어 두기에는 그렇고, 말하려니 그런 것을 가지고서 무슨 말을 하는거냐고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들도 나와 같이 알면서 방황하는 일을 덜어드리려고 하여서라도, 곧, 다른 분도 나와 같은 번역 경험을 하여야 할 것이면, 그것을 말하여 드리는 것이 연구인의 연구 시간을 덜어 드리게 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그렇게 하려니까, 스스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의 학문하는 방식과 번역 경험에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었음을 깨달은 이상, 그 내용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나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타이르는 문제임을 고백한다.

문제를 말하기 전에, 매우 죄송하지만, 외람된 말씀을 한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나는 번역문 구조들을 분석하여 보는 과정에서 얻은 결론, 아니, 느낌-소감을 솔직히 말하려고 한다. 성경을 번역하는 이들이 원전어의 문법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어 문법에는 어두운 것 같다. 원전 문법 못지 않게, 한국어의 문법은 물론, 한국어 통어 구조와 그런 통어 이론도 잘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이 나의 머리를 스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통어론 연구를 계속하여 간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번역인들이 헬라인의 사고 방식과 한국인의 사고 방식에 관한 연구도 하여 두었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번역문들보다, 더욱 분명하고도 좋은, 더욱 속 시원히 읽어 내려 갈 수 있는 번역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그들이 의식하고 있든지 말든지-이, 자기들의 마음 한 가운데, 선민 사상(선민)을 지니고 있음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그들이 그런 사상을 마음에 지니고 있으면, 그런 민족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의 글 속에서, 그런 사고 방식이 잘 드러남을 우리가 역력히 볼 수 있음에서다. (그런 점은 원전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적에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나는 성서를 번역하는 사람들은 원전어의 문법이나 원전어의 통어론을 연구함과 동시에, 아랍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물론,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의 사고 방식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만, 그들의 사고 방식에서 나온 말의 의미를 한국어로 바르게 번역할 수 있다, 고 생각하기 때

1) Milka Ivic (1965), *Trends in Linguistics*, Mouton. 317항 이하, 332-340항, 특히 342-350항, 353-360항, 등.

Tholeif Boman (1968), *Das herbaische Denken im Vergleich mit dem griechischen*, Vandenhoeck & Ruprecht Gottingen. 『한국어 번역본』, 허 혁(1975), 토를 라이프 보만, *히브리적 思想과 그리스적 思想*, 분도 출판사, 왜관.

Leonard Jackson (1991), *The Poverty of Structuralism, Literature and Structuralist Theory*, Longman, London. 41, 84, 70-80, 100-3, 147, 204-36, 251-3, 348-53, 등등.

Chang-Hai Park (1974), *Thought Structure of the Korean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II, Yonsei University, Seoul.

문이다. 또, 그런 것을 잘 아는 이가 바른 한국어로 성경 말씀을 번역하여 놓았어야, 그런 책을 우리가 읽고서,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놓은 성경 말씀신약 전서들을 대할 적에, 가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여 본다. 곧,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적에, 유대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한국 땅에 오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여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을까, 하고 생각하여 본다. 주님께서 한국 땅에 오셨으니까, 한국어로 생각하시면서, 한국어로 말씀을 하시되, 한국어의 바른 어법과 정확한 표현 양식-문체 style을 갖추어서, 말씀을 하여 주셨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어도, 우리 한국어의 어법에도 맞고, 한국 사람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문 구조체-출여서, 문체 style로 문 구조들을 이루시므로, 그런 어법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한국인의 사고 방식에도 맞고, 우리가 지켜가는 말의 예법¹⁾에도 맞는 말로 표현하셨으리라고 생각하여 본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도, 헬라인이나 히브리인들 처럼, 선민 사상²⁾을 우리 마음에 지니고 살면서, (그들처럼) 자강하면서 살거나, 예수님처럼 의로운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비로운^{겸손한} 마음을 지니고서 살아 갈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여 본다.

확실히, 성경 원전어에 나타난 문 구조들을 잘 살펴 보면, 헬라인들은 우리 한국어로 사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고 방식을 지니고 있음을 직감한다. 그런 직감³⁾ intuition을 찾아 나서는 것이 언어학자들의 할 일이라고 현대 언어학자들은 알고 있다. 언어학자들이 그런 직감에서 온갖 어법은 물론,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까지를 찾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연구에서 찾아놓은 것이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다. 언어 구조가 다르면, 그런 언어로 표출하는 표출문 구조도 서로 다르다.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저들은 선민이고, 우리는 이방인이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에게는 위로서 자동적으로 은혜가 내린다.’-수동문 구조고 믿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를 말하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셨으므로, 주님께서 위로서 은혜를 내려 주신다.’-능동문 구조고 믿는다. 한국어를 말하는 우리는 스스로 의식하거나 맡거나 그렇게 생각하고들 있다.²⁾

2) (이 즈음에 와서는, 우리 한국어가 어법적 혼란기에 들어섰으니까, 능·수동문 구

전자는 **수동적인 사고 방식**-주로, 수동문 구조들로 구성된 사고 방식에 젖어 있음을 보이고, 후자는 **능동적인 사고 방식**-주로, 능동문 구조로 구성된 사고 방식을 지니고서 살고 있음을 본다. 곧, 아버지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를 놓고서, 생각하여 보면,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저들**-헬라인과 그 후예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이방인인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이들이 그런 점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헬라이어문 구조에 수동문 구조로 구성된 말을 우리 한국어의 능동문 구조로 번역하여야 하는 점-통어 이론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곧, 그런 **사고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통어 구조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하면, 원전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분명한 그리고, 온전한 한국어로 번역하여 놓을 수가 없다.

그런 점을 놓고서는, 이미 한국어로 번역하여 놓은 글들에서 꽤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곧,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놓은 문 구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면, 언어 표현 구조의 차이는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사고 구조에 터하여 있음을 본다. 아래에다가 예로 드는 성경 구절에서도 그런 면의 일부를 살펴 볼 수 있겠다. 그런 사고 구조와 표출문 구조에 관한 문제들을 놓고서는 자리를 달리하여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특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말의 문법 규칙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주 기도문의 번역 문제가, 아직도, 그치지 않는 것은 한국어의 문법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한국어의 문법 이론으로나, 한국어의 통어 이론으로 주 기도문의 어법 문제를 연구하는 이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러함에도, 번역문 구조에 남아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도가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신에게 기도하는 말의 어법과 그 사고 방식도 알아 두어야만, 바른 어법으로 구성된 기도말의 어법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번역인인 우리가 모국어의 어법과 통어 이론을 연구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하면서 주 기도문의 문 구조를 논하고, 문체를 논하는 것은 무엇이 무엇을 이끄는 것과 같다. 먼저 할 일, 먼저 연구하여 두어야 할 것을 먼저 연구하는 것이 그런 문제들을 푸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시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서 산다. 모든 그리스

도인이 그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지식으로만 알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이루는 우리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바꿔 놓아야만 하는 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곧, 우리는 스스로 능동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이루어야만 한다. 그리하여야, 우리는 번역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초한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믿어야만, 우리는, 우리도 선민들처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심을 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다. 그것은, 원전어와 한국어 번역문을 잘 비교하여 가면서 성경의 문 구조와 그 글을 쓴 사람의 사고 방식을 잘 살펴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문 구조들을 분석하여 보면, 분명히 잘 나타난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한국 사람의 사고 방식을 따른 한국어다운 한국어로 번역하여 놓아야 한다.

가령,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차례로 뽑아내어서 그 문 구조들을 구조적으로 살펴 본다. 마태 복음 3:9하-10(세례자 요한이 전도할 적에 말한 구절 중에서), 5:37(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서), 5:9-13(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곧, '주 기도문'의 문 구조), 등-이 들을 놓고서는, 본문에서 다루려고 함을 원전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을 비교하여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구절들을 끌어서, 그 구절을 이루는 문법 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우리가 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런 점들을 모아서 번역 이론으로 발전시켜 가면, 우리도 우리의 번역 이론을 새롭게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할 수 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예로 여기에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그런 예를 들기 전에, 문체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여 두는 것이 좋겠다.

1. 문체란 무엇인가.

문체란 무엇인가. 이를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다. 문체학자들이 보는 문체, 문인들이 자기의 문장 구성 형식으로 표출하는 문장의 미적 특징을 지닌 문체, 그리고, 고전적인 입장에서 문학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서 문장 형식을 찾아 세우는 이론, 시적인 면, 언어 미학적인 면에서 살펴 보는 이론들에서, 문체를 어느 하나로 풀이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 없는 듯하다. 언어학적인 면으로 다루면, 문 구조를 구성하는 표현 양식 면에서, 통어적 특징

으로 문체를 생각하여 보는 이론 등등이 있지만, 그 이론들도 다 각각 다르므로, 아직도 문체를 놓고서 뚜렷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물론, 뚜렷한 줄거리를 잡지 못하고들 있다. 그것은 작가들이 문장으로 적어 놓은 글에서 문체 규칙을 찾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어찌 보면, 세기말에 가거나 이를 법한 이야기로 남는다.

서양 전통적인 면에서 보면, 담화 discourse를 하는 주체가 드러내는 품격까지를 내포하는 개성의 표지가 문체의 기초이고, 작가나 발화인이 문 구조를 이루는 기본 구성소들의 배열에다가, 개인의 성격과 정서를 담아서 표출하는 작가의 작품(作風), 곧, 문장풍(文章風)·이를 현대의 언어학적으로 보면 문장의 표현 양식에서나 드러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작가 개인의 창의성, 감수성(感受性)이나 심미성(審美性)을 드러내는 요소들을 구조화하여서, 문장 표현(文章表現)의 기교(技巧)로 없으면, 그것도 우리는 그 개인의 문체의 한 부분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문체론의 역할은 작가나 발화인·흔히, 이를 화자(話者)라고 함·이 무엇이나 직관으로부터 지식·문법 규칙, 등으로 옮겨가는 순화 과정, 이를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문 구조의 전환 과정(轉換過程) transformation process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의 언어 생활 면이나, 문학 생활 면에서 살펴 보면, 그런 것들은 발화인이나 작가가 부리는 말투 mode of speaking / mode of expression요, 문인들의 글투 manner of writing로 나타나는데, 그들을 우리는 문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곧,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글의 생김새나 거기에서 풍겨 나오는 내음이 말투라고 말이다. 그런 특가 들어 있는 말을 듣거나, 그런 글을 읽으면, 감수성이 빠르고, 정이 두터운 사람은, 그런 말이나 글의 투에서, 발화인이나 작가의 개성, 품격, 식견, 위풍 같은 것까지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런 요소들은 다 언어 구조 밖에 존재하는 요소들·언어학 이론에서는, 이들은 언어 외적 조건으로 있음이다. 그런 요소들을 작가가 자기의 글에서 풍기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투의 요소들로 문체를 삼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식의 느낌을 문체에 없는 것은 어느 나라 말에서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장 구조에서 그런 문체소(文體要素)를 가려 세우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정정한 말을 하면서 문체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언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과 문 구조에는 그 문 구조체에서, 문체로 드러내어 보일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구조적 구성 요소(構構)를 찾아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발표되어 있는 글 중에, 문체가 어떤 것이라고 말한 것이 더러 있다고 하여도, 언어학자들이 흔히 하여 가는 바와 같은 문 구조의 특징을 문체의 구성소로 내어 세울 만한 <단위 구조체>를 찾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의 표현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머물러 있으므로 나는 문체라는 것을 특(特)라는 표현

체계로 집약하여 본 것이다.

우리가 그런 투를 문장 구조에서 찾으면, 그것은 작가가 적은 글에서 볼 수 있는 **표현 양식**일 것이다. 그런 표현 양식은, 언어의 기본문 구조에 **문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구성소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를 작가가 유형화(類型化) patterning하여서 지니고 있으면, 그것은 사고 구조에서 비롯한 사상 체계 유형과 유형화한 정서의 향기가 표출문 구조에 그대로 투사되어 있을 수 있음을 나는 지적하여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남들이 자기의 모어에서 보고 느끼는 그런 말투나 글투에서 드러내는 개성이나 심미적 필치를, 언어학자들이 보는 바와 같이, 언어 외적 조건으로 보고 있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한국어의 문 구조에서 찾으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문 구조의 한 부분으로서, 문 구조에 나타나는 **표현 양식 style**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곧, 그런 표현 양식들은 다른 언어 구조에서는, 별로 찾아 볼 수 없는 요소들인데, 우리에게 아주 다행한 것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말투로 있는 그런 **표현 양식 구조**를 고스란히 그대로 담고 있음을 본다. 이는 **천부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연구하는 언어학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구조 언어학에서 문체를 다루는 이론과 현대 언어학적, 또는 변형 생성 문법가들이 다루는 문체 이론이 다 다름을 알 수 있다.³⁾ 그런 이론들을 여기에다 다 설명할 겨를이 없다. 그런 이론들은 다른 데에서 다를 법하다.

다만, 언어학적인 면에서, 내가 생각하는 바와 가장 가까운 이론으로 말하면, 리파페르의 문체론⁴⁾을 들 수 있다. 그를 따르면, “**메씨지 message**는 표현하고, **문체**는 강조한다.”라고 한다. 그는 언어의 제 기능을 더욱 발달한 분석 이론으로 분석하여 보면서, 정보 이론, 발전한 구조 언어학적 분석 방식을 원용하여서 찾은 것으로서, 문체의 관념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로만 야콥슨에서 보는 것처럼,⁵⁾ 옛글에 멋있게 들어선 고전적인

3) Noam Chomsky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 p.3.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p.70.

David Crystal (1987),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pt. 12.

J.Dubois, M.Giacomo, L.Guespin, C.Marcellesi, J-B Marcellesi, J-P Mevel (1973),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librairie Larousse의 style항 참조

Leonard Jackson (1991), *The Poverty of Structuralism, Lierature and Structuralist Theory*, Longman, London and New York. 77, 130-1.

4) Mchael Riffaterre (1971), *Essais de stylistique structurale*, Flammarion, Paris.

5) Roman Jakobson (1987), *Language in Literatur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표현 양식의 형태도, 현대적인 그것으로 발전시켜 가는 새로운 경향을 띠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중세의 용비어천가가 지니고 있는 표현 양식들이라 든가, 더 고대로 올라가서, 신라 향가가 지니고 있는 표현 양식들을 현대화 시켜서, 문체 양식으로 발전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시조를 구성하는 구성소들은 어떨까.

그런데, 현대 한국어의 문 구조에 들어 있는 문체의 구성 요소는 리파페르의 그런 강조 정도의 것이 아니고, 문 구조를 이루는 직접적인 구성 요소들-형태소들의 배열로 이름그것은 표현 양식을 나타내는 서술 접미사들임.-로 문 구조체 안에 존재함을, 우리는 본다. 그것은 문 구조의 구성 규칙으로 문 구조 안에 있다. 그런 요소들을 나는 표현 양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표현 양식은, 문 구조를 이루는 구성소로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구성 방식이 있다. 그 하나는 형태소로까지 분석할 수 있는 요소들이고, 다른 하나는 상가 음소들^{上音素}의 배열로 이루는 것들이 있다. 전자는 문 구조나 문장 구조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후자는 말로 말하여 가는 문 구조들 위에 얹혀서 상가하여서 나타내는 구성소들이다.

그러면, 내가 세워 가는 상관성 이론^{중대}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적 상관 관계성 *correlative relations of relativity* 이론에서는, 통어 구조 안에서 문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를 놓고서는 아래에서 간략하게 다루려고 한다.

1.1 문체 구성소의 역사적 발전

한국어의 통어 구조를 잘 살펴 보면 문 구조를 이루는 구성소에 문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음을 본다. 원전어들을 비롯하여서, 그들과 동일한 언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 구조들에서는, 그런 표현 양식을 표출하는 문 구조의 구성소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것은, 그런 언어 구조들에는, 그런 구성소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양 학자들은 문체라는 것을 문 구조의 외적 조건으로 다루거나, 문 구조에서 풍기는 뉘앙스로 다룬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그런 표현 양식을 이루는 구성소들이 문장 구조를 이루는 문 구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나는 그런 표현 양식들을 문체 구성

소들(文體 構法) style constituents로 다룬다. 곧, 그런 구성소들이 심층 구조를 이루는 기저 언어 구조 base language structure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저 언어가 전환 과정(構法 過程) transformation process을 거쳐서 표출문 구조로 나타날 적에, 그대로 표출문 구조에 표현 양식으로 나타남을 본다.

성경 번역문들에서, 그런 표출 양식을 드러내는 구성소들이 어디에 분포하여 있으며, 어떤 통어 기능을 수행하는가 함을 찾아 볼 수 있다. 곧, 그런 번역문 구조의 어떤 데에서 나타나며, 시대적으로 어떻게 발전하여 내려왔는가 함을 살펴 보려고 하여서, 나의 손에 들어 있는 성경책들에서, 그런 예를 찾아 보면서, 나의 견해를 말하여 보려고 한다.

1900년으로부터 한국어로 번역한 신약 성경 구절들을 아래에 예로 들어 놓고서, 그 문장 구조들에 들어선 문 구조들에서, 문체 구성소로 이룬 문 구조의 표현 양식들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 분포하면서, 번역문 구조가 어떻게 발전하여 내려왔는가, 함을 예문 구조들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그 글들에서, 표현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한번 찾아 보자.

예문으로 인용한 본문은 요한 복음 1:1-5임.

1) 가. 1900년

구세주강성일천구빅년 - 대한광무스년경즈 신약전서 대한황성미이교회인쇄소간출6)

처음에 도가 잇스니
 도가 하나님과 궤치 계시매 도는 곳 하나님이라
 이 도가 처음에 하나님과 궤치 계서서
 도로 써 만물이 지이엿스니 도 업시 지은 물건을 짓지 아니 하였느니라
 성명이 도에 잇스니 성명은 사람의 빛치라
 빛치 어두온디 빛치되 어두은 거시 이지 못 하더라

나. 1926년 解漢文 貫珠 新約全書 大英聖書公會 發行

太初에言이有하니言이하나님과同在하매言은神하나님이시라
 此言이하나님과 同在하서서言으로萬物이造호바되엿스니
 造호物이言이업시는造호것이一도無호니라
 生命이言에在하니生命은人의光이라
 光이暗에廻호되暗호거시靈치못 하더라

다. 1959년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대한 성서공회 발행
 1998년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대한 성서공회 발행

6) 책 말미에 번역자들이 서명을 하였다. H. G. Underwood, Jas S. Gale, Wm. B. Scranton, H. G. Appenzeller, Wm. D. Reynolds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취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 1967년 새 번역 신약 전서 대한성서공회 발행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생겨났으며 그를 통하지 않고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 1977년 공동 번역 성서 대한성서공회 발행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 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모든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

바. 1993 표준 새번역 성경 전서 대한성서공회 발행
 2001 표준 새번역 개정판 성경 전서 대한성서공회 발행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사. 2000년 한국 천주교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분도 출판사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시였다.
 그분은 맨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생겨난 것치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에 보인 여덟 가지 번역문 구조에 나타난 문 구조들의 구성 방식을 살펴 보면, 그 번역문 구조들은 다 각각 번역문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특징이라는 것이 그 문 구조들이 지니고 있는 표출문 구조의 스타일 구성소, 곧, 그 문 구조의 문체 구성소 style constituent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1가)에서 1다)까지의 문 구조들은 [···-라]라는 문체 구성소를 지니고 있고, 1라)의 예문 구조에서는 문체 구성소로 [···-니다]를 지니고, 1마)에서 1사)까지의 예문 구조들에서는 [···-다]라는 문체 구성소를 지니므로, 그 표출문 구조들이 다 각각 문 구조의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첫째, 예문 1가)에서 1다)까지의 번역문 구조의 특징은, 그 문 구조들에서, 서술 동사절로 분포한 [하느님이(시)-라]의 {-라}이며, [없느니라]와 [흐니라]의 {-라}, 그리고 [흐더라]의 {-라}다. 또한, [하느님이시래]의 {-라}이며, [無하니라]의 {-라}이고, [光이라]의 {-라}이고, [못하더라]의 {-라}다.

둘째, 예문 1라)의 번역문 구조의 특징은 그 서술 동사의 끝을 [···-니다] 하나로 끝맺었음을 보며,

셋째, 위에서 다룬 예문 구조 이외 예문 구조들의 특징은 문 구조의 종결을 {-다}로 끝맺었음을 본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 구조에 분포한 서술 동사절에 종결 접미사로 들어선 서술 종결 접미사가 곧 문체 구성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면, 그런 서술 종결 접미사들이 어떤 이유로 하여서, 그런 문체 구성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함을 다음의 1.2.3항에서 살펴 보려고 한다.

1.2 문체 구조의 역사성

- 고전적 문체와 현대적 문체 -
- 문체를 보는 우리의 관점 -

한국어의 표출문 구조에 분포하는 문체 구성소 구조는 번역문 구조가 역사성을 띠고 있음과 같이, 역사적 발전 과정을 함께 견고 있다.

1)에 보인 예문 구조들 중에서, 1가)의 번역문 구조는, 고품^{고품}이 담뱃 들어 있는 고전적^{고전적}인 문 구조체다. 그 책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이기 시작한 해가 1900년이니까, 한 세기가 지났다. 그러므로, 그것을 고전^{고전}의 하나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그 번역 성경, 곧, 대한광무스년경즈의 『신약 전서』가 지닌 문체 구조는, 한 세기의 역사성을 띠었으되, 그 번역인들에게 한국어어를 가르치면서 성서 번역 사업을 도운 한인^{한인}들은 우리 한어^{한어}로 이룬 고전들을 다 섭렵^{섭렵}하셨을 것이므로, - 곧, 실질적^{실질적}으로는 수천 년의 역사성을 띤 것과 같을 것이므로- 그 번역문 구조의 표기 체계는, 통어론적인 면으로 살펴 보아도 그 당시의 것으로서는 정연한 모습을 갖춘 것으로서, 높이 평가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그 번역문 구조가 갖추고 있는 문체 구조는, 튼튼한 문법 규칙 아래에서 구축하였음에 놀란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문법책이 지식인들의 눈에 든 시기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나라에서, 문법가들이 문법서를 내어 놓기 전에, 그런 번역 성서가 이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우리 나라에서, 문법서가 출현되어 나오기 이전 시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미 신라 시대로부터 내려 오는 국어에 대한 국민 의식이 한국 지성인들의 머리 속에 내재하여 있었음을 보이는 것으로서, 성경 번역문 구조의 문체에서 그런 훌륭한 어법 규칙이 있었음을 확히 내어다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눈 앞에 놓고서, 한 없는 경외와 사랑을 느끼지마는, 그를 여기에다가 일일이 다룰 겨를이 없다.

다만, 삼국 시대 이후 계속하여서 출간하여 나온 서책을 읽어가며 애족심을 기르면서 한국어 문법을 스스로 마음에 담고 있는 분들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동참하였음을 깨달아 알므로, 그저 그분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문법 시대 이전에 번역한 문 구조체들은 유교 경전을 읽는 이들이 읽으면, 좋아하거나, 만족스러워 할 문 구조체로 이룬 것이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여 보는 것은, 그 책은 누구를 위하여서 번역한 것인가, 함을 생각하여 보게 한다. 그 책이 채택한 문 구조체는 다음에서와 같다.

[아달을 나호리니 일흠을 예수-라 흐라 이는 제 빅성을 죄악에서 구하시리라 흠이니라 흐더라] - 마1:21

[이때에 예수 - 갈닐리로서 요단 강에 니르러 요한의게 세례를 밧으라 흐신디 요한이 스양하야 굴으디 내가 맛당히 네게 세례를 밧을터인디 너- 내게로 오시느닛가 예수- 디답하야 굴으샤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모든 흘흔거슬 이러케 다 흘지라 하신디 이에 요한이 허락 흐거늘]-마 3:13-15

[로마에서 하나님의 스랑하심으로 부르심을 넘어 모든 성도 된 자의게 편지 흐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쥬 예수 크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편안함이 너희게 잇기를 바라노라]-롬 1:7

이상에 예로 올린 성경 구절에서 문 구조를 구성하는 방식과 문절 구조

를 이루는 방식이 정연한 맞춤법 체계까지를 이루었음과 그 문 구조를 이루는 문 구조체가 꼭 유교 경전을 읽는 듯한 문체로 구성하였음을 본다

그리고, 그 번역문 구조로 하여서, 우리는 당시의 형편으로서는 <대명사 {나}-{너}와 그 복수형을 다른 명사로 대체하여서 사용하는 규칙이 아직 생겨 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볼 수 있음도, 그 책의 문 구조상의 특징임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다.

이로써 보면, 그 『신약 전서』에서 채택하여 쓴 문 구조체의 기술 양식표기 체계은 평민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의연히 알려 준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경 번역문으로 채택하여 쓴 문 구조체의 구성 방식을 잘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조선조 후기에, 다산¹⁾ 정약용²⁾은 유교 경전 중의 하나인 대학³⁾을 공부하던 사람을 지목하여서 말한 바에도 분명히 드러난다. ‘고대의 태학⁴⁾에서 대학 공부를 하던 학생들은 “천자의 아들과 제후·경·대부의 맏아들들”이었다. …… 그리고, 다산은 “재능만 있으면, 한미하고 천한 집안 사람일지라도 경성⁵⁾의 지위에 뛰어 올라 군주를 보좌하고, 만민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했다지만, 당시의 현실은 역시 사대부 집안 이상의 계층에 한정된 이야기이지 평민 이하 계층을 포함하여서 하는 말로 보기는 어렵다’고 김기현 박사는 말하고 있다.⁶⁾ 우리는 그런 점에 깊은 관심을 쏟는다.

여기에서, 필자가 위에 보인 말을 인용하는 것은 1900년에 나온 신약 전서의 문장 표현 양식과 문 구조를 구성하는 방식이 <문법 이전 시대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개역 성경이 채택하여서 쓴 문 구조의 표현 양식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고 함을 여기에 적어 둔다. 나도 『개역 성경』이 채택한 문체를 <좋은 뜻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사대부들과 그 자제들에게까지 읽게 할 수 있는 문체로 하려면, 그런 표현 양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좀 미미하지만, 하여 봄직도 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근본 뜻을 믿음으로 새기면, 우리는 그런 표현 양식 이외에도 좋은 표현 양식이 있을 터인데, 번역하는 이들이, 그런 데에는 어찌하여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을까, 하고 생각하여 본다.

1마)에서 보는 신약 전서의 문 구조체는 문장 서술의 표현 방식을[…¹⁾이다]로 하였음을 본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친구에게 편지글을 쓸 적에 흔히 쓰는 문체다. 만일, 현대어 성경의 번역문 구조를 [¹⁾이다]체로 일관하여서 쓴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화말의 문 구조체>는 어떤 스타일로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7) 김 기현 (2002), *대학·진보의 동아시아적 의미*, 사계절출판사, 15-35.

그런데, 1977년에 가서 나온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번역문 구조의 표현 양식을 서술 단정 접미사 {-다}를 써서, 지금까지 전하여 내려 오던 문 구조의 문체를 현대인의 언어 생활의 실상과 일치 시켜 놓았는데 그것은, 성서 번역사에 일획을 그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두어 가지의 흠을 남겼으니, 그 하나는, 그 책에서 채용한 조어법¹⁾이 흔히 <한국인이 쓰는 조어 방식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 있음>이 흠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 책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화법²⁾이 현대인의 대화법에 맞도록 하였더라면, 더 나은 번역문 구조체를 갖춘 성경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봄이 바금이다.

전자는, 가령, 창세기 첫머리에 나오는 부사어절 ‘태초에’를 ‘한 처음’로 조어하였음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한 처음]의 한정사³⁾관형사라는 것 {한}이라는 관형어는, {옛날}이라는 말처럼, 시간은 나타내었되, 일정한 한정성을 띠지 않는 말⁴⁾명사, 곧, {옛날}과 같은 말 앞에다가는 쓸 수 있지만, 시간성을 비교적 분명히 나타내는 명사 {처음}과 같은 말 앞에다가는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처음]이라는 신조어는 그리 잘된 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후자는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는 표현 양식이라든가, 가부장들이 쓰는 권위 있는 말투에 드는 것이므로, 그런 투를 성경 번역문 구조에다가 쓰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번역문 구조체를 안겨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든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말의 표현 양식이라든지, 사도들이 증언하는 말의 표현 구조들이 역시 권위주의적인 면을 띠고 있음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안겨 준 것이고, 또 안겨 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는, 그 말의 표현 양식을 현대화하여서 번역하여 줌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다.

1사)의 표준 새번역 성경 전서의 번역문의 문 구조체들은 어떤 면에서는, 현대어의 어법에 맞는 말로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가령,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 양식어는 누구나 주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의 예법으로 번역하여 주었더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효과가 더 잘 나타날 것이고, 주님께서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번역문의 스타일과 같은 문 구조체는 아닐 터인데……, 하는 생각을, 나는 하여 본다. 그리 번역하였더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은혜롭고, 더 친밀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았을 것이다

곧, 성경 말씀을 번역하시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현대인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표현 양식을 갖춘 문 구조체로 번역하였더라면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더 존경하고 더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말씀 번역문이 갖춘 어법은 현대인의 언어 표현 양식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마음 속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산다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그 생각은 기저 언어 구조 base language structure로 이룬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 기저 언어 구조로 이룬 문 구조체를 상대인이 알아 듣기 쉽게 전환 transformation하여서, 표출문 구조로 이룬 문 구조체로 말을 한다

곧, 사람이 사람을 대하여서 하는 대화의 화법은, 발화인이 상대인을 대하는 순간에, 그 상대인이 편안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 구조체 곧, 그런 표현 양식으로 바뀌어서 전환하여서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사람은 지닌다. 그런 능력이 사람의 마음에는 담겨 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사람의 마음에 담아 주신 귀한 선물이다 언어 표현 방식에, 그런 전환 과정이 있음을 아래의 예문 구조들로 설명하여 본다

- | | | |
|------------------|-----------------|----------------|
| 2) 가. 김 선생이 온다. | <<기저문 구조>> | 마음으로 생각한 말 |
| | 기저문 구조로 구성한 그 | |
| | 말을 그대로 표출문 구조 | |
| | 로 표출할 적도 있음. | |
| 나. 김 선생님이 오신다 | (전환 - 표출문 구조 1) | 말로 전환하여서 표출함 |
| 다. 김 선생님께서 오십니다. | (전환 - 표출문 구조 2) | 더 예의를 지켜서 하는 말 |

위에서 예로 보인 2)의 ‘가, 나, 다’의 예문 구조들이 표출하는 의미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그 말을 상대인에게 표출하는 표현 양식이 다를 뿐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가)의 문 구조는, 발화인이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문 구조체-심층 구조이고, 또, 그 기저문 구조로 이룬 말을 그대로 표출문 구조로 표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2가)의 문 구조는 기저문 구조로 있음과 동시에, 발화인이 그 기저문 구조를 그대로 표출문 구조로 하여서 표출할 수도 있다.

2나)의 문 구조는, 발화인이 2가)와 같은 생각을 상대인을 만나는 순간에 상대인의 마음을 살피 가면서, 그런 생각-기저문 구조를 상대인이 알아 듣기 좋게 전환하여서 표현한 말이고, 2다)는, 김 선생에게 대한 자기의 예의를 표현 양식으로 갖추어서, 표출한 말의 문 구조 유형이다

그런데, 우리가 위의 예문 구조에서 보는 바는, **그 문 구조들이 표출하는 의미 내용은 동일하지만**, 다만, 말을 듣는 사람의 심중을 헤아려서, 또는, 그 말에 등장하는 사람의 인격, 사회적 지위, 신앙의 대상, 등을 고려하여서, 그 말의 표현 양식을 달리하였음을 볼 수 있다. 곧, 표현 방식은 달리하였어도 그 의미 내용은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표현 양식을 생각하는 마당에서, 위에서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대화인 사이에서, 수행하는 언어 기능의 바닥에는, 언어로 말미암은 **상관성**- 상대적 상관 관계성이 내재하여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화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재하여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언어 구조 속에 그런 상관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 언어학 이론을 펴는 나의 통어 이론의 하나다. 이를 놓고서는 다른 기회를 가지겠다

1.3 한국어의 문 구조 구성 방식과 문체 구성소의 분포

우리는 문 구조에 분포하면서, **그 문 구조의 구조적 특징을 드러 내어 주는 문체 구성소들이** 그 문 구조의 어디에 분포하여서, 어떤 구성소들과 어떤 상관 관계성을 지니고서, 어떤 통어 기능을 수행하면서, 어떤 의미를 표출하는가, 함을 간략하게 살펴 보려고 한다.

문 구조에 분포하는 문체 구성소를 살펴 보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한국어의 문 구조의 구성 방식을 알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이 항목은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그 하나는 **문 구조의 구성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문체 구성소 구조의 구성 방식**이다.

1.3.1 한국어의 문 구조의 구성 방식

이 지구 위에는, 크게 세 가지의 언어족이 있다. 그것은, 우리 한국어와 같이, 첨가어(黏着語)에 드는 언어들인 한 언어족에 있는가 하면, 인구어와 같이, 굴절어(屈折語)에 드는 언어들인 중국어와 같이, 고립어(孤立語)에 드는 어족도 있다. 가령, 한국어, 몽골어, 만주어, 통구스어, 펠기어, 등은 첨가어에 들고, 라틴어, 영어, 불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랍어와 같은 언어들은 굴절어에 속한다.

한국어의 구조적 특징은 이렇다. 문 구조는 문절(文節)들이 서열을 지키면서, 배열하여서 이루고, 문절들은 그 어간에 접미사(들)이 첨가하여서 이룬다. 접미사에는, 주어절, 피사어절(목적어절이라는 것), 그리고, 부사어절의 어간에 통어 자격을 매겨 주는 자격 접미사(助詞)와 의미만을 부

가하여 주는 통용 접미사(通用 接尾辭)가 있으며, 서술어절의 어간에 첨가하는 접미사로는 태상(態相) 존대(尊大), 시칭(時稱) 등을 드러내는 양상 접미사(樣相 接尾辭)와, 문 구조의 표현 양식을 결정하여 주는 양식 접미사(樣式 接尾辭)가 있다.

그런데, 언어학자 중에는, 한국어의 문 구조에서 문절 구조 phrase structure에 분포하는 접미사들이 그 문 구조에서 수행하는 통어 기능과 의미 표출 기능을 굴절어에 들어서는 어미라는 것과 동일시(?)하는 데에서, 한국어 문법을 다루면서도, 비-한국어적인 문법을 말하고 또 세우고 있다

한국어는 분명히 첨가어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언어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거나, 모르고서, 현대 언어학 이론을 따르는 언어학자들이 전개하는 보편성 universality 위주로 한국어 구조도 보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문 구조를 이루는 구성소들이 <문절의 어간은 어간으로서, 접미사들은 각각 접미사로서> 수행하는 통어 규칙과 그들이 표출하는 의미를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하니까, 한국어를 말하는 우리의 사고 방식과 굴절어로 말하는 저들의 사고 방식과의 사이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찾아 내지를 못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첨가어에서 볼 수 있는 접미사(接尾辭) suffix라는 것과 굴절어들에서 볼 수 있는 어미(語尾) ending라는 것과는, 언어 구조상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에 속하는 것들인데 문법가 가운데에는, 우리의 접미사와 저들의 어미를 동일시(?)하므로, 문법 이론 전개에 큰 오류를 범하고들 있다. 그런 문제는 다른 데에서 다룰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더 다루지 않는다. 다만, 한국어 문법을 연구할 적에, 생성 문법 이론이나, 보편 문법 이론을 끌어서, 문법 연구에 도움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마는, 그 언어 구조들의 틀을 한국어 연구에 덮어 씌울 수는 없다 언어구조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면, 그 차이점들을 극복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다만, 그런저런 이론들을 끌어서, 한국어의 통어 이론이나 문법 이론 연구의 한 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어법 연구 방법론과 그 방법론을 따른 연구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방법론과 기술로, 한국어의 어법과 통어 이론을 개발하여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야만, 한국어의 통어적 특징을 통어 이론으로 올바르게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국인이 문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함을 실례를 들어가면서,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문 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성소들이 문 구조의 어디에 분포하는가 함을 살펴 본다

문 구조는 주어절과 서술어절을 서열적으로 배열(配列)하여서 이룬다. 그런데, 그런 예를 굴절어에 드는 언어로 문 구조를 이룰 적에는, 문 구조의 구성 방식을, 그렇게 쉽게 간단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어의 문 구조 구성 방식을 아는 이들(통어 이론을 연구하는 이들은, 그렇게 간단히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간단히 말하지 않는 것은, 한국어의 문 구조를 구성하는 방식이 저들의 것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저들의 언어 구조와 우리의 언어 구조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문절에 분포하는 접미사들은 다 각각 하나의 형태소로서, 그들이 문 구조에 분포하는 문절 구조에 들어서면 그들은 각각 그들이 지니고 있는 통어 소성 syntactic feature을 따른 통어 기능을 수행함과 함께, 그들이 표출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어의 문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다음의 예문 구조로 한국어

의 생김새를 살펴 본다. 아래에다가, 단순문 구조 單純文 構造/單文 構造로 자동문 구조와 타동문 구조를 들씩 예로 든다.

- | | |
|-------------------------|----------|
| 3) 가. 은혜가 내린다. | (자동문 구조) |
| 나. 하늘이 맑다. | (자동문 구조) |
| 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 | (타동문 구조) |
| 라. 그분이 기도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신다 | (타동문 구조) |

위의 예문 구조들을 보면, 한국어의 단순문 구조는 주어절 noun phrase, NP과 서술어절 verb phrase, VP의 배열 配列로 이루고, 주어절과 서술어절은, 반드시 문절 구성 규칙을 따라서, 각각, 문절의 어간 語幹에 접미사 接尾辭가 첨가 배합 配合하여서 이룬다. 문 구조를 이루어서 말을 하는 발화인이 그 문 구조에 분포하는 주어 구성소가 표출하는 의미를 보완 補充하려고 할 적에는, 그 발화인은 문절의 어간의 통솔 統率 아래에 있는 한정어 限定語 determiner, D나 한정어절 限定語節 determinative phrase, DP을 끌어서 통솔하여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서술어절에 분포하는 어간 동사의 표출 의미를 보완하려고 할 적에는, 그 어간의 통솔을 받는 피사어절 被事者節 object phrase, NP₂ -이를 학교 문법에서는 목적어절이라고 함과 부사어절 副詞節 adverb phrase, AP을 임의로 끌어서 쓸 수 있다. 피사어절과 부사어절은, 주어절과 함께, 명사절의 하위 분류로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화인은, 발화상 필요할 적에는, 주어절의 어간인 주어가 표출하는 의미를 보완하려고 하여서, 한정어나 한정어절 학교 문법에서는, 이들을 관형사나 관형사절이라고 함을 끌어서, 주어가 표출하는 의미의 표출 범위를 한정하게 할 수 있고, 서술어절의 어간 동사동작 동사, 상태 동사, 존재 동사, 지정 동사가 표출하는 의미를 보완하려고 할 적에는, 그 서술어-서술어절의 어간 동사만을 서술어라고 함은 부사어나 부사어절을 끌어서, 어간 동사가 표출하는 의미의 표출 범위를 한정 보완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그 서술 동사가 타동사일 적에는, 그 서술어의 표출 의미를 보완하려고 하여서 반드시 보완 문절 補充 文節 complement phrase, CP인 피사어절 被事者節을 필수적으로 끌어서, 주어에 대한 서술어의 표출 의미를 보완할 수 있다.⁸⁾

8) 필자가 여기에서, 보완어, 보완 문절이라는 것은, 대체로, 학교 문법가들이 수식어, 수식어절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나는 현대 언어학적인 견지에서, 이들을 보완어, 보완 문절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나는, 학교 문법가들이 수식어, 수식어절을 보는 관점을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통어 이론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 구조에 분포하는 명사절의 어간이 표출하는 의미의 본질을 생각하면, 그 어간 명사들은 자기가 표출하는 말의 의미를 수식하는 말로 수식어나 수식어절을 부려서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어간들이 끌어서 통솔하는 말-보완

주어절이나, 부사어절, 그리고, 피사어절의 어간은 명사류어에 드는 명사 대명사, 수사, 수명사들로 구성한다. 명사절의 어간에 첨가하는 접미사는 자격 접미사 case suffix들과 통용 접미사 common suffix들로 구성한다.

자격 접미사는, 그것이 가서 첨가한 어간 명사에 통어 자격.주어격, 피사어격, 부사어적을 매겨 주는 통어 기능을 수행함과 함께, 접미사가 표출하는 의미를 그 어간 명사에 첨가하여 준다. 통용 접미사는 그것이 지니는 의미만을 그 어간에 부가하여 준다. 통용 접미사는 통어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구성소다.

그리고, 통용 접미사의 통어적인 특징은, 그것이 분포하는 방식이 폭 넓다. 그 중의 더러는 명사절에도 분포하고, 동사절에도 분포한다. 그러하므로, 그들을 통용 접미사라고 한다.

특히, 성서 번역인들이 유의할 점은, 한국어의 문 구조에 들어서는 접미사들은, 다 각각 다른 형태소인데, 그 어떤 것이든지 문절 구조에 분포하여 들어서면, 자기가 표출할 표출 의미를 표출함과 함께, 문법 기능/통어 기능을 수행함이 통어적 특징이다. 그런 점은 굴절어에 드는 언어 구조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구조적 특징이다. 그런 특징은, 첨가어에 드는 언어들도 공통으로 지니는 공통성이다. 곧, 언어학자들이 여러 나라 말에 있는 접미사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보는 눈이 우리와 서로 다르다는 말이다. 특히, 한국어의 접미사들은, 의미 표출 기능과 통어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이다.

서술어절의 구성 방식은 서술 동사 predicate verb와 서술 접미사 predicate suffix들의 배합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그 어간 동사에는, 동사류에 드는 동작 동사(動作動詞), 상태 동사(狀態動詞)형용사라고 하던 것, 존재 동사(存在動詞), 지정 동사(指定動詞)들이 그 하위 단위로 있다. 그리고, 서술 접미사에는, 서술 양상(樣相)을 나타내는 양상 접미사(樣相接尾辭) aspect suffix와 표현 양식을 나타내는 양식 접미사(樣式接尾辭) style suffix들이 있다.

곧, 서술 접미사는, 그것이 가서 붙는 어간 동사가 주어에 대한 동작, 상태, 존재, 지정, 등을 서술할 적에, 그 어간 동사가 채 서술하지 못하는 서술 양상(樣相)과 서술 양식(樣式) 등의 통어 기능을 그 어간에 부가하여 주면서 그 어간과 함께 동사절을 이루어서, 주어에 대한 동작, 등을 서술하는 서술 기능을 수행한다.9)

어, 보완 문절-은 그들이 표출하는 의미를 보완 한정하는 한정성을 띤 말들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놓고서는 나의 한국어 통어 구조론 연구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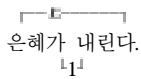
통어 기능면으로 보면, 주어절의 어간으로 분포하는 주어는 서술어절의 어간으로 분포하는 서술 동사에 첨가하는 서술 접미사(들)을 통솔하여서, 서술어의 통어 기능을 돕고, 서술어는 그 문 구조에 분포하는 주어, 피사어, 부사어에 첨가하는 자격 접미사를 통솔함으로, 그런 어간 명사로 하여금, 각각, 주어, 피사어, 부사어로서의 통어 자격을 수행하게 하면서 그들의 통어 기능을 돕는다. 그런 점은 첨가어들이 지니는 통어 이론의 공통성이고 특성이다.

그러면, 한국어의 문 구조의 구성 방식은 어떠한가. 이를 이해하기 쉽게 하여 보려고 하여서, 다음과 같은 문 구조 구성의 구조도를 이용한다. 위에 예로 든 예문 구조들을 여기에 끌어서, 도해하여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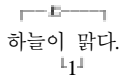
4) 문 구조를 구성하는 방식을 문 구조 구성 구조도(줄여서, 구조도)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A. 예문 구조와 구조도의 구성 방식

가. 은혜가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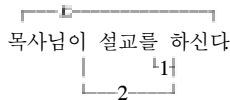


나. 하늘이 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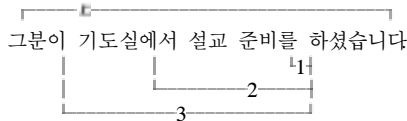


(이상은 자동문 구조임)

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



라. 그분이 기도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상은 타동문 구조임)

위에 예로 보인 문 구조의 구성 방식을 구조도로 그려 보였다. 그 구조도들을 보면, 위에 보인 예문 구조들이 다 동일한 방식으로 문 구조를 이루

9) 이들을 놓고서는, 필자의 한국어 통어 구조론 연구, 제5 단원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람. 이 책은 신춘에, 서점에 나올 것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곧, 주어에서 시발한 상관성선이 서술어의 어간 동사에 첨가한 서술 접미사에 가서 멈추었음과, 서술어에서 시발한 상관성선들이 각각, 피사어, 부사어, 주어에 첨가한 자격 접미사에 가서 멈추었음을 본다. 그것은, 그 문 구조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상대어에 첨가하여 있는 구성소서술어가 주어에 대하여는 자격 접미사를, 주어가 서술어에 대하여는 표현 양식 접미사의 하나인 종결 접미사를 통어 기능으로 통솔함으로, 그 주어와 서술어는, 각각, 자기의 상대어로 하여금, 상대어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심층 구조로 다져 보면, 그 문 구조에 분포한 주어는, 상대어인 서술 동사의 통솔 아래에 있는 주어 자격 접미사를 맞아들임으로, 그 주어는, 그 문 구조에서, 주어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서술어는 상대어인 주어의 통솔 아래에 있는 서술 접미사를 맞아들임으로, 그 문 구조에서, 서술어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말한다.¹⁰⁾ 그러므로,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들은 그 어떤 것이든지 독존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구성소와 상대적 상관 관계성을 지녀야 한다. 그런 구성소는, 그런 상관성을 지니면서 문 구조에 분포하여 있을 적에, 비로소, 그 문 구조에서 일정한 위치에 분포할 수 있으며, 그런 구성소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그 문 구조에 분포하는 주어와 서술어는, 각각, 상대어와 상관성을 지니려고 하면, 상대어에 첨가하여 있는 접미사들을 자기의 통솔 아래에 두어야 하는데, 그 둘은 상대어에 첨가하여 온 접미사들이 없으면, 그 둘은, 각각, 주어로서, 서술어로서의 통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런 심층 구조로 이론 기저문 구조 base sentence structure를 표층 구조 surface sentence structure로 전환하여서 이론 표층문 구조를 구조도 위에 올려 놓고서, 심층으로 보던 상관성을 상관성선으로 그려 놓고서 살펴 보면, 그 문 구조에 분포한 주어에서 시발한 상관성선이 그 문 구조에 분포한 서술어절의 어간 동사에 첨가한 서술 접미사에 가서 멈추었음을 본다. 그것은, 하나의 문 구조에서, 그 문 구조에, 각각, 동작주, 상태주, 존재주, 지정주 등으로 들어선 주어가 수행하는 동작 상태, 존재, 지정, 등을 서술어절로 들어선 어간 동사동작 동사가 그런 것을 온전히 서술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10) 서술 동사와 그의 통솔을 받는 피사어절과 부사어절들과의 관계도 위에서 보인 통솔 이론과 동일한 이론으로 보아 주시기를 바랍.

서술어절의 어간 동사는 상대어의 그런 동작 등의 중요 개념만을 표출하여 주고, 그 밖에, 그 서술 개념을 더욱 분명히 하려고 하여서, 그 서술 어간 동사에, 서술 양상 접미사(接尾辭)와 서술 양식 접미사를 배합하여서, 그들과 함께 서술어절로서의 표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문 구조를 이루는 문절의 구성소들은 다 각각, 그 문 구조에 분포하는 다른 상대 구성소들과 가능한 상관성과 상보성(相補性) complimentary를 지니면서, 공존한다.

그런 공존(共存) 또는 共存(coexistence/cooccurrence)은, 마치 사람이 한 사회에서, 일정한 자리에 분포(分布)하여서, 다른 사람(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더불어, 상관성을 지니면서, 서로 상보적(相補性)인 존재로 있어야 함과 같다. 그리하여서야, 그 존재 구성소는,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역할(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더불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상관 상관계성을 지니고서, 한 사회에 공존하여 있음과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함을 본다.

그것은, 곧,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들이, 각각, 자기가 분포하여 있어야 할 자리에서, 다른 구성소(들)과 상관성과 상보성을 지니고서, 공존하여야 함과 같다.

따라서,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들은, 그 어떤 것이든지, 남을 통솔하는 것은 그 통솔을 받는 것에 의존(依存)한다. 곧, 언어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는, 그 어떤 것이든지, 다른 구성소와 더불어 <통솔과 의존>과 같은(동일한) 동시적 규칙 아래에서 존재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구성소들이 그 문 구조에서 수행하는 통어 기능을 구조도 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필요로 할 것이다.

1.3.2 문 구조에 분포하는 문절들과 그 구성소 구조

-특히, 주어절과 서술어절의 구성 방식 방식을 중심으로

문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주어절과 서술어절이 그것이다. 그런데, 주어절의 구성 방식은 서술어의 통솔 아래에 있는 자격 접미사들의 통어 소성을 따라서, 그 하위 분류를 결정하고, 서술어절의 구성 방식은, 그 문절에 어간으로 분포하는 동사들의 통어 소성을 따라서 그 하위 분류를 결정한다. 그리고, 주어절을 구성하는 방식과 피사어절, 부사어절을 구성하

는 방식이 구조적으로 공통성을 띠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흔히 **명사절** **ㄴ**이라고 부르며, 서술어절에 분포하는 **문절의 어간들**은 그 통어 소성을 따라서 하위 분류를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서술 동사들이 문 구조에서 수행하는 통어 기능이 동일하므로, 이들을 모두 **동사절** **ㄴ**에 포함시킨다.

그런데, 서술어절의 어간 동사들이 지닌 **통어 소성**은 그 어간 동사로 하여금, 문 구조에 문절이 분포할 적에, 주어에 대한 서술 기능을 분할시켜 준다. 그런 소성에는, **동작성** **동작성**, **상태성** **상태성**, **존재성** **존재성**, **지정성** **지정성**, 등이 있다. 그런 소성을 따라서 분할한 동사에는, **동작 동사**, **상태 동사**, **존재 동사**, **지정 동사**가 있다. 그 중에서 동작성을 띤 동작 동사에는, 그 소성의 하위 분류로 **자동성** **자동성**과 **타동성** **타동성**으로 분할하는데, 자동성을 띤 동사에는 **자동사**가 있으며, 타동성을 띤 동사에는 **타동사**가 있다. 동작 동사의 통어 소성으로 말미암아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하는 것은, 이 지구에 살아 있는 언어 구조에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네 가지의 동사류 중에서, 자동성을 통어 소성으로 하는 것에는, 자동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상태 동사나, 존재 동사, 그리고, 지정 동사까지도 다 자동성을 띠고 있다.

여기에서 동사들의 통어 소성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문 구조에 들어서면, 주어가 수행하는 동작, 존재, 상태, 등에 대한 서술어의 **논증** **argument**에 중대한 역할-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문 구조에 분포하는 서술 동사가 주어의 동작, 등을 논증할 적에, 그 **논증항** **논증항** 줄여서 **논항** **논항**으로 피사어절, 부사어절, 등을 끌어서 통솔함으로, 주어에 대한 서술 기능을 보완함과 함께 확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론이 한국어의 통어 구조 이론 속에 들어 있음을 찾아 세움으로, 한국어의 논리성은 더욱 분명하여 가고, 한국인의 언어로 말미암은 논리성은 이 지구촌에서 빛을 보게 되도 그 저 우연으로 얻은 결실은 아닌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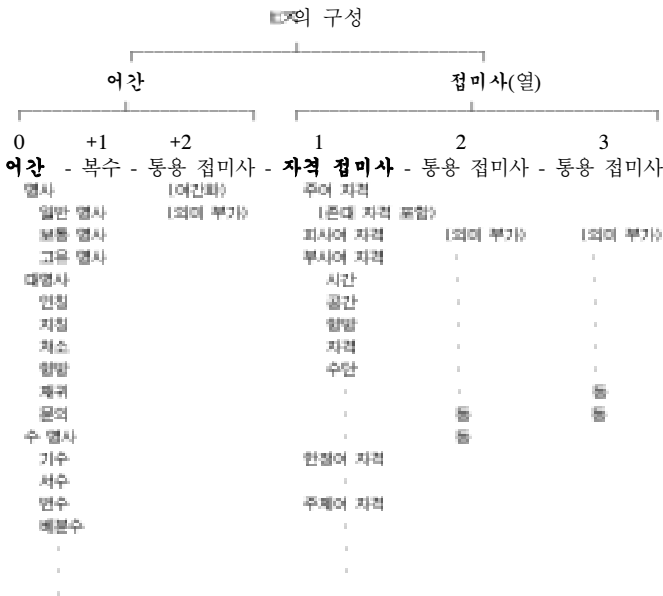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 구조를 이루는 문절 구조의 짜임새를 잘 살펴 두어야 하겠다. 한국어의 문 구조를 이루는 문절들의 구조적 특징을 알지 못하면, 한국어의 귀한 언어적 특징도, 한국어의 논리 구조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절 구조는 문 구조의 핵을 이루는 명사절과 동사절인데, 그 구성 방식을 아는 것이 한국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므로, 그 구조들을 여기에서 간략하게 살펴 보려고 한다. 피사어절과 부사어절, 그리고 한정어절의 구성 방식도 명사절의 구성 방식과 기본 틀은 거의 같으므로, 명사절 구성 방식에서, 그 구조적인 면모를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므

로, 나머지 구조들은 이와 견주어 보면서 미루어 보시기 바란다 그러므로, 나머지 문절 구조의 설명을 여기에서는 줄인다

명사절의 구성 방식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하려고 하여서, 이들을 구성 공식과 도해하여서 보이면, 다음에서와 같다.

5) 가. 명사절의 구성 공식: $NP \rightarrow NP$

나. 명사절의 구성 방식 구성소들의 배합 서열과 그 통어 기능을 도해하여서 보임.



다. 명사절 구성 방식의 예:

- | | | | |
|---------|---------|---------|---------|
| a. 주어절 | b. 피사어절 | c. 부사어절 | A. 한정어절 |
| 학생이 | 책을 | 학교에 | 너희의 |
| 학생들이 | 책들을 | 학교에서 | 너희들의 |
| 학생들만이 | 책들만을 | 학교에서까지 | 너희들만의 |
| 학생들까지만이 | 책들까지만을 | 학교에서까지도 | 너희들까지만의 |

위에서 보면, 명사절의 구성 방식은, 문절의 어간 명사에, 자격 접미사를 첨가하고, 거기에, 발화상 필요한 의미를 부가하여야 할 적에는, 발화인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통용 접미사를 부가하여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문절의 어간 명사에는, 통어 자격 접미사를 반드시 첨가하여야만 그 문절의 통어 기능이 무엇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어절과, 피사어절에서는 어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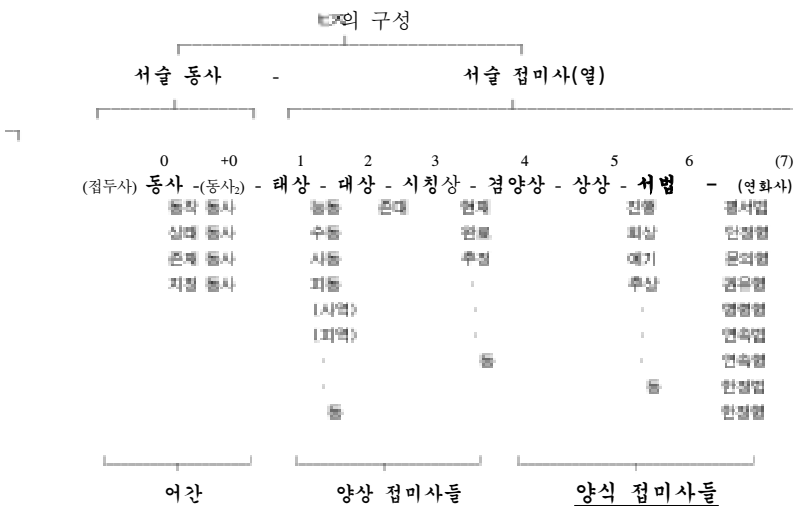
참가하는 자격 접미사 앞에 복수 접미사와 그 밖의 통용 접미사의 일부가 가서 첨가할 수 있지만, 부사어절에서는, 어간 명사 다음에 반드시 부사어 자격 접미사를 첨가하고, 그 다음에 통용 접미사를 부가함을 본다. 그것은, 문절의 구성 방식에, 그런 서로 다른 배합 규칙이 있음을 보인 것이다

다음의 6)으로, 하나의 문 구조에서, 서술어절로 분포하는 서술 동사절의 구성 방식에서는, 그 동사절을 구성하는 구성소들이, 일정한 배합 서열을 지킨다. 여기에서, 구성소들의 분포 서열이라고 함은, 그 문절을 이루는 구성소들의 배합 순위를 의미한다

6) 가. ㄷ의 구성 공식: 구성소들의 배합 서열대로

ㄷ → [어간] [동사] [접미사] [접미사] [대상·대상·시상] [접미사] [접미사] [접미사] [접미사] [접미사]

나. 도해: ㄷ의 구성 방식을 도해하여서 보임.



동사절의 구성 방식을 ‘6)가’의 동사절의 구성 공식과 ‘6)나’의 도해를 보면서, 문 구조에 분포하는 동사절을 구성하는 구성소들에는, 어떤 이름을 지닌 것이 있으며, 그 구성소들이 그 문절 구조에서 어디에 분포하고, 어떤 통어 기능을 수행하는가, 함을 짚어 본다.

그런 구성소들이 문절 구조에 분포하는 방식을 ‘6)나’에 보인 도해로 살펴 보려고 하여서, 그 구성소들에 각각 배합 서열을 숫자로 표시하여 보인다. 곧, 어간 동사는 0으로 표시하고, 이른 바, 강조 접미사라고 하는 제2의 어간 동사-예: [프리-], [치-]는 +0으로 표시한다. 서술 접미사들은, 각각, 그 분포 순위를 따라서, 1, 2, 3, 4, 5, 6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그 문절 구조의 맨 마지

막에, 발화인이 임의로 첨가시킬 수 있는 연화사^{連化詞} softner는 괄호로 묶고, 배합 서열을 (7)로 표시하여 보인다. 여기에서, 강조 접미사를 +0으로 표시한 것은, 그것에 해당하는 구성소는 타동사에서 전성하여 들어선 것인데 흔히, 한국 문법가들은, 그것을 강조 접미사 {뜨리-}나 {치-}로 다루는 것임을 보이려고 하여서¹¹⁾, 이를 +0으로 표기한다.

서술어절 predicate phrase인 동사절 verb phrase, VP의 어간으로 분포하는 동사에는, 그 하위 분류로, 1) 동작 동사^{動作動詞} 또는 행동 동사 action verb, AV, 2) 상태 동사 state verb 또는 description verb, DV -전통 문법에서 형용사로 다루는 문절의 어간들의 한 부분, 3) 존재 동사 existence verb, EV, 4) 지정 동사 identification verb, IV가 있다.

동사절의 구성 방식은, 그 어절-또는 문절 phrase의 어간 동사 verb stem가 분포하고, 거기에, 서술 접미사 predicate suffix-종결 접미사를 첨가하여서 이를 수도 있고, 발화인이 발화상 필요함을 따라서는, 그 어간 동사에, 양상 서술 접미사들^{量相接尾辭} aspect suffixes과 양식 서술 접미사들^{樣式接尾辭} stylistic suffixes, 그 양식 접미사 끝에, 서법 서술 접미사 mood predicate suffix도 포함함을 서열적으로 배합하여서 이를 수도 있다. 둘 더되는 서술 접미사들이 일정한 배합 서열을 지키면서 배합하면, 서술 접미사열 predicate suffix string을 이룬다.

문 구조의 서법^{書法} mood-줄여서, 서술법^{書述法}에는, 평서법 declarative mood ^{平書法} 직설법 또는 단정법이라고도 함, 연속법^{連續法} contiulative mood-접속법이라고도 함, 한정법^{限定法} attributive-determinative mood-관형법이라고도 함의 세 가지가 있다. 따라서, 동사절의 어간 동사 verb stem에 첨가하는 서술 접미사들 predicate suffixes에는, 문 구조의 기본 형태를 이루는 서법을 따라서 세 가지 하위 분류를 이루는데, 1) 평서법으로 쓰는 서술 접미사들과, 2) 연속법으로 쓰는 서술 접미사들과, 3) 한정법으로 쓰는 서술 접미사들이 있다.

평서법 서술 접미사에는, 1) 단정형 접미사^{斷定接尾辭} assertive suffix, 2) 문의형 접미사^{問疑接尾辭} interrogative suffix, 3) 권유 접미사^{勸誘接尾辭} optative suffix,

11) 발화인이 타동사를 선택하여서 서술 동사의 어간으로 삼을 적에, 그 표출 의미를 강조하려고 하면, 동일한 통어 소성^{通語小聲}-타동사성을 지닌 타동사를 끌어들이어서, 그와 함께 복합 타동사 어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예: [{개-}₁{뜨리-}₂] → {개뜨리-}, [{빠-}₁{치-}₂] → {빠치-}, 등. 이 때에, 제2 어간 {뜨리-}₂와 {치-}₂를 강조 접미사로 다루는 이도 있음.

4) 명령형 접미사 imperative suffix로 쓰는 서술 접미사들이 있다.

연속법 서술 접미사에는, 연속형 접미사 continuative suffix로 쓰는 서술 접미사들이 있다.

한정법 서술 접미사에는, 한정형 접미사 attributive-determinative suffix로 쓰는 서술 접미사들이 있다.

특히, 서술 접미사에서, 서법으로 쓰는 서술 접미사들, 곧, 평서법 종결 접미사들 平語法 終結辭 接尾辭과, 연속 접미사들 連續 接尾辭과, 한정 접미사들 限定 接尾辭은 문 구조에 분포하는 서술 동사절 구조의 필수적 요소다

그리고, 서법 서술 접미사들 중에서, 앞의 세 가지를 도거리로 일러서 양상 접미사 樣相 接尾辭 aspect suffixes라고 하고, 뒤의 세 가지 접미사들을 연이어 배합하여서 이룬 [(양상)-(상상)-종결 접미사(열)]을 일러서, 양식상 접미사 樣式 相 接尾辭 modality suffix, 또는, 양식 접미사열 樣式 接尾辭列 modality suffix string이라고 한다.

양상 접미사들 aspect suffixes에는, 1) 태상 접미사 態相 接尾辭 voice-aspect suffix-이를 역상 접미사 役相 接尾辭로 다룰 수 있음, 2) 존대 접미사 honorific-aspect suffix-또는, 대상 접미사 對相 接尾辭, 3) 시칭상 접미사 時稱相 接尾辭 time-aspect suffix-또는, 시상 접미사가 있다.

양식 접미사들 stylistic suffixes에는, 1) 겸양 접미사 謙讓 接尾辭 modesty suffix-또는, 양상 讓相 接尾辭, 2) 상상 접미사 狀相 接尾辭 state-aspect suffix와 3) 서법 서술 접미사들 mood suffixes이 있다.

동사절에 어간으로 분포하는 동사가 발화인이 발화상 필요함을 느끼거나 인식함을 따라서는 접두사 接頭辭 prefix를 끝어서 쓸 적이 있다. 그럴 적에는, 그 접두사를 그 어간 형태소 앞에 붙여서 쓴다. {가-} → {안가-}, {잡-} → {줄잡-}와 같다.

1.3.3 한국어의 구조적 특징과 문 구조에 분포하는 문체 구성소

- 표형 양식 접미사들의 배합으로 이룬 문체 구성소

언어 구조 외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하겠다. 한국어의 문 구조에, 표현 양식을 드러내는 문체 구성소 구조가 들어 있다. 고 하는 것은, 한국인인 나에게는 그렇게 고맙고, 고마울 수밖에 더 없다. 남들은 자기가 표출하는 말이나 글에, 자기 나름대로의 문체를 이루어 가려고, 기저문 구조를 전환문 구조로 표출하려고 할 적에는, 문 구조에 분포하는 어휘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든지, 그런 어휘와 거의 비슷한 어절을 끌어 들여서, 대체하여서 쓰든지, 문 구조에 분포하는 어절 하나를 그 문 구조의 선두로 이동하여서 쓰면서(이동 규칙 적용), 자기 나름대로의 멋을 글 위에 얹는다. 그런 규칙

을 적용하는 일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므로, 그들은 그야말로 그런 일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런데, 우리는 나서 자라면서,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버지와 이웃 어른들부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양식을 다 익혀 버렸으니, 어찌 고맙지 아니하리오.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앞 항목 ‘6가’에 보인 동사절의 구성 공식을 보면, 그런 고마움을 마음에 지닐만 하다. 그런 동사절 구성 공식을 보면, 다른 언어 구조에서는 볼 수 없는 **문체 구성소 구조**가 우리 동사절 구성 공식에 들어 있음을 본다. 그러면, 그 공식을 여기에 옮겨서, 그런 구성소들이 어디 분포하는가, 함을 살펴본다.

7) <어간 디> [서술 접미사열·양상 접미사열·태상·대상·시상] [주어] <의사·경약상·상상·서법>

위에 보인 동사절 <어간 디> 구성 공식을 어떻게 읽을까. [동사절은, 그 문절의 어간 동사에, 서술 접미사열을 첨가하여서 이루고] [서술 접미사열은, 양상 접미사열에, 양식 접미사열을 연이어 배합하여서 이룬다] [양상 접미사열은, 태상·대상·시상 접미사들을 연이어 배합하여서 이루고] [양식 접미사열은, 겸양상·상상·서법(연화사)를 연이어 배합하여서 이룬다.]

한국어의 문 구조의 구조적 특징이 무엇이나, 함을 놓고서는, 구조 언어학자나 생성 문법가나, 논리학자, 수리 논리학자들 가운데에서는, 60대에 들어서면서, 더러 논란하기를 비롯한 것 같다. 곧, 한국어의 문 구조를 이룬 구성소 중에서, 그 문 구조에 분포하는 어간 명사와 어간 동사는 명제 논리 propositional logic 구조에서도, 문 구조의 핵으로 보는 눈이 생겼지마는, 문 구조에 분포하는 명사절의 어간과 동사절의 어간에 첨가하는 자격 접미사-이른 바, 격 조사라는 것-와, 서술 접미사-이른 바, 종경 어미라는 것-가 수행하는 통어 기능을 놓고서는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서술 논리 이론을 전개하는 이론들에서도, 한국어의 자격 접미사가 수행하는 통어 기능을 아직까지 두렵이 풀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서술 접미사들이 수행하는 통어 기능을 놓고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저들의 모어의 문 구조에서는, 그런 구성소들이 표출문 구조에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한국어의 자격 접미사의 통어 기능을 **문절 표지** phrase marker -생성 논자들은 이를 구 표지-로 봄- 정도로 이해하고들 있다.¹²⁾ 그것은, 저들이 한국어와 같은 첨가어와 저들

12) Matthews, P.P.(1981),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60-1. 기타 다수.

의 모어인 굴절어의 특징을 분명히 살펴 보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두 언어 구조들의 차이점들을 분명히 설명할 수 없다

한국어의 문 구조에서, 명사절에 분포한 어간 명사들에, 자격 접미사들이 각각 가서 첨가하면, 그 자격 접미사들은, 각각, 그 어간 명사로 하여금, 주어, 피사어, 부사어, 또는 한정어로서의 **통어 자격을 매겨 주고,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통어 기능을 수행하게 하며, 그리고, 그들이 그 문 구조에서, 그런 통어 자격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서술어절의 어간으로 분포한 어간 서술어의 통어 소성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화인이 표출한 그 문 구조에서, 서술어절에 분포한 서술 접미사들은, 각각, 그 어간인 서술어가 주어에 대한 서술 동사절의 어간으로서 주어가 수행하는 동작, 상태, 존재, 지정, 등을 서술하되, 발화인이 상대인을 누구라고 의식하거나 인식하는 순간에, **기저문 구조에서 표출문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 transformation process**에서, 상대인이 그 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 양식을 선정하여서 그 어간 동사에 첨가하고, 그 서술 접미사들은 그 어간 동사와 함께 서술어절을 이루어서, 주어의 동작, 상태, 존재, 등을, 각각 서술한다.

이상의 설명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한국어의 문 구조에서, 명사절에 분포하는 **자격 접미사들과 서술 동사절에 분포하는 서술 접미사들이** 그 문 구조에서 수행하는 통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고 함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국어의 문 구조에서, 그런 자격 접미사들과 그런 서술 접미사들이 수행하는 통어의 기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어법 연구는 물론, 그 구성소들의 용법에 마음을 쏟았다. 그것은 곧, 한국어의 표현 구조에서, 그런 접미사들이 그 문 구조에 분포하면, 그들이 지닌 통어 소성을 드러냄과 함께, 자기들이 지닌 의미 표출 기능을 발휘하여서, 자기들이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어의 문 구조에 들어선 표현 양식 접미사들은,** 그 문 구조에서 어디에 어떻게 분포하여서, 어떤 통어적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의미를 표출하는가, 함을 아래에서 다져 본다.

우리는 이미 ‘6가’에 올려 있는 동사절 구성 공식에서, 그런 표현 양식을 드러내는 접미사가 있음을 보았다. 그런 접미사들이 문 구조에 분포하는 실

례를 들고, 그런 접미사열이 수행하는 통어 기능과 그들이 드러내는 표출 의미를 살펴 본다.

8) A. 예문 구조	B. 예문 구조에 들어선 서술 종결 접미사
a. 구역장이 경주로 이사갔다	{-다}
b. 구역장이 경주로 이사갔어	{-어}
c. 구역장이 경주로 이사갔네	{-네}
c1. 구역장이 경주로 이사갔소	{-오} / {-소} < {-스오}
e2. 구역장이 경주로 이사갔어요	{-아요} < {-아} + {-요}
d1. 구역장님이 경주로 이사가셨습니다	{-ㅂ니다}
d2. 구역장님께서 경주로 이사가셨습니다	{-습니다} < {-스ㅂ니다}
기저문: 구역장이 경주로 이사갔다.	{-다}

8)에 보인 ‘a에서 d2까지’의 일곱 가지 예문 구조들이 표출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구역장이 경주로 이사갔다-기저문 구조로서, 하나다. 그것은, 발화인이 어떤 상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을 담은 단순문 구조로 이룬 문 구조다. 그 기저문 구조 base sentence structure는, 발화인의 사고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가능한 문 구조다.

그런데, 그 발화인이 자기의 그런 말을 들을 상대인을 만나는 순간에 발화인은 그 상대인의 인격품격, 나이, 사회적 지위, 교회 경력, 등을 생각하여서, 그 말을 기저문 구조대로 하지 않고서, 자기가 표출할 말의 표현 양식을 생각한다. 그리고 또, 자기의 대화말을 듣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 순간에, 발화인은, 자기가 말할 말에다가, 자기가 말로 표시하여야 할 예법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서 이룬 표출문 구조는, 위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일곱 가지 가능한 표현 양식으로 표출문 구조로 말을 할 수 있는데 발화인은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서 말로 표출한다

곧, 우리는, 우리가 마음 속으로 생각한 말인 [기저문 구조]를 상대인을 만나는 순간에, 상대인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전환하여서 [표출문 구조]로 표출한다. 그런 사고 과정에서 비롯한 기저문 구조를 표출문 구조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모두를 전환 과정 transformation process이라고 한다.

한국인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일지라도, 그런 기저문 구조를 표출문 구조로 전환하는 훈련을 받아 온다. 우리는 그런 훈련 과정을 아무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거쳐 오고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는 문 구조에는, 위에서 예로 보인 일곱 가지 표현 방식이

분포되어 있다.

곧, 기저문 구조를 표출문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말의 예절을 담은 표현 양식 접미사열**을 표출문 구조에 얹는다. 그런 전환 과정을 거치는 것은, 거기에는, 발화인과 상대인 사이에 내재하는 상대적 상관 관계성상관성이 구성소들의 통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를 수 있는 문 구조들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거기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표현 양식**이 있음을 본다. 필자는, 그런 표현 양식을 한국인이 즐겨서 쓰는 **문체 구조**라고 본다. 곧, 다른 나라 말로 이론 문 구조에는, 우리가 표출문 구조에서 나타내는 그런 **문체 구성소**와 같은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면, 한국인이 표출하는 문 구조에서, **말의 표현 양식** speech style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분포하는가. 그것은 저 위에서 보인 동사절 구성 공식에서, 서술어절에 분포하는 양상 접미사(열) 다음에, 그런 양식 접미사들이 첨가하여 있음을 본다. 만일, 발화인이 그 서술 동사절에, 양상 접미사를 끌어서 쓰지 않을 적에는, 양식 접미사(열)을 곧 바로 그 어간 동사에 첨가한다. 그런 양식 접미사열을 아래에서 일람하여 본다. 그런 접미사열은, 일정한 화법 유형 **화법 유형** speech pattern으로 다를 수도 있다.

9) 표현 양식을 드러내는 서술 접미사열의 구성 방식

서법	정식화변의		중간화변		명교화변의	
	정식화법	친교화법	중간화법	명교화법	친교화법	공손화법
평서법	-니다	-오/-아요	-네	-다	-아	-나이다
문의법	-니까	-오/-아요	-나	-니	-아	-나йка
권유법	-시다	-오/-아요	-세	-자	-아	-사이다
명령법	-시오	-오/-아요	-게	-라	-아	-소서
(동분)	[국존칭]	[보통존칭]	[보통어칭]	[국어칭]	[만일]	< >

위의 일람표에 들어 있는 표현 양식 접미사(열)은 동사절 구성 공식, 곧, **스→ [어간 드] [서술 접미사열 [양상 접미사열 대상 대상 시상] [양식 접미사열] 결합상 시상 서법]**에서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에 분포하는 것들로서, 그들은, 각각, 일정한 서법 mood 아래에 **표현 양식 접미사(열)**로 들어선 것들이다.

일람표에 보면, 서술 접미사에 드는 양식 접미사들은 문 구조의 표현 형식으로 서법 **화법**에는, **평서법** **화법**, **문의법** **화법**, **권유법** **화법**, **명령법** **화법**의 네 가지가 있음을 본다. 그런 서법으로 문 구조에 들어서는 양식 접미사(열)들에

도 하위 분류로 다섯 가지의 표현 양식이 있다 그런 양식 접미사(열)이 화법을 결정하여 주는 요소로 있다. 그런 화법에는, 1) 정식 화법(正式 體法), 2) 정식 화법의 친교 화법(親交 體法), 3) 중간 화법, 4) 평교 화법(平交 體法), 5) 평교 화법의 친교 화법이 있다. 이들이 문 구조에 분포하면 그들은, 문 구조의 표현 양식을 다양화한다. 그 다양화한 표현 양식이, 곧, 문체 구성소들 style constituents/style suffix string이다.

위의 일람표를 보면, 나는 표현 양식을 대화인 사이에서 이루어 가는 말의 화법 방식으로 정식 화법, 정식 화법의 친교 화법, 등등이 있음을 보였다.

정식 화법은 대화인들이 나누는 대화말에, <예의를 정식으로 갖춘 말뉘를 서술 양식 접미사로 드러낼 적에 쓰는 화법을 말하고,

정식 화법의 친교 화법은 말에 예절을 갖추기는 갖추되, 대화인의 사이가 정식 화법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사이보다 조금 더 가까울 적에 쓰는 말법화법이고,

중간 화법은 정식으로 예의 갖추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하여서, 평교간에서 쓰는 화법으로도 표현하지 않을 적에 쓰는 화법을 말하고,

평교 화법은 대화인 사이가 평등한 사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말의 법을 말하고, 곧, 말의 예절을 갖추 필요가 없을 적에 쓰는 말법이고,

평교 화법의 친교 화법은, 대화인 사이가 평교 화법을 쓰는 사람의 사이보다 더 가까울 적에 쓰는 말의 법을 이른다

공손 화법은, 예전에는, 군신 사이에서, 신하가 임금님, 또는 그와 대등한 대우를 하여 드리는 분에게, 공손한 말투로 말하는 화법을 이르는 말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어로는 거의 쓰지 않지만, 제례를 행할 적에, 조상에게 드리는 현사로 쓴다. 다만,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신앙하는 신에게 기도를 들릴 적에 쓰는 화법을 이른다.

문 구조의 표현 양식을 논하는 분 중에는, 한국어에도, 구어체와 문어체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구어체(口語體)라는 것은, 대체로, 평교 화법으로 이룬 문체를 이르는 말이고, 문어체(文語體)라는 것은 정식 화법으로 글을 쓰는 사람의 글투를 이르는 말로 알고서, 그런 말을 쓰는 듯하다.

그런데, 그런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하는 것일까. 만일, 평교 화법을 문어체(文語體)라고 하고, 정식 화법을 구어체(口語體)라고 하면, 그 나머지 화법은 무엇에 해당하는 화법으로 다룰 수 있을까. 그런 용어는, 일본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한국어의 표현 구조에는, 그런 이름을 붙일 만한 문체

가 없다.

확실히, 일본어에는, 문자로 적어서 읽고 쓰는 글, 곧, 문장어[문어]에 문어[문어체]라는 것이 있고, 그런 언어로 쓴 글의 문체를 문어체[문어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 위에 보인 화법으로 쓰는 말의 표현은 다 입말-구어체로도 쓰고, 글말-문어체로도 쓴다. 그것이 한국어 표현 구조의 실상이고, 어법적 특징이다.

이웃나라 일본 사람들의 표현 구조에는, [문어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현대 일본어와는 어법적으로 아주 다른 말투에 속한다. 그런 말투/글투는 지금에 와서는, 일본 《시대극》에서나 보고 들을 수 있을 정도다. 따라서, 저들에게는 문어체 문법이 따로 있고, 구어체 어법이 따로 있다. 그들은 문어체와 구어체를 섞어서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인인 우리는 한국어의 문 구조에 들어선 다섯 가지의 표현 양식을 모두 입말로도 쓰고, 글말로도 쓸 수 있다.

1.3.3.1 구조도 위에서 보는 문체 구성소의 분포 방식

- 주로, 상대적 상관 관계성 아래에서

이 항목에서는, 구조도 위에서, 문 구조를 이루는 구성소 사이에 내재하는 상대적 상관 관계성[相對的 相關 關係性] co-relative relations of the relativity을 살펴본다.

앞 항목에서, 6)에 보인 구조도에서, 서술 동사절을 구성하는 방식을 보면, 그 어간 서술 동사에 첨가하는 서술 접미사열에, 두 가지 중요한 구성소(열)이 있음을 본다. 그 하나는 어간 동사에 첨가하는 양상 접미사(열)이고, 다른 하나는, 거기에 연이어서 첨가하는 표현 양식 접미사(열)이다. 그 두 접미사열 중에서, 문 구조의 표현 양식을 결정하여 주는 것은 양식 접미사열 <(4)-(5)-(6)-7>이다. 괄호를 친 접미사들은, 발화인의 의사를 따라서, 그 어떤 접미사든지 생략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곧, 그 동사절 구성 방식에서, 그런 접미사열이 문체-표현 양식을 구성하여 주는 접미사열이다.

그런 동사절의 구성 방식을 구조도에서 보면, 동사절의 구성은, [어간 동사-양상 접미사-양식 접미사]가 서열적으로 배합하여서 이룸을 본다. 그 중에서, 그 양식 접미사(열)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것이 비록 언어 외적 조건으로 문절 구조에 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서술어]나, [어간 동사-양상 접미사]만으로는 주어의

13) 일본 언어사에서는, 헤이안조 시대[平安朝 時代]에, 문법의 기초로 한문체[漢文體]를 끌어들이어서 발전시킨 기록어를 말한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문장으로만 쓰는 문체 언어를 말한다.

동작, 상태, 존재, 등을 온전히 서술할 수 없으므로, 그 모자라는 서술 기능을 보완하려고 하여서, 양식 접미사열을 그 [어간]이나, 그 [어간-양상접미사열]에 붙여서, 서술어절을 이루고, 그 양식 접미사열로 하여금, 주어에 대한 서술어절로서의 서술 기능을 수행하게 함을 본다

그런데, 그 서술어절에서, 그 문 구조의 표현 양식을 결정하여 주는 통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양식 접미사열이므로, 나는 그 양식 접미사열을 그 문 구조에서 **문체를 구성하여 주는 구성소**로 본다.

이를 나의 상관성 이론으로 설명하면 그 문 구조에서, 그런 양식 접미사열이 그런 자리에 분포하게 된 것은, 주어에 대하여서, [서술어]나 [서술 동사-양상 접미사]가 수행하는 서술 기능만 가지고서는, 주어가 수행하는 동작, 상태, 존재, 등을 온전히 서술할 수 없으므로, 그 주어가 그 문 구조에서 수행하는 그런 동작, 상태, 존재, 등을 서술할 수 있는 **양식 접미사들**을 끌어들이어서, 그 서술어의 서술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그런 보완 작용은, 주어의 통솔 기능이 서술어절에 분포하는 양식 접미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곧, 주어가 서술 양식 접미사를 끌어 통솔 아래에 두는 것은, 주의 동작, 상태, 등을 서술하는 서술 어간이 수행하는 서술 기능만 가지고서는 모자라므로, 그 모자라는 서술 기능을 보완하여 받으려고 하여서, 주어가 서술 양식 접미사를 끌어서 자기의 **통솔** government 아래 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 구조에서, 어떤 구성소가 다른 구성소를 자기의 통솔 아래에 둬를 나타내어 보이려고 하여서, 나는 그 구조도 위에서는, **상관성선**을 사용하였다. 그 상관성이 비롯하는 곳은 언제나 문절의 어간들이고, 그런 상관성선이 가서 닿는 데가 자격 접미사와 서술 접미사들이다

그러므로, 문 구조에서, 그런 통어 기능을 시발하는 데는, 언제나 **주어와 서술어**다.

그런데, 그 주어가, 자기의 통솔 기능으로 양식 접미사들과 상관성을 지니지 못하면, 그 문 구조의 표현 양식을 결정지을 수 없다, 곧, 그 주어는 서술어절에 분포하는 양식 접미사를 통솔하여서, 서술어절에 들어서게 하지 못하면, 그 서술어로 하여금, 자기가 수행하는 동작, 상태, 존재, 등을 온전히 서술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하므로, 그 주어는 서술어절에 분포하는 그런 양식 접미사(열)을 통솔하여서, 어간 동사에 가서 첨가하게 하고, 그 어간 동사와 함께 동사절을 이루어서, 주어의 기능을 온전히 서술하게 한다 <이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문 구조에서, 그런 접미사들이 서술 어절에 분포하게 하지 않으면, 주어인 자기도 그 문 구조에서 주어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말과 같다.>

곧, 하나의 문 구조에서, 남을 통솔하는 구성소는, 그 통솔을 받는 구성소를 통솔하기는 하지마는, 그 통솔을 받아 주는 구성소가 없으면, 자기의 통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남을 통솔하는 구성소는 자기의 통솔을 받는 구성소에 의존하게 된다. 곧, 그 통솔자와 피통솔자는 그 문 구조에서 서로 상보적 분포 관계(相補的 分佈 關係)를 지닌다.

그러면, 한국어의 문 구조에서, 문체로 나타나는 구성소들은 어디에 분포하여서, 어떤 형태를 지니는가, 함을 분명히 살펴 보려고 하여서, 구조도를 이용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문 구조에 분포하는 문절의 구성 방식을 잘 살펴 두는 것이 좋겠다.

문 구조는, 주어절인 명사절과 서술어절인 동사절의 배열로 구성하며, 주어에 대하여서, 서술어절인 동사절이 표출하는 의미만 가지고서는 주어의 동작 상태, 존재, 등을 온전히 서술 할 수 없으므로, 보완 문절을 끌어들이어서 씬을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아래의 구조도들에서는, 그런 문절들의 분포 방식과 문절 구성 방식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조도에서, 동사절에 분포한 양식 접미사열 위에다가, 사서체(書體) 숫자 1,2,3……로 표시한 것들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접미사열의 배합 서열을 보인 것인 동시에, 주어가 양식 접미사열을 통솔하는 순위를 말하는 것이다.

구조도를 보면, 주어에서 시발한 상관성선(相幹性線)이 동사절에 첨가한 양식 접미사 1,2,3들에 가서 멈추었음을 본다. 그것은, 주어의 동작, 상태, 존재, 등을 서술하는 서술어절의 어간 동사가 자기가 수행하는 서술 기능만 가지고서는 주어의 동작, 상태, 등을 온전히 서술할 수 없으므로, 그 어간 동사의 서술 기능을 보완하여 줄 서술 접미사들을 주어의 통솔 아래에서 끌어들이어서, 그와 함께 서술어절을 이뤄서, 주어의 동작, 상태, 등을 서술함을 보인 것이다.

그것은, 그 주어가 서술어절에 분포한 어간 동사와 그 어간에 첨가한 양식 접미사들과 상대적 상관 관계성(對越性)을 줄여서, 상관성 correlative relations of the relativity을 지녔음을 보인 선이다. 그런 상관성을 지닌 구성소들이니까, 그런 구성소들은 서로 상대 구성소와 상관성을 지닐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조도에서, 예문 구조 아래 쪽에다가 그런 상관성선은, 서술어절에 분포한 어간 동사에서 시발하여서, 피사어절, 부사어절, 주어절에 분포한 자격 접미사에 가서 멈추었음을 본다. 그런 상관성선에다가는 각각 정수 숫자(數字)로 1,2, 3……등을 매겨 놓았다. (또한 주어와 한정어와 사이에

서 생성하는 상관성도 동일한 상관성선으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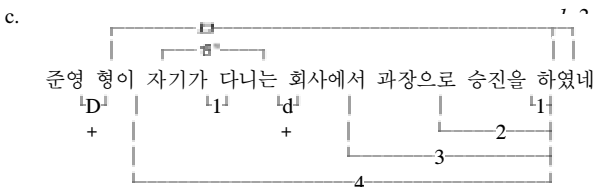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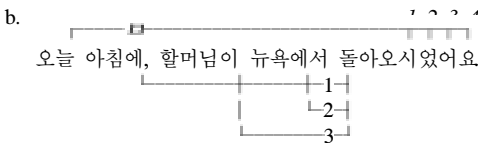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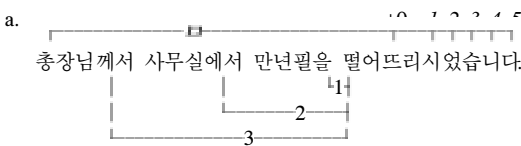
그것은 곧, 서술어가 상대어인 피사어, 부사어, 주어에 첨가한 자격 접미사를 통솔하여 줌으로써, 서술어와 피사어, 그 서술어와 부사어, 그 서술어와 주어와는 서로 상관성을 지니는데, 그 상관성을 상관성선 1,2,3……으로 표시하여 보인다. 그 숫자는 정수 숫자(正數 數字)로 적는다. 그런 상관성이, 각각, 그 서술어와 선행 문절의 어간인 피사어, 부사어, 주어와 사이에 내재하여 있음으로 하여서, 그 어간들인 피사어, 부사어, 주어, 들은 각각 서술어에 대한 논증항(論證項/論項) argument으로 존재할 수 있다.

구조도를 보면, 주어와 서술어에서 시발한 상관성선들이 가서 멈춘 곳은 <주어의 통솔 아래에 있는 서술 접미사들>과 <서술어의 통솔 아래에 있는 자격 접미사들>임을 볼 수 있다.

10) 가. 예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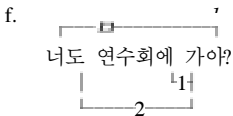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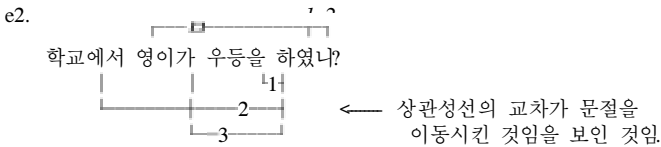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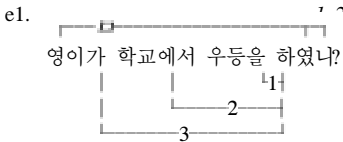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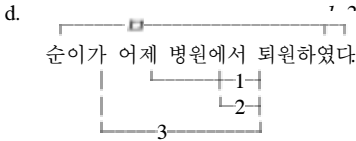
- a. 총장님께서 사무실에서 만년필을 떨어뜨리셨습니다.
- b. 오늘 아침에, 할머니님이 뉴욕에서 돌아오셨어요
- c. 준영 형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였네
- d. 순이가 어제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 e. 영이가 학교에서 우등을 하였나?
- f. 너도 연수회에 가야?

나. 예문 구조:



+ 구조도에서 D는 한정절 ㉠을, d는 한정구절 ㉡을 끝어서 한정어와 한정 구절로 삼았음을 본다

D는 문 구조에 분포하는 명사절의 어간이 한정절을 끝어서 자기가 표출하는 의미의 표출 범위를 한정하여 받은 것이고 d는 그 문구조에 분포한 서술어절의 어간이 한정 구절 ㉡을 끝어서 자기가 표출하는 의미의 표출 범위를 한정하여 받고 있음을 본다



위에 올린 구조도를 보면, 예문 구조 위아래로 상관성선을 선으로 그어 놓은 것을 보는데, 그런 상관성선은 본시 표출문 구조에 노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층 구조에 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표출문 구조에다가 상관성선을 노출시켜서 그려 놓은 것은 구성소 사이에 내재하는 그런 상관 관계성이 있음을 볼 수 있게 하려고 하여서 필자의 이론을 따라서 구조도를 이룬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그런 상관성은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상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가령, 여기에, 두 가정의 한 자리에 모였다고 가정한다. 각 가정에서, 어른 내외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 둘씩이 다 한 자리에 모였다 어른과

아이들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상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그 두 가족원들은 서로 틈이 있을 적마다 만나서, 회식을 하거나, 운동을 함께 하고, 또 음악회에도 같이 가고, 때때로 여행도 함께 한다. 그리하니까, 그 가족원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 좋은 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나 인식한다.

그런데, 그들이 회식하는 어느 날, 거기에, 바깥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방문객으로 끼어 들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가족원들 중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한 사람만을 안다. 그러니까, 그는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 누가 누구의 아내이고,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 모른다 모르는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 사이에 내재하는 상관 관계성이다. 그것을 줄여서, 나는 상관성이라고 한다.

그런 상관성은, 그 자리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두 가족원들은 그런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안다. 그것은 서로 가까운 사이임을 마음 속으로 느끼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음에서다. 그런 느낌이라든가 인식은 사람의 마음에 내재하는 상관성을 이해하는 마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그런 상관성의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함을 찾아 보면, 그것은 언제나 아빠인 남편과 엄마인 남편의 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상관성은 그들이 결혼하는 순간에 생겨난다. 그 부부가 결혼하는 날, 남편 쪽에서 보면, 그런 상관성이 남편 쪽으로부터 부인 쪽을 행하여서 생기고, 부인 쪽에서 보면, 그런 상관성의 시발점은 부인에게서 남편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남편에게서 시발한 상관성과, 부인에게서 시발한 상관성도 가족원 사이에서 생성한다. 아빠에서 생겨난 상관성은 아빠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엄마에게서 자녀를 향하여 생겨난 상관성은 엄마의 사랑으로 나타난다.

나는 그런 상관성을 사람 사이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구조에서, 찾는다. 곧, 적어 놓은 글에서, 그 문 구조를 이룬 구성소 사이에서, 그와 같은 상관성이 있음을 본 것이다. 그런 상관성을 따라서 나타나는 통어 이론을 알면,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 사이에 내재하는 상관성을 볼 수 있다. 그런 상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을 적에야, 우리는 그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원 사이에 내재하여 있는 상관성을 볼 수 있게 된다.

문 구조에 내재하는 상관성을 찾아 보려고 하면 나는 언제나, 문 구조 구성 구조도를 이용한다. 그 구조도 위에 올려 놓은 구성소들 중에서, 어떤 구성소가 다른 어떤 구성소와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가, 함을 먼저 살펴 본다.

곧, 구성소들 사이에 내재하는 상관성을 보면, 그 상관성을 바탕으로 하고서, 구성소들이 수행하는 통어 기능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럴 적에라야, 그들이 표출하는 의미의 근거가 무엇인가 함을 알 수 있다. 곧, 그럴 적에라야,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들이 표출하는 의미를 올바르게 알 수 있다. 하나의 문 구조가 표출하는 의미는, 그 문 구조를 이룬 구성소들이 일정한 규칙 아래에 있을 적임을 알기 때문이다.

문 구조에서, 어떤 구성소가 다른 구성소를 끌어당기는 어떤 힘을 쓰고 또 끌어당김을 받는 힘이 어떤 것이냐, 함을 분명히 볼 수 있을 적에, 우리는 그 문 구조에 분포한 구성소들이 수행하는 통어 기능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 통솔 기능을 분명히 알 수 있을 적에라야, 그런 구성소가 그 문 구조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그 구성소가 표출하는 의미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함을 알 수 있다.

의미의 표출은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들이 다른 구성소와 더불어 일정한 통어 규칙 아래에 있을 적에라야, 그 구성소의 분포가 적합함²⁴⁾을 알 수 있다. 그 구성소가 사람이라면, 그 때에라야 그 존재가 빛난다.

그와 같이, 곧, 한 사회에서, 남을 통솔하는 사람은 그 통솔을 받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남을 통솔할 수도 없다. 그 말을 역으로 풀면, 하나의 사회에서, [통솔하는 자는 통솔을 받는 자에게 의존한다.]는 통칙²⁵⁾이 생성한다. 그런 통칙 아래에서, 사람은 오늘도 자기들의 삶을 이루어 가며 평화롭게 살아감을 본다.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들이 각각 다른 구성소와 가지는 통솔력이 일정한 규칙 아래에 있어야만, 그들은 그 문 구조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다. 그런 공존 co-existence을 공기²⁶⁾ cooccurrence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 구성소들이 그 문 구조에 일정한 위치에 분포할 적에는 하나의 구성소는 다른 구성소에 대하여서 상보적 상관성²⁷⁾의 相關性 complementary relativity을 지녀야 한다. 구성소들이 각각 그 문 구조에서 상보성²⁸⁾을 지니고 있을 적에라야, 다른 구성소와 공존할 수 있다. 공존성은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기본이다.

그런 상관성이 문 구조를 구성하는 구성소 사이에 엄존하여 있을 적에라야, 그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들은 일정한 그리고 엄격한 통어 규칙 아래에 있을 수 있다.

그런 구성소들이 하나의 문 구조에서 그런 통어 규칙 아래에 있을 적에라야, 그 구성소들은 그 문 구조에서 적합한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과 함께 적합한 의미를 표출할 수 있다.

나는 문 구조에 분포한 구성소들이 그런 통어 규칙 아래에 있는가 함을 다져 볼 적마다,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조건과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함을 살펴 본다. 구성소들이 그런 통어 규칙 아래에서, 일정한 분포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적에라야, 그 문 구조는 적합한 문 구조適合文構造 well-formed sentence structure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문 구조에만, 구성 사이에서 안정성이 보인다.

나는 나의 통어 이론을 세우려고 하여서, 그런 상관성을 살펴 본 것이다. 그런 상관성을 바탕으로 하는 통어 규칙을 찾기에 정성을 다 하는 것이다.

언어학자들은, 그런 가정 아래에서, 문 구조들을 이루는 구성소들이 지니는 상관성을 살펴 보기 시작한다. 그리하여서, 찾아 놓은 것이 <문 구조를 이루는 구성소 사이에 내재하는 상관상이다. 그 상관성을 구조화하려고 하여서, 문 구조 안에서, 그 구성소들이 다른 구성소와 가지는 상관성을 면밀히 찾아 본 것이다. 곧, 하나의 구성소는 그 문 구조 안에서 서로 상대하는 어떤 구성소와 어떤 상관성을 지녀야 하는가 그런 상관성을 지닌 구성소가 문 구조의 어디에 분포하여서 어떤 통솔 규칙 아래에서, 어떤 통어 기능을 수행하며, 어떤 의미를 표출하는가 함을 찾은 것이다

문 구조에서 구성소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관성을 바탕으로 하여서 규칙을 찾아 세우면, 거기에 규칙명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하면, 그 규칙의 집합체에 통어 규칙이 존재한다.

그런 상관성을 분명히 하려고 하여서, 구조도 위에다가, 예문 구조를 올려 놓고서, 문 구조에 분포하는 구성소 사이에 내재하는 상대적 상관 관계성相對的 關係을 줄여서, 상관 관계성/상관성을 상관성선關係線으로 연결하여 가면서, 어떤 구성소가 다른 어떤 구성소와 어떤 상관성을 지니는가 함을 살펴 본다.

구조도를 보면, ‘10나a’에 분포한 서술 동사 {떨-}에 연결 접미사 {-어}가 첨가하고, 거기에 {들이-}가 첨가하여서 전성 어간 동사 {떨어뜨리-}를 이루었으며, 그 어간 동사에 서술 접미사 다섯이 서열을 지키면서 배합하여서, 서술 접미사열 [-시 대상-존대있₁시₂향-관동₃습₄관₅니 상상-인형다₆서답-동질]를 이루고, 그 서술 접미사열이 어간 동사 {떨어뜨리-}에 첨가하여서, 서술 동사절을 이루면, 그 동사절은 주어에 대한 서술 동사절 [떨어뜨리시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술 접미사열 중에서, 대상 접미사특정 對稱인 존대 접미사 {-시}가 거기에 들어선 것은, 그 문 구조의 주어인 [총장님]에 첨가한 통어 자격 접미사가 이미 존대 접미사 {-께서}로 대체하여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문 구조에 들어선 주어 존대 자격 접미사와 서술어절에 분포한

대상 접미사(特別 接尾辭)가 호응(呼應) agreement 관계를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곧, 그 문 구조에 분포한 접미사들의 일치 관계는, 언어 외적 조건(言語 外的 條件)으로, 문 구조에 들어서는 것이지만, 그 접미사들은 [[주어절...께서][서술어절 ...시...]]의 존대 호응-또는 일치 concord/ agreement으로, 발화인이 상대인에게 말로 다하는 예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기도 말에다가 그런 <말의 일치 관계>를 표출하려고 할 적에는, 그 문 구조의 서술어절에 분포하는 서술어절에다가 반드시 표현 양식으로 [-습니다]라는 정식 예법 접미사를 사용하여야 하거나, 공손 화법 접미사 [-나이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0나a’에 분포한 양식 접미사열은 [강조-존대-완료-겸양-진행-단정 종결] 접미사들의 배합으로 이룬 것이고, ‘10나b’의 표현 양식 접미사열은 [존대-완료-종결-연화사]의 배합으로 이룬 것이고, ‘10나c’의 표현 양식 접미사열은 [완료-중간 단정]의 배합으로 이룬 것이고, ‘10나d’의 표현 양식 접미사열은 [완료-단정 종결]의 배합으로 이루었음을 본다.

1.3.4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문체와 문 구조의 구성 방식

- 성경 번역문 구조를 중심으로 하여서

성경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적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떤 문체로 번역하여야 하느냐, 함이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다. 그것은, 앞 항목들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전어나 인구어의 문 구조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문체가, 현대 한국어의 문 구조에, 양식 접미사(열)의 분포 방식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다섯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이다.

원문, 곧,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적은 문 구조를 그 다섯 가지 표현 양식 중에서, 어떤 유형으로 번역하여 놓아야, 번역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드릴 수 있을까, 함을 놓고서는 깊이 있게 연구하여 볼 문제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의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헬라어로 적은 원전문 구조에서는, 수동문 구조, 또는, 피동문 구조로 이룬 것이 많은데, 그런 문 구조를 그대로 한국어의 번역문 구조에다가도 수동문 구조나, 피동문 구조로 번역하여 놓아야 하느냐 함이다. 그런 문 구조들을 한국어로 번역할 적에, 수동문 구조를 그대로 수동문 구조로 번역하여 놓으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아는 바는, 그 번역하여 놓은 그 문 구조가 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우냐, 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수동문 구조를 그대

로 수동문 구조로 번역하여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그런 문 구조를 읽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관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대하거나, 방관자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실을 보게 될까,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런 문제를 놓고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성경을 읽어 가느라면, 예수님께서서는 실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심을 본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시하여서, 죄인, 마귀, 어부, 사도, 농사짓는 사람,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 세리, 사두개인, 바리새인, 법관, 통치자, 유대인, 이방인, 등등. 그런 사람을 만나실 적마다 하신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다섯 가지 표현 양식 유형 중에서 어떤 한 가지 유형으로 번역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그 어느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곧, 예수님께서서 한국 땅에 오셔서,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 곧,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시면, 어떤 표현 양식으로 대화를 하시고, 어떤 문 구조체, 곧, 문체, 또는 어체로 말씀을 하시면서 병인을 고쳐 주시고, 복음을 들려 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본다.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여 보면서, 성경 말씀 중에서, 몇 구절을 예로 들어서, 그런 번역문 구조에서, 번역인들이 생각하여 보아야 할 점들이 무엇이었는가, 함을 함께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곧, 우리가 읽는 성경 번역문 중에서, 개역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 성경전서 및 표준 새번역 개정판 성경전서 중에서 몇 구절을 예로 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문체로 번역한 성경을 읽고 있는가, 함을 살펴 본다.

1) 마태 3:13-15을 보면, 다음과 같은 번역문들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례 요한을 만나셔서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다. **중서체로 적은 부분이 실제로 나누신 대화문 구조다.** 번역인들이 그런 대화 문 구조를 어떤 표현 양식-곧, 문체의 어떤 유형으로 번역하여 놓았는가, 함을 먼저 살펴 본다. 그리고서, 나의 번역 수정문을 붙인다. 나의 수정문을 보면, 나의 견해를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설명은 줄인다.

A) 『개역 성경전서』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B) 『개역 개정판 성경전서』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 이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C) 『표준새번역 성경전서』

그 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D) 필자가 수정하여 본 것

그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여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런데, 요한은 “내가 선생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이 나에게로 오셨습니까?”라고 하면서 사양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고 하셨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을 하였다.

2) 마 5:1-13

A) 『개역 성경』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B) 『개역 개정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C) 『표준 새번역 성경전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 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 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

D) [필자가 수정하여 본 구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에게로 나아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이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이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이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이들을 자비롭게 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이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이들을 자기 자녀라고 불러 주실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 나라는 그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 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 하십시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3) 마 6:9-15

A) 개역 성경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천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나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B) 개역 개정판 성경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천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 6:9-14

C) 표준 새번역 성경전서

“.....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으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천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D) 표준 새번역 개정판 성경전서

“.....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천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E) [필자의 수정본

“……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천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남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위에 인용한 번역문 구조들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개역, 개역 개정판 성경 전서들은 확실히 시대적으로 오래 된 번역문들이고, 표준새번역, 표준새번역 개정판 성경전서들은 십여 년 전에 번역하고, 두어 해 전에 개정한 번역문임을 뚜렷이 볼 수 있다. 거기에다가, 필자의 수정 구절을 올려 놓은 것은, 앞으로 오는 세대를 위하여서는, 번역 이론을 발전시킴과 함께, 번역문 구조를 좀 더 발전시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붙여 둔 것이다

특히, 궁서체로 번역한 것은, 그 번역문 구조의 표현 양식을 현대어화하여 본 것임을 부언한다.

앞에서, 누누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구조는 현대인의 생활 언어에서 벗어나거나, 권위주의적인 표현 양식으로 번역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원고의 분량 때문에 “문채”_{figures}에 관한 부분은 다음 호로 미룹니다.)

<Abstract>

Issues regarding Styles and Figures in the
Korean Bible Translation

Chang-Hai Park

This paper deals with the issues in Korean Bible translation by reviewing the differences in thought methods and structures between Greek and Korean in terms of the structural differences of these two languages. Individuality or aesthetic style as the way of talking or of writing in Korean can be accepted as the style or mode of expression within the sentence structure. The structural elements of style exist as the rule in structuring the sentence. These elements, the so-called expression modes, have two kinds of structuring methods, as follows: (1) the elements that can be analyzed as morphemes, and (2) the elements that can be analyzed as arrangements of suprasegmental morphemes.

As the elements of expression modes are exposed in the sentence structure itself, the expression modes have been treated as constituents in this paper. Taking the passages of Korean New Testaments that have been translated since 1900 as the sampl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xpression modes with the correlative relations of relativity theory I have established. As structures of translations have been transformed with historical progress, structures of styles in the Korean language have also changed through the process of historical development.

The issues are particularly derived from the following question: What are the expression modes of conversation and structure styles, viz. the written style of Jesus when meets the Korean people? Accordingly, in this paper I have evaluated the styles of translation in various Korean Bible versions, and have suggested my personal revisions of these translations. The issue of figures will be discussed in a later paper.

국어사전의 성격과 활용 문제

김동언*

1. 서론

사전이란 어떤 분야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것을 말하니, 국어사전이란 국어에서 사용되는 말들을 가려서 그에 대해 자세히 풀이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이 국어사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국어생활에서 필요할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사전을 잘 활용할 줄 모른다. 아마도 가정에 쓸 만한 국어사전을 비치하여 필요할 때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영어로 된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영어사전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어사전을 찾는 일은 웬지 손에 익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국어 단어에 대해서 모두 잘 알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국어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이다.

반면에, 국어사전을 찾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의 경우엔 지나치게 사전의 정의에 사로잡혀 국어를 스스로 편협하게 해석하려는 경향도 있다. 즉, 어떤 단어가 사전에 뜻풀이가 되어 있을 때 그곳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의미로는 쓰일 수 없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언어가 끊임없이 변화 성장하며 사멸한다는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결과로 이해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일반인 특히 성서 번역에 관심을 가지고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국어사전의 활용 문제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어사전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국어사전의 종류와 편찬의 역사를 개관한 다음 국어사전의 언어적 정보 특징을 사전 집필 원고 모습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이어서, 구체적인 실례를 통하여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 강남대학교, 국어학.

2. 국어사전의 종류와 편찬

2.1. 국어사전과 특수사전

국어사전은 국어 단어에 대하여 언어학적 정보를 풀이해 놓은 책이다 언어학적 정보란 특정한 단어에 대한 발음 어원, 문법범주, 뜻풀이와 예문, 관련어 등을 말하게 되는데, 국어사전에 정의된 이러한 정보는 흔히 표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국어생활에서 표준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을 이용하는 독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단어의 언어학적 정보를 찾아보면 그만이지만, 편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전 이용자가 보다 손쉽고 다양하게 사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어 단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사전을 편찬하게 된다.

사전 편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어떤 어휘들을 채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국어에는 약 50만이 넘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단어에서 어떤 것을 부분적으로 골라서 수록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를 수록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국어사전의 형태를 띠게 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수록되는 어휘의 종류에 따라 고어사전¹⁾, 유의어사전²⁾, 반의어사전³⁾, 비속어사전⁴⁾, 방언사전⁵⁾, 형용사사전⁶⁾, 동사사전⁷⁾ 등 특수사전의 형태를 띠게 된다 특수사전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과 용도를 가진 어원사전 외래어사전, 속담사전, 관용어사전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선정된 단어를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가 문제된다 배열하는 방

1)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 연세대출판부.

남광우(1999). 『고어사전』. 교학사.

박재현(2001). 『고어사전』. 이회

2) 김광해(2000). 『비슷한 말 반대말 사전』. 날말.

허동진 외(1987). 『조선말동의어사전』. 연변인민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90). 『조선 동의어 사전』

3) 전수태(1990). 『반의어사전』. 한신문화사.

김광해(1990). 『반대말 사전』. 국학자료원.

4) 장태진(1998). 『국어변말사전』. 한국문화사.

김동언(1999). 『국어비속어사전』. 프리미엄북스

5) 이기갑 외(1998).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최학근(1978). 『한국방언사전』. 현문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1995). 『한국방언자료집』.

6) 김병선 외(1992). 『형용사 사전』.

7) 홍재성 외(1977).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두산동아.

법에는 ‘천문, 지리, 인륜’ 등 의미에 따른 전통적 배열방법이 있는가 하면 수록된 표제어의 자모순에 따른 배열방법이 있다 전자는 분류사전⁸⁾이라 불리며, 오늘날에는 방언 사전 등에서 이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후자는 일반적인 국어사전들이 취하는 자모순 국어사전을 뜻하지만 단어의 끝에서부터 역으로 자모순을 적용하는 역순사전⁹⁾의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이라 부르는 것은 국어의 모든 단어를 정순(正順)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여 언어학적 풀이를 가한 것이다 국어사전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특수한 목적으로 편찬된 특수사전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국어사전이 단어에 대한 언어학적 요소를 온전하게 풀이하여야 하는데 비하여 특수사전은 국어사전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고 필요한 항목만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제, 항을 달리하여 일반적인 국어사전의 편찬 역사를 간략히 더듬어 보자.

2.2. 국어사전 편찬의 흐름

엄밀한 의미에서 국어사전 편찬은 20세기 전반에 들어서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한자에 대한 대역 학습서들이 간행되었고, 실학 시대에 편찬된 어휘집들도 대부분은 한자어의 이해를 위한 주석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개화기 들어 한자어가 아닌 국어의 어휘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들도 주로 서양선교사들이 포교의 목적으로 한 대역사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이전 시대의 어휘집과 비슷하다¹⁰⁾.

최초의 국어사전으로 평가되는 『말모이』는 1911년부터 조선광문회에서 편찬하기 시작하였으나 끝내 햇빛을 보지 못한 채로 그 일부만이 고본(稿本)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전은 고유어와 외래어에 전문어도 수록한 순수 국어사전의 모습을 띠고 있다¹¹⁾. 출판된 최초의 국어사전은 문세영의 『조선어사

8) 남영신(1987). 『우리말 분류사전』. 한강문화사.

남영신(1988). 『우리말 분류사전』(풀이말편). 한강문화사.

박용수(1988). 『우리말 갈래사전』. 서울대출판부.

9) 유재원(1985). 『우리말 역순사전』. 정음사.

10) 이병근(1986)은 실학시대까지를 사전 편찬의 준비기, 19세기 후반을 태동기라고 명명하고 있다. 태동기가 준비기와 다른 점으로 『국한회어』(1895) 같이 사전의 표제어를 현대의 국어사전과 같이 배열한 사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태동기에 외국인에 의해 편찬된 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한불증언』(1880), 『한영증언』(1880), 『노한사전』(1874), 『나한사전』(1891), 『영한사전』(1891), 『한영증언』(1897), 『법한증언』(1901).

11) 『말모이』 고본은 『한국문화』(서울대, 1986b) 7집에 실려 있으며, 또한 이병

전(1938)이라고 할 수 있다¹²⁾. 『조선어사전』(1938)은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1920)을 대본으로 하여 편찬한 것으로 언어사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후 이윤재·김병제가 편찬한 『표준조선말사전』(1947)이 출판되어 해방 직후 널리 사용된 바 있다.

이러한 초기 국어사전 편찬의 흐름이 하나로 종합 정리되는 것은 조선어학회(현재의 한글학회)가 간행한 『조선말큰사전』이다. 『조선말큰사전』은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직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편찬회가 조선어학회로 통합되면서 근 20년의 세월이 흘러 1947년 첫째 권이 출판될 수 있었다. 『조선말큰사전』은 경제사정으로 한꺼번에 출판되지 못하고 시차를 두고 발행되었는데, 6권 전부를 간행한 것은 1957년의 일이며, 이 때에 편찬자는 한글학회로, 사전의 이름은 『큰사전』으로 바뀌었다¹³⁾.

국어사전 편찬사에서 하나의 획을 그은 『조선말큰사전』 이래로 많은 국어사전이 출판되었다.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지만, 모두 사전편찬의 방식은 『조선말큰사전』을 모태로 하여 수정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발간된 중요한 국어사전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중요한 국어사전

국어대사전(이희승) ¹⁴⁾	1961	약23만 단어
새우리말 큰사전(신기철,신용철)	1974	약31만 단어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1990	약40만 단어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1991	약38만 단어
조선말대사전(북한 사회과학원)	1992	약33만 단어
연세한국어사전(연세대)	1998	약5만 단어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	약51만 단어

3. 국어사전의 언어적 정보

근(2000)에도 전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이병근(1977), 김민수(1983)를 참조할 것.

12)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어사전』(1920)이 출판된 최초의 국어사전이었으나, 이것은 총독부가 주관한 것으로 국어 표제어에 대하여 일문으로 주석을 하여 한일 대역어의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국어사전이라고 하기 어렵다.

13) 『조선말큰사전』의 편찬경과는 해당 사전의 앞부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사전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는 김윤경(1957), 유창돈(195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4) 증보판이 1982년에 간행되었는데, 약 42만 단어를 수록하고 있다.

표제어를 선정하고 그를 배열하는 거시적인 틀이 완성되고 나면 각 표제어에 대하여 언어학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언어학적 정보는 대부분 국어학의 연구성과를 반영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 편찬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다음에,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의 집필지침에 따라 완성된 ‘잡동사니’에 대한 원고의 모습을 통해 사전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을 보자¹⁵⁾.

(2) ‘잡동사니’에 대한 집필 예¹⁶⁾

#! I-009106

#1 잡동사니

#2 雜---

#3 %

#4 『명』 『1』 잡다한 여러 가지가 한데 뒤섞인 것 또는 그 물건. ㄴ= 트럭 주위에는 방
세간에서부터 부엌 살림 도구에 이르기까지 『잡동사니』 가재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다. <<NCKAB022,273>> / 이야기의 머리만 떼어 주면 여자는 장안의
『잡동사니를』 다 벨아 놓을 판이다. <<NIBAC000,276>> ㄴ\$

『2』 (비유적) 그렇듯 하게 반듯하지 못하고 자잘한 일 또는 사람. ㄴ= 야소교도 남이 왼
뺨을 치면은 오른 뺨도 내밀어라, 했는지 않소. 그러니 『잡동사니』 아니고서는 칼
들고 싸우기 어렵지요 <<NALAA060,134>> / 기타 『잡동사니』 직업이 아닌 대학
교수에 있어서는, 후자의 유형보다 전자의 유형을 취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EIIAC000,068>> ㄴ\$

#5 %

#6 %

(2)에서 ‘#!’은 단어가 적힌 카드 번호를, ‘#1’은 표제어를, ‘#2’는 원어를, ‘#3’은 활용정보를, ‘#4’는 문법범주, 전문어 영역 표시, 뜻풀이 및 용례를, ‘#5’는 관련어휘를, ‘#6’은 참고어휘를 보여주기 위한 항목이다. 해당 항목에 ‘%’로 표시된 것은 해당하는 정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3’에 ‘%’로 표시된 것은 ‘잡동사니’는 명사이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정보가 없음을 표시한 것이다. ‘#4’에서 『명』은 ‘잡동사니’가 명사임을 표시하고 있으며, 『1』 등

15)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지침 내용이나 정보들이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연구분석』(2002)에 자세히 나와 있다.

16) 『표준국어대사전』은 여러 전문가가 분담 집필했기 때문에, 이 원고에는 발음이나 어원설명에 대한 설명항목이 없다. 이들은 따로 집필되어 최종 순간에 합쳐져 편찬되었다. 최종적으로 사전에 실린 ‘잡동사니’에 대한 풀이는 다음과 같다.
잡동사니 (雜---) [-똥--] ㉠ ①.. ②....

의 숫자는 해당 표제어의 의미 가짓수를 의미한다 ‘√=’ 다음에는 용례를 보여주고 있다. ‘<< >>’ 속에는 용례의 출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용례가 끝날 때는 ‘√\$’로 표시해 주고 있다. 각 정보 제공 항목이 모두 중요한 것이지만, 사전 집필자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뜻풀이가 관련된 항목 ‘#4’라고 할 수 있다.

예 (2)에서 보인 ‘잡동사니’는 수백 개의 용례를 자료로 하여 두 가지의 뜻을 분석하여 풀이한 것이다. 이 분석 과정에서 기존 사전의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용하게 되고, 새로 수집된 용례에서 파악된 의미를 첨가하여 뜻풀이를 완성하게 된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의 양과 질에 따라 풀이된 뜻이 얼마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전 집필자가 여러 명인 대사전 편찬의 경우에는 집필자에게 통일된 편찬 지침과 함께 해당 단어들의 쓰임을 보여주는 용례가 함께 제공된다. 예전의 국어사전 집필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용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작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집필자의 개인 언어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뜻풀이나 쓰임이 국어의 총체적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컴퓨터의 도움으로 대규모 언어자료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국어의 총체적 모습을 체계적으로 사전에서 풀이할 수 있게 되었다.

4. 국어사전의 활용

4.1. 규범성과 기술성

국어사전은 편찬 목적에 따라 규범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국어사전이 바른 국어생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편찬된 교육적 규범적 목적을 띠고 있으며, 최근에 편찬된 『표준국어대사전(1999)』이 대표적인 예이다⁷⁾. 후자는 국어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편찬된 학술적 기술적 목적을 띠고 있으며, 최근 편찬된 『연세한국어사전』(1998)이 대표적

17) 이 사전을 편찬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표제어·뜻풀이·용례 등 모든 부분에서 어문규정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었다. 1986년에 개정된 외래어 표기법을 개정하여 1988년에 개정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일반 원칙만을 정하고 있는 현행 어문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의 국어생활의 표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표준국어대사전』, 머리말).

인 예가 될 것이다¹⁸).

국어사전의 경우는 얼마간 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기 마련이다¹⁹). 사전에는 해당 언어사회에서 사회화된 공통적인 언어정보의 성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언어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준화시킨 지식으로 편찬되기 때문이다(이병근, 2000, 9). 더욱이, 바른 국어생활에 대한 중요한 판단 자료인 한글맞춤법이나 표준발음법 그리고 표준어사정원칙 등의 어문규정이 국어사전 편찬시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표제어의 선정이나 그 표기, 표제어의 발음표시 등이 이들 규정에 따른다면 규범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²⁰).

사전의 규범적 성격이 극단적으로 노출된 것은 북한에서 1960년대 중반 이후 간행된 사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언어정책에 따라 편찬된 핵심사전의 하나인 『현대조선말사전』(제2판, 1981)과 사전편찬 이론서인 정순기·리기원(1984)에서는 사전편찬 기본원칙 가운데 ‘과학성과 규범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을 정도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기준에 맞추어 통일적으로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사전을 편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의 뜻풀이는 규범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단어의 뜻은 고정적이지 않고 매우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매우 자의적일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회화된 공통적이고 모범적인 의미를 제시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뜻풀이에 있어서 국어사전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법률가의 입장에 있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국어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여 기록하는 역사가의 입장이라는 것이 사전 편찬자의 정확한 성격 규정이 될 것이다.

4.2. 표제어 문제

우리는 어떤 생소한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된다.

18) 1986년 1월에 연세대학교 교수 몇 사람이 새 사전의 편찬은 일반 출판사의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학술적이고 기술적인 일이며, 그 일은 한국어 연구와 한글 문화운동의 큰 요람인(『연세한국어사전』, 머리말)

19) 김민수(1986, 39-40)은 사전편찬의 태도에는 초기의 실용적 규범성에서 역사적 기술성으로 바뀌고 거기에 규범성을 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사전에는 어느 정도의 규범성이 없을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 그러나, 실제 사전에서는 이들간에도 서로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정재도(2001) 참조.

이 때 국어사전에 그 단어가 들어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필요로 하는 단어가 없을 경우에는 난감하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예로 하여 국어사전의 활용에서 만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필자는 오래 전에, 조부에게서 ‘책술’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다 당시 성씨에 관련된 책을 하나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곤 ‘책술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었다. 전후 대화로 보아 대충 책의 두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그 단어는 처음 듣는 것이어서 바로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었다 책에는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었다.

(3) 책술 [-술] 『명』 책의 두껍고 얇은 정도(표준)

사전을 통해 ‘책술’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책의 두께’라든지 ‘책의 페이지 수’라든지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사전을 이용하는 보람이요, 사전 이용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위의 경우는 문제가 금방 해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찾고자 하는 단어가 사전을 찾아도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사전을 찾는 방법이 서툴러서 생기기도 하겠지만²¹⁾, 대부분은 사전의 표제어가 충분하지 못해서 생기게 된다. 필자는 얼마 전에 한 지역의 방언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그마리가 선 것을 보니 남동생을 보겠구나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집에 돌아와 국어사전에서 ‘그마리’를 찾아보았으나, 대사전에서도 그에 대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마리’와 비슷한 표제어의 앞뒤를 뒤적거리던 중 ‘거머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거머리’는 두 개의 동음이의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동물의 하나이고, 다른 것은 문제의 ‘그마리’였다. 다음의 예를 보자.

(4) 거머리¹ [거:-] ㉡ 어린아이의 두 눈썹 사이로 살 속에 파랗게 비쳐 보이는 심줄 자란 뒤에는 없어진다. (표준)

21) 사전 찾는 방법과 관련하여, 대개는 자모순 배열을 하는 사전에서 자모의 순서를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한글의 자모는 겹자음이나 겹모음이 많은데, 이들의 순서를 알기는 쉽지 않다. 특히, 우리 나라의 국어사전은 사전마다 자모순서를 각각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은 한글맞춤법(1989)에서 자모배열순서를 결정한 이후 해결된 바 있지만, 북한의 사전과는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제어 배열문제에 대해서는 김민수(1986)참조.

거머리² [거:~] ㉠(동)거머릿과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착 달라붙는 상태가 매우 끈덕진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악착같이 착취하는 상태가 매우 끈덕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거머리’이 ‘그마리’의 표준어이기 때문에 ‘거머리’만 표제어로 수록된 것이다. 이 경우 ‘그마리’도 표제어로 올리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방언을 표제어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해당하는 단어가 표제어에 없을 때는 그 단어와 형태를 유사하게 바뀌가면서 사전의 앞뒤를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찾고자 하는 어형이 반듯하게 표준어형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찾고자 하는 단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형이 바뀐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막다른 데에 이르러 어찌 할 수 없게 된 지경’을 의미하는 단어는 원래 ‘이판새판’이었던 듯하다. ‘이판새판’은 ‘지금 이 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할지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뜻의 단어를 ‘이판사판’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국어대사전』(1991)에는 ‘이판사판’은 없고, ‘이판새판’만 올려져 있지만, 『연세한국어사전』(1988)과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이판새판’은 없고, 모두 ‘이판사판’만 표제어로 올려져 있다.

- (5)이판새판 ㉠ 막다른 데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판. (금성)
- 이판사판 ㉠ 막다른 데에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지경. (연세)
- 이판사판 ㉠ 막다른 데에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지경. (표준)

『연세한국어사전』은 1960년대 이후의 언어자료에서 쓰인 단어만을 표제어로 선정한 편찬방침 때문에 ‘이판사판’만을 표제어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판사판’을 표준으로 인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어대사전』(1991)은 예전에 쓰이던 단어를 반성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결과 개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판사판’을 표제어로 올리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국어대사전』(1991)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판새판’만을 볼 수 있으며, 『연세한국어사전』이나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판사판’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하기는 ‘이판사판’이 ‘이판새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선가 밝혀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괴발개발’에 대한 표제어는 사전 이용자에게 편리한 점이 있다. ‘괴발개발’은 ‘글씨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인데, ‘괴’가 ‘고양이’라는 사실을 알기 쉽지 않고, 발음하기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발쇠발, 개발새발’ 등으로 발음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는 전통적인 ‘괴발개발’만을 표제어로 올리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6)괴발개발 [괴:발개발] ㉠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글씨를 마구 써 놓은 모양을 나타냄. (연세)
 괴:발개발 [괴-/개] ㉡ 글씨를 함부로 갈겨써 놓은 모양. (금성)
 괴발-개발 [괴:--/개:--] ㉢ 고양이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 (표준)
 개발-쇠발 ㉣ ‘괴발개발’의 잘못. (표준)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개발쇠발’을 표제어로 올린 다음 ‘괴발개발’의 잘못으로 처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에 대하여 규범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규범적 사전을 지향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에서 바람직한 처리라고 하겠으나, 여전히 ‘개발새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럴 경우, ‘개발새발’이 표준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국어사전의 표제어가 국어의 모든 단어를 남김없이 담을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4.3. 뜻풀이 문제

국어사전의 미시적 구조에서 핵심적인 것은 뜻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족할 만하게 풀이되어 있지 않으면 사전으로서의 가치에 문제가 있다. 더욱이 사전 표제어의 표기, 발음표시 등은 어문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개의 사전에서 일치하지만 단어의 뜻 분석에 의한 뜻풀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편찬에서 핵심적 사항 중에 하나인 뜻풀이의 내용 비교를 통해서 사전 편찬자의 태도에 따라 뜻풀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전의 뜻풀이에서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남한사전과 북한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한 사전은 대체로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보는

입장에서 언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경향이라면 북한 사전은 혁명의 힘있는 도구라는 관점에서 언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혁명에 힘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통적 뜻에다가 필요에 의한 새로운 뜻을 첨가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정치 경제 등의 용어에서는 물론 일반적 어휘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다음 단어의 풀이를 보자²²⁾.

(7) ‘일꾼’의 뜻풀이

- 남한 ①삿을 받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②어떤 일이든지 잘 처리하는 사람. ③중대한 일을 맡아 하거나 할 만한 사람. ④(방)머슴
 북한 ①<<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일정한 부문에서 사업하는 사람>>을 통털어 이르는 말. ②일을 능숙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

단어 ‘일꾼’에 대한 풀이에서 남북의 차이가 확연하다. 북한사전의 ①번 뜻은 북한의 체제와 관련되어 새로 첨가된 것으로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의미가 변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의 의미를 개조하여 규범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언어정책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뜻풀이에서 남북의 차이는 언어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에 의해 뜻풀이도 확연히 달라진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정치 사상적 내용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간에는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지게 마련이다. 역사적으로 국어사전간에 뜻풀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김동언,1995).

(8) 고유어 ‘만만하다’의 뜻풀이

- ㄱ. 만만하다 『活』 ① 御し易し. ② 軟かなり.(총독부,1920)
 만만-하다 『여변』(-하여·-환) 『形』 ① 제어하기 쉽다. ② 우습게 다룰 수 있다. ③ 두려울 것이 없다. ④ 단단하지 않다. 무르다.(문세영,1938)
 만만-하다 <-하여, -하니> 『언』 두려울 것 없다. 우습게 보다. (조선말,1947)
 ㄴ. 만만-하다 『어·여벗』 ① 연하고 보드랍다. ② 볼 데 없다. ③ 우습게 보이다. (큰사전,1957)
 만만-하다 『형』 (여변) ① 연하고 보드랍다. ② 우습게 보이다. 마음대로 대할 수 있어 보이다. (민중,1961)
 만만-하다¹ 『형』 (여변) ① 연하고 보드랍다. ② 조심스럽거나 어렵지 않아 마음놓고 다룰만 하다. ③ 힘들지 않고 아주 손쉽게 다룰만 하다. (삼성,1974)
 만만-하다 『형』 (여불) ① 무르고 보드랍다. ② 손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 (금

22) 남북사전간의 뜻풀이 차이를 보이는 예는 고영근 외(1989)에 자세하다.

성,1990)

만만-하다¹ 『그』(여벗) ① 연하고 보드랍다. ② 거리낄 것이 없어 쉽게 다룰 만하다.

③ 힘들지 않고 손쉽다. (한글,1991)

만만하다 [만만한, 만만하여(해), 만만합니다] 『형』 손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 (연세,1998)

만만-하다¹ 『형』 ①연하고 보드랍다. ②무서울 것이 없어 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 (표준,1999)

ㄷ.만만:하다¹ 『형』 ① 연하고 보드랍다. ② 무서울 것이 없어 쉽게 다룰 만 하다. D (부정하는 단어와 결합하여) 호락호락하다. ③ 힘들지 않고 손쉽다. (선말,1962)

만만하다¹ 『형』 ① 연하고 보드랍다. ② 다루기 쉽게 호락호락하다. (현대,1981)

만만하다¹ 『형』 ① 연하고 보드랍다. ② 다루기 쉽게 호락호락하다. (선대,1992)

(8ㄱ)은 해방 이전에 발행된 사전을, (8ㄴ)은 해방 이후 남한에서 발행된 사전을, (8ㄷ)은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행된 사전의 뜻을 보여준다

예 (8)를 통해, 『조선어사전』(1938)이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1920)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는 후자의 두 가지 뜻을 그대로 계승하고 두 가지 뜻을 새로 첨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첨가된 두 가지 뜻은 『표준조선말사전』(1947)과 같은 점이 이채롭다. 이것은 『표준조선말사전』이 1947년 김병제에 의해 간행되긴 했지만, 이 사전의 뼈대를 완성한 이윤재가 『조선어사전』(1938)의 체계와 교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윤재는 사전 편찬의 일을 1933년 겨울에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김병제의 ‘머리말을 대신하여’), 『조선어사전』(1938) 편찬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해방 후에 간행된 대사전에서는 『조선말큰사전』(1947-1957)이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뜻의 가짓수나 표현에서 각각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특히 ‘연하고 보드랍다’는 뜻은 이후 사전에서 하나의 전형으로 자리 잡은 느낌이 있다. 이후 남한에서 간행된 대사전은 기본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두 유형으로 갈라볼 수 있다. 금성, 민중, 표준의 대사전이 그 하나요, 한글과 삼성의 큰사전이 다른 하나다 이들은 서로 뜻의 가짓수에서만 아니라 개별 뜻이 포용하는 범위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전자는 복합화의 관점이라면, 후자는 분석화의 관점을 보이는 점이 있다. 그러나,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기존의 뜻 분석에 개의치 않고 실제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하나의 뜻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간행된 『조선말사전』(1962)도 기본적으로 『조선말큰사전』(1947-1957)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

은 ‘연하고 보드랍다’가 그대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북한에서 간행된 사전은 서로간에 영향이 매우 분명해 보인다²³⁾.

이러한 사실은 사전의 뜻풀이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에는 단순히 현재 우리가 쓰는 단어의 뜻만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뜻을 버리기 어려워 그대로 사전에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쓰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자료의 충실도나 분석의 정확도에서 차이가 나는 사실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마다 뜻풀이가 약간씩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사전의 이용자는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4. 성경 번역의 문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번역이란 원천언어를 수용언어로 재해석하는 것일지 모른다. 재해석하는 정도나 방법에 따라 의역 혹은 직역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직역이란 불가능할지 모른다²⁴⁾.

번역에서 원천언어에 대응하는 수용언어를 찾기 어려운 점이 문제지만 번역자가 수용언어의 구조와 체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는 개화기에 외국 선교사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국인들을 조역자로 삼았던 일을 들 수 있다. 외국 선교사들은 원천언어에는 정통했을지 모르나, 수용언어인 한국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한국어에 대해 정통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인이라도 한국어를 모르거나 애매하게 아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국어사전의 뜻풀이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그러한 실례를 다음의 예 (9)를²⁵⁾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23) 뜻풀이에 의한 차이 이외에도 뜻의 차등화, 표현방법 등에서도 사전마다 큰 차이가 발견된다. 자세한 것은 김동언(1995)을 참조할 수 있다.

24) 번역에 대해서는 민영진(1996)을 참조할 수 있다.

25) 이 자료들은 대한성서공회의 전무용 선생이 제공한 것이다. 전 선생은 자료뿐만 아니라, 성경번역에서 국어사전 문제와 관련된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었다 이 부분의 집필은 대부분 그의 도움에 힘입은 바 크다. 특별히 감사의 뜻을 밝힌다.

예들은 『성경전서개역개정판』(1998)에서 인용함. 격은뭉음표 안에 있는 부분이 개정되기 이전의 본문이고, 밑줄 부분이 개정된 본문이다.

(9)ㄱ.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 10:20)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그가 보내신 <자를>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아니함이라 (요 5:38)

ㄴ. 주께서 <가라사대>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사람을 찾으라 (행 9:11)

<저희가>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사람이라 (행 10:22).

ㄷ.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이의 형상을

<좃아>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입은 자니라(골 3:10)

<저희가>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자를 <심판하기를>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자에게>이에게 <직고하리라>사실대로 고하리라(벧전 4:5)

예 (9)는 『개역한글판』(1956)에 쓰인 의존명사 ‘자’가 『개역개정판』(1998)에서 ‘이, 사람’으로 개정되거나 그대로 쓰인 예들이다 『개역한글판』의 신약에 쓰인 의존명사 ‘자’는 모두 1591회인데, 이중 52회만 ‘사람’ 또는 의존명사 ‘이’로 개정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였다. (9ㄱ)은 ‘이’로 개정된 것을, (9ㄴ)은 ‘사람’으로 개정된 것을 보이며, (9ㄷ)은 ‘자’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인다.

대체로 ‘이’로 개정된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높이고 싶은 경우에 해당하나, ‘사람’으로 개정한 경우는 ‘자’와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²⁶⁾. 『개

26) ‘자’가 다음과 같이 9번 정도 ‘사람’으로 개정되었다.

주께서 <가라사대>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사람을 찾으라 (사행 9:11)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사람을 결박할 <권세를>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행 9:14)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사람이 아니요 <육 있는 자요>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신령한 사람이니라 (고전 15:46)

이같은 <자들과>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사람에게 <복종하라>순종하라 (고전 16:16)

<저희가>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사람들을 알아 주라 (고전 16:18)

<그 불법을>불법이 <사하심을>사함을 받고 <그 죄를>죄가 <가리우심을>가리우심을 받는 <자는>사람들은 복이 있고(롬 4:7)

<저희가>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사람이라 (행 10:22)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역한글판에서 ‘자’로 쓰였던 말이 『개역개정판』에서 서로 다르게 개정된 사실은 의존명사 ‘자’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국어사전에서 ‘자’에 대한 뜻풀이를 보자.

(10)자¹⁰(者) 『ㅣ』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낮게 일컫는 말. “놈”보다는 조금 품이 있음 .(한글학회, 중사전, 1958)

자¹⁴(者) 『형명』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얹잡아 일컫는 말.(국어대사전, 이희승, 1982)

이들 사전에서는 의존명사 ‘자’를 ‘사람’을 ‘얹잡거나 낮게’ 이르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의 풀이는 성경을 개정하려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높이고 싶은 대상에게 낮잡아 이르는 말인 ‘자’를 쓴다는 것은 아무래도 내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높일 대상에게는 의존명사 ‘이’를, 낮게 말하기 어려운 상대에게는 ‘사람’을 쓰거나 ‘자’를 그대로 쓴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개정 방향의 근거에는 국어사전의 풀이를 인정하고도 싫고 벗어나고도 싶은 사정을 있었음을 반영한다. 전자는 높이고 싶은 특정한 대상에게는 ‘자’를 쓰지 않았다는 결정과 관련이 있고, 후자는 ‘얹잡거나 낮게’ 일컫는 의미가 없는 대부분의 ‘자’가 『개역개정판』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어사전이 언어현실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 실제 국어생활에서 의존명사 ‘자’는 사람을 ‘얹잡거나 낮게’ 일컫지 않고 일상적으로 이를 때도 많기 때문이다 이 점은 최근에 출판된 국어사전들의 뜻풀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⁷⁾.

<자를>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행 10:38)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사람이라 (행 11:24)

27) 의존명사 ‘자’가 일상적이고 중립적 의미로도 쓰인다는 것은 다음의 언어현실도 증명한다.

① 접미사 ‘-자(者)’가 결합된 파생어가 낮잡는 의미가 없다.

학자, 교육자, 과학자, 운전자, 보행자, 장애인

② 법률에서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에 보통 ‘자’를 쓰지만, 낮추는 의미가 없다.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

(11)자¹⁷ 『이』(때이) 사람을 좀 얹잡아 가리켜 일컫는 말로서, ‘사람’ 또는 ‘놈’이란 뜻. (H) 그 ~. 저 ~. (한글, 우리말큰사전, 1991)

자 『명』(의존) 어떤 사람을 조금 얹잡거나 범상하게 지칭하는 말. (금성대사전, 1991)

자⁵ 『의』 ①(특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 또는 그) 사람. /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자는 한 마리의 토끼도 못 잡는다. (유) 이. ②(사람을 조금 얹잡아 부를 때 쓰는 말로) 사람, 놈. / 환퇴라는 자는 얼마나 못됐던지 공자님이 앉았던 자리라면 그 나무라도 찍어버리고 욕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던 나쁜 사람이었다. (연세한국어, 1998)

자¹⁸ (者) 『명』 『의』 ‘놈’ 또는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사람을 좀 낫잡아 이르거나 일상적으로 이를 때 쓴다 / 낫선 자가 대문 앞에서 서성인다. (표준, 1999)

1991년에 출판된 한글학회의 『우리말큰사전』까지도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로만 풀이하고 있지만 『국어대사전』(1991)부터는 의존명사 ‘자’의 의미에 ‘얹잡는’ 것과 ‘일상적인’ 것이 모두 들어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더욱이 연세한국어사전은 ①번 뜻으로 ‘사람’만 제시한 다음에 유의어로 의존명사 ‘이’를 제시하지만, ②번 뜻에는 ‘사람, 놈’을 제시하면서 의존명사 ‘이’와 관련을 맺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전의 풀이는 의존명사 ‘자’에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의 사전 풀이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²⁸⁾. 『개역개정판』에서 대부분 그냥 쓰이고 있는 ‘자’는 때에 따라 낫잡거나 일상적으로 쓰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중립적으로 또는 적어도 낫잡지 않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개역개정판』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높이고 싶은 대상에는 의존명사 ‘이’로 개정함으로써, 사전의 풀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사전의 어디에도 의존 명사 ‘이’에 높이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특정한 대상에게만 ‘이’를 붙임으로써 그렇지 않은 것(사람, 혹은 자)과 차별화

28) 반대로, 예전의 사전에서는 그 당시의 언어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최근의 사전은 현재의 바뀐 언어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자를 선호하던 예전 시대에 한자어인 ‘자(者)’가 낫잡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자’는 ‘이’나 ‘놈’ 등이 쓰이기 어색한 문맥에서 널리 쓰이다가 점차 마땅치 않은 상대에게도 쓰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국어사전의 뜻풀이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사전의 뜻풀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이 글은 일반인, 특히 성서 번역에 관심을 가지고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국어사전의 활용 문제를 생각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국어사전이란 일반적으로 국어 단어에 대하여 언어적 정보를 망라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 단어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국어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국어사전을 가까이 두고 이용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또, 국어사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사전의 정의에 사로잡혀 국어를 스스로 편협하게 해석하려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활용상의 문제는 국어사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데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어사전의 성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어사전은 국어 단어에 대한 언어적 정보를 주는 언어사전 이외에도 다양한 표제어만을 선별하여 뜻풀이를 제공하는 여러 특수사전이 있다. 이러한 사전은 국어의 특정한 항목에 대해 좀더 체계적으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요긴하다. 본격적인 언어 사전으로서의 국어사전도 그 편찬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 국어사전 편찬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것은 『조선말큰사전』(1947-1957)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전은 이를 바탕으로 집고 보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전산처리의 도움으로 언어자료에 대한 대규모 수집 및 정리가 가능해지면서 출판된 몇 사전들은 뜻풀이나 용례 제시 등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해졌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국어사전에는 각각의 표제어에 대하여 표기, 발음표시, 원어표시, 활용 및 문법 정보, 뜻풀이 및 용례, 관련단어 제시 등 해당 단어에 대한 모든 언어적 정보가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의 정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전 원고의 모습을 보았다. 각 필드마다 필요한 정보가 담겨서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단어 정보가 되는 것이다. 국어사전에 제시된 언어적 정보는 해당 언어사회에서 사회화된 공통적인 언어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범적인 것을 제시하게 마련이

다.

국어사전에는 언증들이 ‘맞음과 틀림’이라는 기준에 따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편찬된 규범 사전이 있고, 가치 판단 없이 실제로 사용되는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기술 사전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사전이 되었든, 하나의 사전은 미완성인 것이다. 미완성이란 말은 표제어의 수에서뿐만 아니라, 표제어의 언어적 정보도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편찬자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사전 편찬작업이 가지는 속성이라 해야 할 것이다.

언어는 쉼 없이 태어나고 성장하다가 사멸한다. 언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뜻을 가지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뜻이 없어지기도 한다. 형태가 바뀌고 발음이 바뀌는 것은 물론 새로운 단어가 태어나기도 한다. 이들을 제 때 사전에 반영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전은 언제나 언어 현실보다 한 걸음 뒤에서 그 변화의 모습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전은 언어 현실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국어사전에 제공되는 언어 지식은 어느 정도 사회화 된 표준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고영근 외(1989).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 국립국어연구원(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분석』.
- 김동언(1993). 국어사전의 올림말과 동음어 『국어를 위한 언어학』. 태학사.
- 김동언(1994). 남북 국어사전의 뜻풀이 비교 연구 『어문논집』(고려대) 33.
- 김동언(1995). 뜻풀이로 본 국어사전 편찬사 『한국어학』 2.
- 김민수(1983). ‘말모이’의 편찬에 대하여. 『동양학』(단국대) 13.
- 김민수(1986). 국어사전:그 표제어의 선정과 배열 문제 『국어생활』 7.
- 김윤경(1957). 국어학상으로 본 <<큰사전>>. 『한글』 122.
- 남기심(1987). 국어사전의 현황과 그 편찬방식에 대하여 『성곡논총』 18.
- 민영진(1996).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두란노.
- 박정출(1948). 표준조선말사전을 보고 『한글』 13-2.
- 박금자(1989). 북한의 국어사전 평설 『북한의 말과 글』(고영근 편) 을유문화사.
- 신영철(1938). 문세영 선생 지은 조선어사전 『한글』 6-10.

- 신익성(1971). 사전편찬을 위한 세 가지 문제 『한글』 148.
- 심재기(1987). 국어사전에서의 뜻풀이 『어학연구』 23-1
- 심재기(1989). 좋은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한 예비적 고찰 『애산학보』 7.
- 유창돈(1958). 우리말 <<큰사전>> 해부. 『사상계』 6-1,2.
- 이병근(1977).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고본). 언어. 2-1.
- 이병근(1982). 국어사전사 편고 『백영 정병욱 선생 화갑기년논총』.
- 이병근(1986a).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 『국어생활』 7.
- 이병근(1986b). 조선광문회편 <<말모이>> (사전).해제 및 정리. 『한국문화』 7
- 이병근(1990). 북한의 사전편찬과 사전학 『북한의 국어국문학 연구』. 지식산업사.
- 이병근(1990). 사전 및 사전학.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이병근(2000). 한국어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이은정(1987). 사전에서의 품사규정고찰 『한글』 195.
- 이용호(1975). 외국인의 국어사전 편찬사업 『명지어문학』 9.
- 이현복(1987). 국어사전에서의 발음표시. 『어학연구』 23-1.
- 임홍빈(1993). 북한 사전의 뜻풀이. 『새국어생활』 3권4호.
- 전무용(1993).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의 우리말을 다듬으면서. 『기독교사상』 2월호.
- 정순기,리기원(1984). 사전편찬이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정재도(2001). 국어사전 바로잡기 한글학회.
- 조재수(1984). 국어사전 편찬론 과학사.
- 조재수(1986). 북한의 말과 글. 한글학회.
- 지준모(1969). 사전론. 『어문학』 20.
- 차재은(1991). 북한의 사전편찬사.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김민수 편) 2. 녹진.
- 한재영(1991). 국어대사전과 우리말 큰사전 『문학과 사회』 18.
- 홍윤표(1986). 최초의 국어사전 『국한회어』에 대하여. 『국어학논총』(천시권 화기론).
- 홍재성(1987). 한국어사전 편찬과 문법 문제 『국어생활』 7.
- 홍재성(1991). 일반사전학특강. 『언어학회』 여름연구회 특강.
- 菅野裕臣(1991). 외국인 편찬 한국어 대역 사전의 현황과 문제점 『새국어생활』 2-4.

<Abstract>

The Character and Practical Use of the Korean Dictionary

Dong-Un Kim
(Kangnam University)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o the non-specialist the practical use of the Korean dictionary. If we don't know a Korean word, it is appropriate to look it up in a Korean dictionary. But this can turn out to be of little use. In the case that someone habitually turns to the dictionary, s/he is likely to mis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what are often exclusively Korean words, thus becoming enslaved to misleading dictionary definitions. Because such problems originate in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the Korean dictionary, we have attempted to describe the particular character of that type of book.

A Korean dictionary is a text that provides concise information about spelling, pronunciation, etymology, grammar, meaning, examples and related words of Korean lexical entries. This information is standard to some degree, because the linguistic information provided by the Korean dictionary is based on the socialized, common linguistic competence of Korean community.

Language is created, grows and becomes extinct, endlessly. A word takes on a new meaning and usage, or the existing meaning and usage of a word is lost in the process of language growth. Also, new words are created, and forms and pronunciations of words are changed. It is very difficult for a dictionary to reflect these changes at the proper time. A lexicographers make all possible efforts to reflect these changes, one step behind the realities of the language. Therefore, the information in a dictionary is not itself the language reality.

한글성서 번역에 나타난 호칭어

전혜영*

1. 들어가는 말

누구나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주저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쉽지만 사회적 관계로 만난 상대방에게 ‘선생님’으로 불러야 할지 ‘아저씨’라고 불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 어떤 행태를 선택하는 것이 대화의 상황에 맞게 상대방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호칭어’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반영하는 언어적 장치로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대화에서 어떤 호칭어가 선택되는가에 따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기에 실제로 호칭어 사용은 대화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한국어의 화용적 상황에 맞게 성서를 번역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많겠지만 호칭어도 번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성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장면에서 사용된 호칭어들은 한글 성서에서 어떻게 번역되었을까 궁금하다. 그 까닭은 한국어의 호칭어 체계가 복잡하여 성서 원문의 언어인 히브리어, 희랍어의 그것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엮어내는 담화의 상황을 한국어의 어법에 맞추어 번역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글성서들 사이에 호칭어가 다르게 번역된 경우가 많은 것이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본문의 호칭어가 어떤 번역에서는 ‘주여’로 되어 있고, 다른 번역에서는 ‘할아버지’로 되어 있는데(창 24:18의 경우),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면 무슨 까닭에 서로 다른 것인가? 일차적으로 이 차이는 원문 일치 원칙을 준수하느냐 내용 일치 원칙을 준수하느냐 하는 번역의 원칙에 달린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느 원칙을 취하더라도 어떤 호칭어로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번역자들을

* 이화여대, 국어학.

고민스럽게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성서를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할 때 언어적 차이로 인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다. 번역된 성서는 그 표현 방식이 한국어이기에 국어학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성서에 나타난 호칭어의 실상을 검토하고, 한국어 호칭어 체계와 관련하여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사용 방식

한국어로 성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에 대한 화용론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말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담화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이것을 성서의 담화 상황을 번역하는 데에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 성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되어야 하지만 이 번역된 문장이 한국어로서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으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호칭어의 번역에서도 어떤 것이 한국어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호칭어인지 알아야 하기에 한국어 호칭어 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호칭어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기서 ‘호칭어’라는 용어는 화자가 청자와 대면한 상황에서 상대를 부르기 위해 사용되는 부름말(terms of address)을 가리킨다.²⁾

1) 예를 들어 ‘오다/가다’ 동사의 용법에 대한 한국어 화용론적 지식이 반영됨으로써 어떻게 번역이 달라졌는지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 22:20을 보면 『개역』의 ‘오다’동사가 그 이후 번역에서는 ‘가다’동사로 바뀌었는데, 이는 한국어의 용법에 맞게 고쳐진 것이라 하겠다. 한국어 ‘오다/가다’ 동사의 용법에 대해서는 이기동(1977) 참조.

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개역』

②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공동』

③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표준』

2) 곧 ‘김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지요’나 ‘김 선생님, 저도 같이 가요.’에서 사용된 ‘김선생님’과 같이 상대방을 그 면전에서 직접 지시하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건 김 선생님이 아끼는 물건이야.’에서 제 3자에게 가리키는 형식으로 사용된 ‘김 선생님’은 지칭어로서, 이 글에서 말하는 호칭어의 범위에 넣지 않기로 한다.

- (1) 직함+님: 교수님, 선생님, 과장님, 대리님, 사장님³⁾
- (2) 성+직함+(님): 김 교수(님), 이 부장(님), 오 대리(님)
- (3) 성+이름+직함+(님): 김영수 교수(님), 이영호 과장(님)
- (4) 성+이름+ㅁ, -님, 씨, 군/양]: 김영수, 김영수님, 김영수 씨, 김영수 군/이영미 양
- (5) 이름+ㅁ, -야, 씨, 군/양]: 영수, 영수야, 영수 씨, 영수 군/영미 양, ?영수님
- (6) 성+[씨, 군/양, 형, 가, -님]: 김 씨⁴⁾, 김 군/양, 김 형, 김 가, ?김님⁵⁾
- (7) 성+이름+친족호칭: 김영수 형(오빠), 김영수 아저씨
- (8) (성)+직함+친족호칭: 오 사장 아저씨, 김 대리 오빠, 원장 할아버지, 간호사 언니
- (9) 성+[양/군, 씨]+친족호칭: 김 양 언니, 김 군 오빠, 김 씨 할머니
- (10) 친족호칭+(님): 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아버님, 숙부님
- (11) 이름+친족호칭: 영수 형(오빠), 영수 삼촌
- (12) 아이이름+친족호칭: 인호아빠, 인호삼촌, (인호)애비야
- (13) 2인칭 대명사: 너, 그대, 자네, 당신
- (14) 외래어형(Mr+성): 미스터 김, 미스 리
- (15) 일반명사형: 선배, 총각, 학생, 젊은이
- (16) 택호명: 마산댁, 목포댁
- (17) 호출어형: 어이, 이봐, 여기요, 저기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호칭어에는 다양한 형식이 있으며 상

3) *‘운전사님’ 대신 ‘기사님’이 사용되고, ‘주부님’까지 사용되면서 <직함+님> 형태의 용법이 확산되고 있다. 직함 호칭어의 일반화 현상으로 ‘사장님’의 경우 직함과 상관없이 성인 남자를 높이는 호칭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4) 여기서 ‘씨’의 사용법은 독특하다. ‘김철수 씨’는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지만, ‘김 씨’의 경우는 청소부라든가 노동자의 일꾼 등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는 어감을 준다. 또 여성에게 사용할 때는 ‘김 씨’라고 쓰지는 않고, 대신 ‘김 씨 아주머니, 박 씨 할머니’ 등으로 쓴다.

5) 최현배(1982:783)에서 부름말의 예로 ‘김 님’을 제시하고 있다.

예) “김 님 언제 왔소?”

<성+이름+님>형태의 호칭어는 은행, 병원 등의 창구에서 손님을 부르는 형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에는 공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지위와 관계없이 청자를 존대하는 호칭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한 통신언어에서 ‘님’의 확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채팅에서는 <이름+님>형태의 부름말에서 나아가 <님>을 대명사적 용법으로도 사용한다.

예) 화영 님, 닐은 어케 생각하세요

황에 따라 호칭어를 사용하는 방식도 아주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화자도 호칭어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정도이다 호칭어를 선택할 때는 친족관계, 사회적 지위, 나이, 결혼 여부, 남녀 성별 등의 사회적 요인과 친소관계에 따른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어떤 호칭어를 사용할 것인가를 정하게 된다(황적륜(1975) 참조).⁶⁾ 이제 한국어 호칭어 체계에서 보이는 유형상의 특징과 사용 방식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무엇보다 호칭어의 형태가 아주 다양하다는 것이다 특히 친족관계에 따른 호칭어가 다양한데, 친가, 외가, 처가, 시가, 친정 등의 계보에 따라 아주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은 그 만큼 한국 사회에서 촌수와 혈연의 계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친족호칭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순위 친족을 부를 때는 친족관계명에 ‘-님’을 결합한 형태를 쓰고 손아랫사람에게는 이름 호칭어를 쓰게 된다. 이때 나이와 결혼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어렸을 때 이름을 부르던 동생에게도 ‘동생’이나 ‘아우님’의 호칭을 쓰게 되며, 결혼한 아들에게 ‘애비’로, 오빠를 ‘오라버님’ 등으로 부르게 된다.

한국어 호칭어 사용 방식 중 특이한 것은 타인에게도 친족호칭어를 쓴다는 것이다. 타인에 대해서도 ‘아저씨, 할아버지, 형님, 언니’라든가 ‘김 양 언니, 원장 할아버지, 오 사장 아저씨, 유관순 누나, 서태지 오빠’ 등으로 친족호칭어를 확대하여 쓴다는 것은 혈연중심의 촌락을 구성하고 살던 문화의 반영으로서 가족의식의 확대로 볼 수 있다⁷⁾

간접 호칭어인 종자명 호칭어를 쓰는 것도 특이한 현상이다 아이를 중심으로 한 호칭어를 쓰는 것은 한국어만의 특징으로 자녀 유무가 호칭어 선택의 변수로 작용함을 보인다. 칭자와 아이의 관계에 따라, ‘인호 아빠, 인호 할머니’라고 하거나 아이의 관점에서 부르는 형태(고모부, 삼촌 등)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으며, 때로는 아이 이름이 그의 부모를 가리키기도 한다⁸⁾

또한 호칭어에 나타나는 서열이 분명하다. 신분적 준비관계는 유교적 신분사회에 비해 많이 변했지만, 호칭어에 담긴 서열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름 호칭어는윗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랫사람이나 동급의 칭자에게 한하여 사용한다. 서열상 존대해야 하는 칭자일 경우에는

6) 이익섭(1994:227-34)은 여러 요인을 서열과 친분의 두 요인으로 통합하여 볼 때, 서열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한다. 서열에서는 친족 서열이 사회적 서열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7) ‘오빠부대’라는 용어, 상업적 의도에서 사용하는 ‘언니, 이모, 어머니, 삼촌’ 등의 확산이 가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8) 예를 들어 인호의 할아버지가 ‘인호야’하고 부를 때, 그 대상이 인호가 아니고,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인 경우를 말한다.

친족인가 사회적 관계인가에 따라 <친족호칭+님>(아버님 이모님)의 형태나 <직함+님>(과장님 사장님 교수님)의 형태를 쓴다.

또 화자의 성별에 따른 형태 차이가 있어서 화자가 여자일 경우 ‘오빠, 언니’라고 부르는 대상에게 화자가 남자일 경우에는 ‘형’, ‘누나’라는 다른 호칭어를 사용한다. 남녀간 비대칭적 사용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이름+씨> 형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남편은 <이름+야>를 사용하는 데 반해, 아내는 <이름+씨>로 부름으로써 남성 우위의 호칭어 사용 방식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어의 특성상 호칭어는 대우법 어미와 호응하여 사용해야 한다 즉, 존대 호칭어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맞는 존대의 종결어미를 비존대 호칭어를 썼을 경우에는 여기에 맞춰 비존대의 종결어미를 쓰는 것이다⁹⁾

김 교수님, (*어디 가니/ 어디 가십니까?)(*는 비정상적인 문장이라는 표시임)
영수야, (어디 가니/ *어디 가십니까?)

호칭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관계의 진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한국어 호칭어의 전이 방식에서도 격식형에서 친근형으로 전이되는 언어 보편적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서구 언어와 달리 상하관계가 분명한 경우에 아무리 친해진다 해도 하위자가 상위자를 이름형으로 부를 수 없다 또한 친근형으로 전이될 때 아랫사람이 먼저 자신이 아랫사람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묵시적인 상하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게 되는데¹⁰⁾ 이는 서구 언어의 전이 유형과 상반된 현상으로서 한국사회의 수직적 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담화상황에 대한 고려가 호칭어 변화에 작용한다. 서열, 친분에 변화가 생기지 않아도 격식성에 대한 고려 때문에 호칭어가 바뀔 수 있다 주변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둘만 있는지 다른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호칭어가 달라진다. 화자가 선택한 처음의 호칭어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9) 그런 의미에서 호칭어는 형태적 특성에 대한 논의만으로 한정될 수 없고, 대우법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면상 이 글에서는 호칭어에만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호칭어와 종결어미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는 유동석(1990) 참조. 성서의 대우법에 대한 논의는 전해영(1994) 참조.

10) 박정운(1997:522-25)에서 지적한 것처럼, 유학생 신분의 두 사람이 처음에는 서로 ‘○○ 씨’ 하다가 친해지면 나이가 적은 사람이 먼저 상대를 ‘형’이라고 부름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영어의 경우 상위자가 먼저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에 따라 전환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대화에 끼여들 경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호칭이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료 교수 사이의 대화라고 할 때, 사적인 대화에서는 ‘영수야’로도 가능하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 ‘김 선생’ 또는 ‘김 교수님’ 등으로 바뀌게 마련인데, 이때 화자는 상대방의 사회적 직위와 함께 사적인 관계에 맞게 또 담화상황에 맞게 적절한 호칭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3. 호칭어 번역의 양상

한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사용 방식의 특성이 성서 번역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번역 성서의 호칭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주로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과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을 비교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번역을 참고로 제시하였다.(앞으로 『개역』, 『공동』, 『표준』 등 약칭을 사용함)

1)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에 따른 형태적 고려가 필요하다.

원문에 있는 <이름>형 호칭어들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어에서는 <이름>만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으므로 이름에 ‘-아/야’와 같은 호격 조사를 첨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음의 예들은 이런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원문에는 없는 형태인 ‘-아’가 첨가되어 있다.

(1) 창 22:1

① 개역: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② 표준: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하고 부르시니

(2) 삼상 3:10

① 개역: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② 표준: 그런 뒤에 주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다음의 예를 보면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야’라는 조사를 ‘그리스도’에 붙여 사용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침을 뱉고 때리며 경멸하는 장면에서 사용된 호칭어인데, 번역에서 원문에 없는 ‘-야’를 첨가함으로써 이 장면이 갖는 분위기를 살리고 대우의 등급상 아랫사람 취급을 하는 것임을 나

타내게 된다.

(3) 마 26:68

- ① 개역: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 ② 공동: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맞추어 보아라
- ③ 표준: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다음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호칭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이 호칭어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자연스러운 호칭어로 자리 잡았지만 실상 한국어 어법상으로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영수님’이라는 <이름+님>호칭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¹¹⁾ 그리고 <이름+여/이여> 형식의 호칭어도 마찬가지로인데, 일상언어에서 ‘영수여’와 같은 호칭어를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러기에 ‘예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예문 (4)는 귀신들린 자가 예수를 부르는 호칭어로 사용된 것이다. 예문 (5)에서는 <이름+여/이여> 형태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이 감안되어 <이름>만으로 바뀐 것을 보여준다.

(4) 막 1:24

- ① 개역: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 ② 표준: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5) 사 16:9

- ① 개역: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 ② 표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2) 한국어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호칭어 사용방식에 맞게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보면 『개역』에서는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방식을 볼 때 이것은 한국어의 일상언어 용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공동』과 『표준』에서는 ‘아버지’로 호칭어를 바꾸었다.

11) 최근에 와서 이런 형식의 호칭어 사용이 늘고 있어서 앞으로는 자연스러운 용법이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어색한 용법이다.

(6) 창 22:7

- ① 개역: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 ② 공동: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버지!” “애야! 내가 듣고 있다.”
- ③ 표준: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애야, 왜 그러느냐?”하고 대답하였다.

또 한국어 담화 상황에서 ‘너’라는 인칭 대명사로 상대를 부를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개역』에서는 원문 일치를 위해 2인칭 대명사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어법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지 못하다. 다음 예를 보면 『개역』에서 사용된 ‘너’가 『표준』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아래 예문에서 ‘->’는 『개역』에서 『표준』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 (7) ① 너->노인: 바로가 야곱에게(창 47:8)
- ② 너->형님: 모세가 아론에게(출 32:21)
- ③ 너->아가씨: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창 24:23)

또한 ‘당신’이라는 호칭어도 손윗사람에게 쓸 수 없는 호칭어여서 번역에서 사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개역』에서 사용된 ‘당신’이라는 호칭어를 『표준』에서는 상황에 따라 생략하거나 관계에 적절한 형태라고 될 만한 것으로 바꾸었다.¹²⁾ 귀신들린 자가 예수를 향하여 ‘당신’이라고 한 경우(마태 8:29)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는 윗사람으로 존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겠다.

- (8) ① 당신들->손님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창 18:3)
- ② 당신들 ->형들: 요셉이 형들에게(창 37:7)
- ③ 당신->아우님: 요셉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창 50:18)
- ④ 당신->어른: 롯이 보아스에게(룻 2:13)
- ⑤ 당신->선생님: 요한이 예수에게(마 3:14)
- ⑥ 당신->총독님¹³⁾: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요 18:30)

12) 표준 새번역의 우리말을 다듬으면서 생긴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전무용(1993:56-57)에서는 우리 문화를 고려하여 윗사람에게는 ‘당신’을 쓰지 않기로 하였다고 한다.

13) 이 호칭어의 변화가 재미있게 생각되어 다른 번역까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또 -> 각하 ->당신-> ♣(생략)-> 총독님’으로 다양하게 번역된 것을 볼 때 호칭어 선택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2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우의 등급이 서로 다르므로 번역간에 다른 대명사로 바꾸기도 한다. 『개역』의 ‘너’가 『표준』에서 ‘그대’나 ‘자네’, ‘당신’으로 바뀌는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대우의 등급을 높여 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9) 너->그대

- ① 주의 천사가 롯에게(창 19:12)
- ②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창 20:15)
- ③ 바로가 요셉에게(창 45:17)
- ④ 대제사장이 예수에게(마 26:63)

(10) 너->자네 : 라반이 사위 야곱에게(창 30:27)

(11) 너->당신

- 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창 20:9)
- ② 총독이 예수에게(마 27:11)
- ③ 예수가 총독에게(마 27:11)
- ④ 예수가 대제사장에게(마 26:64)

3)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 맞는 적절한 호칭어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성서에는 다양한 관계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이 만나서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어는 어떤 것일까? 인물들의 여러 가지 관계를 중심으로 『개역』에서 『표준』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이기로 한다. (앞에서 다룬 2인칭 대명사 호칭어는 제외함)

(12) 부부 사이

- ①아브람이 사래에게(창 12:11): **그대->여보, 당신**
- ②야곱이 라헬에게(창 30:1-3): **그대->당신**
- ③욘 부부(욘 2:9-10): **그대<->당신->당신<->당신**

(13) 부모와 자식 사이:

-
- 로스: 우리가잡아**사또**의게닐으지안아실이다
 - 구역: **각하**의게 잡아오지 아니 흥엿겟노라
 - 개역: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 공동: 우리가 왜 여기까지 끌고 왔겠습니까?
 - 표준: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 ①아브라함과 이삭(창 22:7-8): **내 아버지여->아버지/ 내 아들아->ैया**
- ②리브가가 야곱에게(창 27:8): **내 아들아->ैया / (창 27:13) 내 아들아->아들아**
- (14) 형제/자매 사이
 - ①야곱이 에서에게(창 33:8): **내 주->형님**
 - ②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창 42:10): **내 주여->총리어른**
 - ③아론이 모세에게(출 32:22): **내 주여->아우님**
 - ④라헬이 레아에게(창 30:14): **형->언니**
 - ⑤다말이 암논에게(삼하 13:12): **내 오라비여->오라버니**
- (15) 노인과 젊은이
 - ①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창 24:18): **주여->할아버지**
 - ②엘리후가 욥에게(욥 33:1): **욥이여->욥 어른**
 - ③노인 엘리가 청년에게(삼상 4:16): **내 아들아->젊은이**
- (16) 장인과 사위
 - ①야곱이 라반에게(창 30:26): **외삼촌->장인어른**
- (17) 주인과 하인
 - ①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창 39:9): **당신->마님**
 - ②종이 주인에게(마 13:27): **주여->주인 어른/ (마 25:20) 주여->주인님**
- (18) 왕(왕후)
 - ①요셉이 바로에게(창 41:16): **바로->임금님**
 - ②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삼하 14:4): **왕이여->임금님**
 - ③왕이 에스더에게(더 5:3): **왕후 에스더여->에스더 왕후**
- (19) 기타
 - ①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창 18:3): **내 주여->손님들**
 - ②룻이 동네사람에게(창 19:7): **내 형제들아->여보게**
 - ③한나가 엘리에게(삼상 1:26): **나의 주여->제사장님**
 - ④보아스가 룻에게(룻 2:8): **내 딸아->여보시오, 새댁**
 - ⑤룻이 보아스에게(룻 2:13): **내 주여->어른**
 - ⑥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마 27:63): **주여->각하**
 - ⑦베드로가 무리에게(행 2:22): **이스라엘 사람들아->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 ⑧무리가 베드로에게(행 2:37): **형제들아->형제자매 여러분**

호칭어의 변화 양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개역』에서 직역 위주로 번역된 ‘주여’ 호칭어가 『표준』에서는 담화상황을 반영하여 ‘형님, 아우님, 할아버지, 주인님, 총리어른, 각하, 어른’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어떤 형태가 담화상황에 가장 잘 맞는가를 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도자인 모세를 부를 때 형 아론이 사용하는 호칭어는 무엇이며 총리가 된 요셉을 그 형들이 부른 호칭어는 무엇이며,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호칭어나 욥을 부르는 호칭어, 제사장을 부르는 호칭어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를

부를 때 사용한 호칭어는 무엇일까 매번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성서의 인물들이 처한 담화상황을 살리는 효과면에서 볼 때 『표준』에서 다양한 호칭어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4)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어를 반드시 써야 할 것인가도 고려할 문제이다.

원문에 호칭어가 사용되었으면 반드시 번역에서도 호칭어로 살려서 번역할 것인가, 또 원문에 호칭어가 없는 경우에 호칭어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에서 호칭어가 생략될 수 있는 것처럼 성서 번역에서도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음 예를 비교해보면 (20-22)에서는 『개역』에서 사용된 호칭어가 『표준』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이것은 적절한 호칭어를 찾기 어렵거나 대화의 상황상 호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호칭어를 생략하는 한국어 호칭어의 사용 방식을 따른 것이라 하겠다.

(20) 창 43:19-20

①개역: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②표준: 그들은 ...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 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21) 창 44:7

①개역: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②표준: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22) 창 38:16

①개역: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②표준: 그때에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와 달리 (23-24)에서는 이전 번역에는 없던 호칭어가 추가되고 있다 (23)에서는 『개역』에는 없는 부름말 ‘여보’가 추가되어 부부 사이의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 (24)에서도 원문에 없는 호칭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름을 부르는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살려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

(23) 창 12:11

- ①개역: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 ②표준: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 (24) 삼상 3:4
- ①개역: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 ②표준: 주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하고 부르셨다.

5) 한국어로 사용되는 일반적 상황 이전에 신학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성서 속 인물들이 사용하는 호칭어를 번역할 때 한국어 사용자의 일반적 인 대화 상황에 비추어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일반 한국어의 상황으로 번역해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예를 들어 예수와 상대자들에 대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한국어의 어법만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예수에 대한 호칭어는 화자가 누군가에 따라 즉, 제자들인가, 율법학자들인가, 빌라도인가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생각해야 할 것이며 그 반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상에 따라서 호칭어가 달리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에 대한 호칭어는 주로 ‘주여’, ‘주님’, ‘선생님’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여->주님’으로 변한 것은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상대방을 부를 때 ‘○○-여’하고 부르지 않는 현대 한국어의 어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25) 예수가 청자인 경우

- ①제자: **주여->주님**(마 8:21)
- ②환자: **주여->주님**(마 8:2)
- ③백부장: **주여->주님**(마 8:6)
- ④가나안 여자: **주여->주님**(마 15:27)
- ⑤귀신들린 자: **당신->당신**(마 8:29)
- ⑥율법학자: **선생님->선생님**(마 8:19)

(26) 예수가 화자인 경우

- ①베드로에게: **시몬아->시몬아**(마 17:25)
- ②중풍병 환자에게: **소자야->아이야**(마 9:2)
- ③혈투증 앓는 여자에게: **딸아->딸아**(마 9:22)
- ④가나안 여자에게: **여자야->여자여**(마 15:28)
- ⑤유다에게: **친구여->친구여**(마 26:50)
- ⑥총독에게: **너->당신**(마 27:11)

다음에 예문으로 제시한 가나의 혼인잔치 장면에서 나오는 호칭어는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이라 하겠는데, 예수와 그의 어머니 사이를 단순히 모자간의 대화라는 상황에 맞출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여자’, 한국어의 어법에 맞게 하면 ‘어머니’로 번역될 수 있다. 따라서 원어에서 사용된 ‘여자’[yuvai]를 그대로 ‘여자’로 번역하게 되면 한국어의 어법에 비추어 볼 때 불경한 표현이 된다. 그간의 번역을 검토해 보면, ‘어만아->녀인아->여자여->어머니->여자여’로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 호칭어에 대한 번역자들의 고민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국어의 어법보다는 신학적인 해석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여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의견이 유력하다.¹⁴⁾ 이렇게 번역할 경우 독자들이 의아해 할 수 있겠으나 선택된 호칭어를 통해 일반적인 모자관계가 아니라는 신학적 의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다.

(27) 요 2:4

- ①로스: **어만아**는나과무삼상관이요
- ②구역: **녀인아** 나하고 무삼 상관이 잇느뇨
- ③개역: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 ④공동: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 ⑤표준: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4. 마무리

지금까지 한글성서 번역에서 호칭어를 번역할 때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 한국어 호칭어의 체계를 간략히 살펴보고 실제 번역에 사용된 호칭어 예를 비교함으로써 번역된 호칭어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번역간에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번역의 원칙과 상관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어의 호칭어 체계가 아주 복잡해서 그것을 성서 번역에 반영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호칭어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름형의 호칭어는 한국어의 형태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번역하게 되며, 대명사 호칭어의 경우 원문의 대명사 용법을 그대로 번역할 경우 한국어의 실제 사용방식과 잘 맞지 않음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호칭어 번

14) 서중석(1988)에 의하면, ‘어머니’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자’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요한의 독특한 사상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상상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자’ 또는 ‘여인’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한다.

역에는 일반적 상황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신학적 문제가 있음도 보았다. 전체적으로 『개역』과 『표준』의 호칭어 번역을 비교해 보면 『개역』에 비해 『표준』의 호칭어가 형태적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사용방식에 맞게 번역되고 있다. 대명사 호칭어가 상황에 맞는 직함 호칭어로 바뀌거나 등급이 조정되었다. 또한 『개역』에서 사용된 동일한 형태의 호칭어(예: 주여)가 『표준』에서는 담화상황에 따라 직함호칭어 형태(제사장님), 친족호칭어 형태(할아버지), 일반명사형 형태(주인어른)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국어학자의 입장에서는 성서 원문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어답게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호칭어 번역에서도 한국어의 어법에 맞고 한국어의 풍성한 표현 방식을 살릴 수 있는 번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번역된 성서에서 호칭어가 보여주는 차이를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어서 원문에서 사용된 해당 호칭어와 대조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다. 다만 한국어의 특성이 성서 번역에서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호칭어를 통하여 제시한 것으로 의의를 삼고자 한다. 호칭어 이외에도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성서 번역상의 문제들이 더 연구되어 성서 번역 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희숙. 2002. “호칭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0-1.
- 김영덕. 1971. “한국 초기성서 번역체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8.
- 김중은. 1993. “한국어 성경번역의 역사”, *기독교사상*, 411.
- 나채운. 1971. “국역성서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성서국역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교회와 신학*, 4.
- 나채운. 1990. “우리말 성경번역의 역사”, *우리말 성경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 민영진. 1984. *국역성서 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 민영진. 1993.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의 번역지침과 특징”, *기독교사상*, 410.
- 민영진. 1996.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 박갑수. 1989. “국어 호칭의 실상과 대책” *국어생활*, 19.

- 박정운. 1997. “한국어 호칭어 체계”, 사회언어학, 5-2.
- 서정수. 1979. “존대말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부름말과 가리킴말” 한글, 165.
- 서정수. 1985. “초기 우리말 성경의 표기법과 대명사에 관하여『성경직희』를 중심으로”, 한글성서와 거래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 서중석. 1988. “신약전서 새번역 평가복음서를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352.
- 성기철. 1985. 현대 국어 대우법 연구. 서울: 개문사.
- 유동석. 1990. “국어 상대높임법과 호격어의 상관성에 대하여” 주시경학보, 6.
- 유창균. 1967. “국역성서가 국어의 발달에 끼친 영향특히 어휘의 개신면을 중심으로”, 『동서문화』 창간호, 계명대학 동서문화 연구소.
- 윤지선. 1995. “2인칭 호칭에 관한 영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 사회언어학, 3-2.
- 이규창. 1992. 국어존대법론. 서울: 집문당.
- 이기동. 1977. “동사 ‘오다’‘가다’의 의미분석”, 말, 2.
- 이익섭. 1994. 사회언어학. 서울: 민음사.
- 이익섭·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 이정복. 2000. “통신언어로서의 호칭어 ‘님’에 대한 분석”, 사회언어학, 8-2.
- 전무용. 1993.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의 우리말을 다듬으면서”, 기독교사상, 410.
- 전혜영. 1993ㄱ.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Ⅰ”, 기독교사상, 411.
- 전혜영. 1993ㄴ.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Ⅱ”, 기독교사상, 412.
- 전혜영. 1994. “우리말 성경에 나타난 대우법-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3.
- 전혜영. 1998.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문화적 특성”, 한국 문화와 한국인, 서울: 사계절출판사.
- 전혜영. 1999.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호칭어 교육, 이승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 정길남. 1992. 19세기 성서의 우리말 연구.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 정재도. 1989. “부름말”, 국어생활, 19.
- 조항범. 1996. 국어 친족어휘의 통시적 연구. 서울: 태학사.
- 최봉영.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I, II). 서울: 도서출판 느티나무.

- 최태영. 1985. “초기번역성경연구Ⅱ”,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
사.
- 최현배. 1982.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한갑수. 1989. “호칭과 칭호,” 국어생활, 19.
- 황석자. 1999. “예수 담화에 나타난 인칭대명사의 기능언술행위에 의한 화용
론적 가치”, 한국프랑스학논집, 27.
- Nida, E. & Jan de Waard(1986),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New York:
Thomas Nelson Publishers.
- Bonvillain, N. 2003.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 Cho, Jun-Hak. 1982. “A Study of Korean Pragmatics: Deixis and Politeness,” 서
울: 한신문화사.
- Holmes, J. 1992.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New York: Longman.
- Hwang, J. R. 1975. Role of Sociolinguistic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with
Reference to Korean and English. Terms of Address and Levels of
Defere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Wardhugh, R. 1986.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Oxford: Blackwell.

<Abstract>

A Study on the Terms of Address in Korean Bible Translations

Hae-Young Jeon
(Ewha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briefly reviews the system of terms of address in the Korean language, and compares various examples of their usage in the *Korean Revised Version* (1961) and the *New Korean Standard Version* (1993) in order to identify points to consider when translating the proper forms of address of the Bible into Korean.

The differences found in these translations can be explained by the different translation principles adopted for each translation project, but they can also be viewed as a problem deriving from the extreme complexity of the forms of the address system itself, because it is not an easy task to reflect such complex terms of address in Bible translation. According to the Korean system, the forms of address are translated in consideration of Korea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pronouns, the literal translation of them from the original texts does not fit the ways they are used in the Korean language. Moreover, such translation leads to difficult theological problems that cannot be determined in advance.

On the whole, when the translations of terms of address are compared between the *KRV* and the *NKSV*, the forms of address in the *NKSV* are not only more diverse morphologically but also are more adequately translated according to Korean language usage than the *KRV*. The pronouns of the original text have been either translated into titles or adjusted per different levels of address forms in the *NKSV*. From the viewpoint of a Korean linguist, it would be crucial to translate the original texts into proper Korean as long as this does not misinterpret their meanings. In this regard, translations of forms of address should also be in line with Korean grammar and should make the most of the refined phraseology of the Korean language.

누가복음 1장 37절 본문의 번역 연구

정창욱*

1. 들어가는 말

『그리스어 신약』 네슬-알란트 27판은 누가복음 1장 37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ὅτι οὐκ ἄδυνατόν ἐστι παρὰ τοῦ θεοῦ πᾶν ῥῆμα.

이 성경 원문을 『개역 한글판』, 『표준 새번역』(개정판 포함), 그리고 『공동번역』(개정판 포함)은 다음과 같이 각각 번역하고 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¹⁾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세 가지 번역본들 사이의 차이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1) 똑같은 단어 ῥῆμα를 놓고 『개역 한글판』은 “말씀”이라고 번역한 반면에 나머지 두 번역은 “일”이라고 번역했다는 점; 2) 전치사 구 παρὰ τοῦ θεοῦ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라고 각각 번역되어 서로 상이한 것; 3) 『개역 한글판』(개정판 포함)에서 ὅτι는 “대저”²⁾로 번역되어 있으나 다른 번역본에는 이 단어의 번역이 빠져있다는 점

한글 번역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차이는 영어 번역본들에서도 나타날 만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서로간에 이러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ὅτι를 번역한다는 면에서는 『개역 한글판』 성경과 같으며, 위의 첫 번째 두 번째 항목과 관련해서는 『표준 새번역』이나 『공동번역』과 유사하다. 영어 번역본들의 표현은 전치사 구의 해석을 한글 성경보다 좀더

*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1) 『개역 개정판』은 단지 “능치”를 “능하지”로 바꾸었을 뿐 다른 부분은 『개역 한글판』과 동일하다.

2) 이 단어의 의미와 『개역 한글판』(개정판)에서의 용법에 대해서는 아래 각주 6을 보라.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데, 다양한 번역본들을 대조해 보면 아래와 같다.

- NIV Luke 1:37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 KJV Luke 1:37 For with Go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 RSV Luke 1:37 For with God nothing will be impossible.
- NRSV Luke 1:37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 NKJV Luke 1:37 For with God nothing will be impossible.³⁾
- WEB Luke 1:37 For with God nothing will be impossible.
- RWB Luke 1:37 For with Go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 YLT Luke 1:37 because nothing shall be impossible with God.⁴⁾

위의 번역들은 모두 분명하게 “nothing”(일)이라고 ῥῆμα를 번역하고 있고, παρά τοῦ θεοῦ는 “with God”으로 번역하고 있다.⁵⁾

한글 성경들과 영어 성경들을 비교해 보면 미래 시상의 동사 ἀδυνατήσει를 한글 성경은 모두 현재로 번역한 반면에 영어 성경들은 *NIV*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래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은 접속사 ὅτι를 번역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대저”라고 번역하고 있는 반면에⁶⁾ 영어 성경들은 모두 예외

3) *NASB*도 *NKJV*와 동일하게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다.

4) Latin Vulgate판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quia non erit impossibile apud Deum omne verbum(왜냐하면,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ῥῆμα를 “말씀으로”, 전치사 구를 “하나님께는”(“with God”)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동사는 미래로 번역하고 있다.

5) 대표적인 주석들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since nothing is impossible for God”(J.A. Fitzmyer).

“because nothing said by God can be impossible”(R.E. Brown).

Fitzmyer는 다음과 같이 직역을 제안한다.

“for not impossible will be word(or thing) with God.”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Anchor Bible(Garden City: Doubleday, 1981, 1990), 352. Brown은 히브리 단어의 이중 의미(double connotation)를 나타내기 위해 “th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또한 Fitzmyer처럼 그도 이 구절에 대한 직역을 제시한다.

“because not impossible will be every word(ῥῆμα) with God.” *The Birth of the Messiah: A Commentary on the Infancy Narratives in Matthew and Luke*(London: Geoffrey Chapman, 1977, rev. 1993), 292. 두 사람 모두 직역을 제시하면서 전치사 구를 “with God”으로 해석하고 있다.

6) 『개역 한글판』 성경에 이 단어는 “대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현대 독자들에게 분명하지가 않다. 국어 사전에도 이 말은 “헤아려 짐작컨대”, “무릇”등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한글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을 위해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대저”의 의미가 현대인에게 어려운 이유 때문인지, 『개역 한글판』에 112번 나타났던 이 단어는 『개역 개정판』에서 45회만 사용되며, 그것도 잠언과 이사야에서만 쓰이고 그 외에는 오직 한번 즉 1:37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없이 “왜냐하면”(because, since, for)으로 번역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번역본들 사이의 차이점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1) ῥῆμα의 의미; 2) 전치사 구 παρά τοῦ θεοῦ의 의미; 3) 동사의 시상의 번역; 4) 접속사 ὅτι의 해석.⁷⁾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연 어느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까운 것이며, 또한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여야 그리스어 원문에 더 충실하고 가깝게, 그 원 의미를 살려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본 논고의 목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절과 관련된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παρά τοῦ θεοῦ와 관련하여서 원문이 무엇이었는가를 결정한 후에 그 결정된 원문에 대한 올바른 문법적 번역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이 전치사 구문의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ῥῆμα의 의미를 밝히려고 시도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미래 동사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또한 문맥상으로 적합한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2. 몸통 글

2.1. 어느 구절의 암시인가?

2.1.1. 예레미야 32장 17절의 암시?

누가복음 1장 37절의 해석과 관련하여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이 구약 성경의 암시라는 사실이다. 『네슬-알란트 27판』(NA²⁷)의 옆 난외주(margin)에는 암시된 구절로 창 18:14가 제시되어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의 이 구절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고 믿는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J. Nolland는 누가

단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무릇”도 『개역 한글판』에서는 348번 사용되고 있으나, 『개역 개정판』에서는 106번만 사용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 두 단어의 대체 용어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7) 이 접속사의 의미는 너무도 분명하게 “왜냐하면”이므로, 특별한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접속사는 논의에서 제외된다.

8) F. Danker는 눅 1:37의 문장을 창 18:14의 의역(paraphrase)으로 간주한다(*Jesus and the New Age: A Commentary on St. Luke's Gospel* [Philadelphia: Fortress, 1988], 40). I.H. Marshall 또한 누가의 본문이 창 18:14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며(*The Gospel of Luke*. NIGTC [Exeter: Paternoster, 1978; rep. Grand Rapids: Eerdmans,

의 본문이 창 18:14가 아니라 렘 32:17의 히브리어 본문에 의존하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시도한다⁹⁾ 그의 논의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일 눅 1:37이 렘 32:17의 히브리어 원문을 암시한다는 그의 주장이 맞다면 예레미야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대조하며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논의를 풀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¹⁰⁾ 이럴 경우에 예레미야서의 문장의 구조와 의미가 누가복음의 의미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Nolland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렘 32:17의 히브리어 본문이 창 18:14의 본문(וְהָיָה לְךָ בְּנֵי מִטְהָרִים)보다 눅 1:37에 가까운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렘 32:17과 관련하여 그 구절의 마소라 본문(וְהָיָה לְךָ בְּנֵי מִטְהָרִים)이 창 18:14와 비교해 볼 때, 눅 1:37과 다음과 같은 유사점들을 드러낸다는 것은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 (1) 예레미야에 있는 문장은 누가복음에 있는 문장과 같이 직설법인 반면 창세기에 있는 문장은 의문문이다.
- (2) 부정사 οὐκ와 대명사 πᾶς의 위치는 정확하게 예레미야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 כִּלְכֵלִים와 כִּלְכֵלִים의 위치를 반영해 준다.¹¹⁾
- (3) 대명사 πᾶς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כִּלְכֵלִים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나타나는 반면에 창 18:14은 여기에 상응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의 문맥이 예레미야서의 문맥과 완전히 다르다는데 있다. 그래서 Nolland는 예레미야와 누가복음의 문장이 둘 다 금언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한발 뒤로 물러선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그 금언은 그리스어

1989], 72), F. Field는 누가의 본문이 “의심할 나위 없이 창 18:14(만일 그 구절의 인용이 아니라면)의 암시다”라고 단언한다(*Notes on the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9; rep. Hendrickson, 1994], 46). J. Jeremias는 1장 37절의 문장이 칠십인역 창 18:14의 자유로운 인용이라고 적고 있다(*Die Sprache des Lukas Evangeliums: Redaktion und Tradition im Nicht-Markusstoff des dritten Evangeliums*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0], 54). 이외에도 M. Wilcox의 *The Semitisms of Acts*(Oxford: Clarendon, 1965), 72, 각주 12를 보라.

9) J. Nolland, *Luke 1-9:20*. WBC 35a(Dallas: Word Books, 1989), 56.

10) 이 히브리어 본문은 칠십인역에서 렘 39:12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다. 렘 32:17이 암시구절이라면 논의는 온전히 히브리어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11) 이 그리스어 구문이 셈족어 구문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이것이 Semitism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한다. οὐ πᾶς는 고전 그리스어 표현으로서(BDF 302. 2) 부정어(negative)가 대명사와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두 단어가 떨어져 부정사가 동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 구문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Brown, *The Birth of the Messiah*, 292.)

가 아닌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다고 믿는다. 그는 어떤 경위로 이 본문이 쓰여졌던 간에 그 언어는 “셈족어적이며, 비-칠십인역적이며, 비-누가적”이라고 결론 내린다.¹²⁾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 이러한 주장을 더 분명하게 밝혀내는 학자는 Bock이다. 그는 렘 32:17의 מִנְיָן이, 소유격 명사를 가진 전치사 구문 παρά τοῦ θεοῦ에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여격이 아닌 소유격 명사의 사용은 누가 뒤에 있었을 수도 있는 셈족어 원본의 존재를 반영해 준다고 보며 따라서 이 표현은 누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추론한다.¹³⁾ 그러나, 눅 1:37의 문장이 렘 32:17의 문장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결정적인 것은 누가복음의 문맥이 예레미야의 문맥과 다르다는 것이며, 백 번을 양보해서 Nolland가 주장하듯이 그 내용이 금언이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정된 언어로 된 금언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다른 구절들이 동일한 사상을 위해서 다른 표현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보여준다(욥 10:13 [LXX]; 42:2; 렘 32:27; 숙 8:6[참조. 마 19:16]). 이것은 어떤 저자가 다양한 표현들 중에 하나를 자신의 문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치사 구가 예레미야서에는 אֶל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παρά τοῦ θεοῦ로 되어 있어서 함께 쓰인 명사/대명사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만일 누가가 구약의 어떤 구절을 암시하고자 했다면 문맥이 완전히 다르고 다른 전치사 구를 가진 예레미야 32:17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1.2. 창 18:14의 인용: 어느 본문에 의존했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눅 1:37이 창 18:14에 의존했는가 하는 것과, 의존했다면 그 의존한 본문이 히브리어 구약성경이었는지 아니면 그리스어 구약성경이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면 이 문장의 해석에 얽힌 문제의 흐름과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논의의 편의상 창 18:14의 칠십인역과 눅 1:37을 먼저 비교해 보면 두 본문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12) Nolland와는 대조적으로 J. Jeremias는 눅 1:37에 있는 문장이 누가에 의해 편집되었다고 믿는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그의 책 *Die Sprache*, 54를 보라.

13) D.L. Bock, *Luke 1:1-9:50*. BECNT(Grand Rapids: Baker, 1994), 126, 각주 49번. Nolland는 이 전치사 구를 설명하면서, 그 소유격 명사를 “셈족어적 소유격”(Semitic genitive)이라고 부르고 있다(*Luke 1-9:20*, 40).

14) 창 18:14의 칠십인역과 눅 1:37의 그리스어 본문을 먼저 비교하고, 뒤에서 창세기의 칠십인역 본문과 히브리어 본문을 비교할 것이다.

a) 둘의 주제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나이 많은) 여성의 기적적인 임신, 곧 창세기에서는 사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

b) 두 문장 모두 부정어(negative)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 부정적인 답을 기대하는 질문임을 나타내는 μή는 창세기에, 직설법을 위한 부정어 οὐ는 누가복음에 사용.

c) ἀδυνατέω 동사가 두 문장 모두에 사용되고 있으며,¹⁵⁾ 이 동사는 부정어와 연결되어 있다. 누가복음에는 οὐκ ἀδυνατήρει, 창세기에는 μὴ ἀδυνατέι.

d) 두 구절 모두 전치사 παρά와 명사 ῥήματα를 포함하고 있다.

e) 두 구절 모두 같은 명사 θεός를 전치사와 함께 쓰고 있다.

f) 두 문장의 기본 어순이 동일하다

[ότι] οὐκ ἀδυνατήρει παρά τοῦ θεοῦ πάντα¹⁶⁾ ῥήματα

μὴ ἀδυνατέι παρά τῷ θεῷ ῥήματα

따라서 눅 1:37은 문맥이 같을 뿐만 아니라 어휘도 유사한 창 18:14의 칠십인역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높다.¹⁷⁾ 그렇다면 창 18:14의 원본인 히브리어 구약과 칠십인역 번역의 차이는 무엇이며 누가의 본문이 둘 중의 어느 구약 성경에 의존하고 있는가? 본 논고의 논의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은 P. Winter의 주장이다. 그는 전치사 구의 용법을 근거로 하여 눅 1:37이 창 18:14의 칠십인역이 아니라, 마소라 본문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누가복음의 전치사 구문, παρά + 소유격의 해석은 “from God”이어야 하며, 이것은 칠십인역의 표현 παρά + 여격과는 뜻이 아주 다른 반면에, 마소라 사본의 전치사 구 표현(παρά)과는 그 의미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¹⁸⁾ 그가 제시한 영어 번역 세 문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5) Field에 따르면, 이 동사 대신 ἀσθενήσει나 ἀνεύρηγτον ἔσται가 쓰일 수가 있다. *Notes on the Translation*, 47. 동사 ἀσθενέω는 “약하다” “힘없다” 또는 “능력이 없다”를 의미하고, 형용사 ἀνεύρηγτον은 “활동하지 않는”(inactive) 또는 “효력이 없는”(inefficacious)을 의미한다.

16) Jeremias가 말한 대로, 누가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πᾶς를 덧붙인다(*Die Sprache*, 54). 따라서 누가는 자신의 개인적 문체의 취향을 따라 칠십인역 창 18:14의 문장에 이 대명사를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눅 6:10, 17; 8:52; 9:1; 18:22; 21:29에서 πᾶς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에 있는 이 구절들의 평행절들에서 πᾶς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17) J.A. Sanders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눅 1:37의 어휘(wording)이 칠십인역 창 18:14의 하늘에서 온 방문자에 의해 말해진 어휘를 반복(duplicate)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Isaiah in Luke”, *Interpretation* 36(1982), 149.

18) “Some Observations on the Language in the Birth and Infant Stories of the Third Gospel”, *New Testament Studies* ns. 1(1954), 116.

눅 1:37 “Nothing [that comes] from God(=that has been caused by God) shall be impossible”

창 18:14의 마소라 본문: “Is anything [coming] from God wondrous?”

창 18:14의 칠십인역 본문: “Not impossible is to God a thing”(or “A word by God is not void”)

위의 문장 비교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누가복음의 전치사 구문의 해석이 창세기의 마소라 본문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Winter는 이러한 관찰에 근거해서 누가의 문장이 칠십인역이 아니라 마소라 본문에 가깝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Winter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N. Turner는 우선 누가복음 본문과 칠십인역 본문 사이에 유사점들이 많음을 지적한다.¹⁹⁾ 그리고 나서 그는 창 18:14의 히브리어 동사 קָטַן 의 의미가 신 10:11과 렘 32:17, 27에서와 같이 “~에게 너무 어렵다”(to be too difficult for)라고 주장한다.²⁰⁾ 그에 따르면, 이 히브리어 동사가 칠십인역 창 18:14의 그리스어 동사보다 누가복음의 동사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주는 것은 아니다. 칠십인역의 번역은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를 잘 드러내 주고 따라서 그 문장의 의미를 잘 전달해 준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너무 어렵지 않다”(“nothing is too difficult for God”).

결과적으로, 누가복음의 본문이 칠십인역보다 마소라 본문에 더 가깝다는 주장은, 두 구약 본문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설득력이 없다.

2.2. 전치사 구 연구

2.2.1. 누가 본문과 칠십인역 본문의 차이

위에 언급한 Turner의 주장이 옳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곧 누가복음의 본문이 칠십인역하고는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두 본문은 다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누가의 본문이 구약의 인용이 아니라 구약의 암시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용에서조차도 문맥에 따라 그 인용된 본문을 바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암시에서는 더 손쉽게 문맥에 맞추어 내용을 바꿀 수 있다.²¹⁾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칠십인역의 이 두

19) 두 본문 사이의 유사점들에 대해서는 앞을 보라.

20) “The Relation of Luke I and II to Hebraic Source and to the Rest of Luke-Acts”, *New Testament Studies* ns. 2 (1955), 102.

본문은 서로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 Winter의 주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전치사 παρά가 여격을 취하느냐 또는 소유격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 전치사가 소유격과 함께 쓰이면 “~로 부터”(from)라는 의미로 쓰이고 여격과 함께 쓰이면 “~에게”(with 또는 for)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을 Turner 또한 부인하지 않는다. 『네슬-알란트 27판』 본문에는 이 전치사 뒤에 소유격 명사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구문을 거의 모든 영어 번역 성경들이 “with”로 번역한다. 한글 성경 중에서는 『개역 한글판』(개정판) 성경만이 “from”에 가까운 의미로 번역하고, 『표준 새번역』(개정판)은 영어 성경과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며 『공동번역』(개정판)은 의역을 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영어 성경들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소유격과 함께 쓰이는 전치사 παρά의 해석은 여격과 함께 쓰일 때와 같은 뜻을 가지므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일까?

BAGD에 따르면,²²⁾ 이 전치사가 소유격과 함께 쓰이면 “the one who originates or directs”를 의미해야만 한다.²³⁾ 그런데, 영어 성경번역들은 말할

21)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3장 5절의 구약인용에서 나타나는데 그 구절에서 인용되고 있는 구절인 이사야 40장 4절은 누가에 의해 문맥에 맞게 수정이 가해진다. 두 구절을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누가복음 3:5- ἔσται τὰ σκολιά εἰς εὐθείαν καὶ αἱ τραχεῖαι εἰς ὁδοὺς λείας·

이사야 40:4- ἔσται πάντα τὰ σκολιά εἰς εὐθείαν καὶ ἡ τραχεῖα εἰς πεδία

결정적인 차이는 밑줄 친 단어의 단수와 복수가 각각 쓰여졌다는 것이며, 이것은 누가의 작업이었음에 틀림없다. D.S. New의 주장대로, 누가의 본문은 “πάντα의 생략과 자신의 문체를 따라 αἱ τραχεῖαι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 있어 너무나 칠십인역에 가까워서 어떤 다른 자료를 사용했을 수 없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New의 *Old Testament Quotations in the Synoptic Gospels and the Two Document Hypothesis.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37(Atlanta: Scholars Press, 1993), 45를 보라. 또 다른 예가 행 3:22에 나타나는 신 18:15의 인용인데 그곳에서도 문맥에 맞게 인용된 구절이 변경되었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J.G. Steyn의 *Septuagint Quotation in the Context of the Petrine and Pauline Speeches of the Acta Apostolorum*(Kampen: Pharos Publishing House, 1995), 143-46을 보라.

22) BAGD는 다음 저서의 약자로서, 원저자, 번역자, 편집자들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으며 신약 서적에서 흔히 발견된다. W.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trans. W.F. Arndt & F.W. Gingrich; rev. F.W. Gingrich & F.W. Dank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1979).

23) 흥미롭게도, BAGD는 한편으로는 παρά와 관련하여 이 전치사가 소유격과 함께 쓰이면 “from”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설명하고(609쪽), ἄδυνατέω와 ῥῆμμα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눅 1:37의 전치사 구문을 “with God”으로 해석하고 있다.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각각 19쪽, 735쪽).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전치사가 여격과 함께 쓰일 때, 여격 홀로 쓰이는 것과 의미가 같음을 지적하면서(“~

것도 없고 한글 성경들 중에 개역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에 의존하여 번역한 것처럼 보인다.

1) 전치사 *παρά*는 여격과 함께 쓰이든 소유격과 함께 쓰이든 서로 같은 뜻을 갖는다고 보거나; 2) “하나님께는”(“with God” 또는 “for God”)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표현 *παρά τῷ Θεῷ*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사본들이 소유격 명사를 가진 사본들보다 더 믿을 만 하다고 보든지; 3) 명사 *ῥῆμα*의 의미에 대한 그들의 결정이 이와 같은 전치사 구의 해석으로 이끌었을 수가 있다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영어 번역본은 물론 한글 성경 가운데서 전치사 구를 “하나님께”로 해석한 『표준 새번역』은 이 명사를 “말씀”(word)이 아니라 “일”(thing)로 번역하고 있다. 또한 『표준 새번역』과 비슷한 의미로 의역한 『공동 번역』도 “일”로 해석하고 있다. 그 반면에 이 단어를 “말씀”으로 해석한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에는 전치사 구가 “하나님의”(말씀)라는 다소 모호하지만 그래도 “from God”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다.²⁴⁾ 그리고, 이 전치사 구는 『옛 미국 표준 번역본』(*Old American Standard Version*)에서 “from God”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ῥῆμα*는 “word”로 번역되어 있다. “For no word from God shall be void of power.”²⁵⁾ 또한 주석가들 중에서 J.B. Green도 분명하게 이 문장을 “For no word from God will be impossible”로 번역하고 있다.²⁶⁾ 이것은 이 명사의 해석이 전치사 구의 해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2.2. 전치사 구의 원문 결정

에게”), BAGD는 눅 1:37의 *παρά* + 여격을 지지하는 사본들의 독법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다(610쪽). 이것은 누가복음 본문의 해석의 미묘함을 드러내준다. BAGD의 새로운 개정판인 BDAG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ἀδυνατέω*(22쪽), *παρά* + 소유격(757쪽), *ῥῆμα*(905쪽).

24) “하나님으로 부터”라는 말은 출처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로 번역할 수 있다. BAGD의 전치사 *παρά* 항목의 I.4.b 항목을 보면 이 전치사 구문을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610쪽).

25) 이 본문을 *New English Bible*은 “for God’s promise can never fail”로 번역하고 있고, *Living Bible*은 “For every promise from God shall surely come true”로 적고 있다. 이 두 번역은 OASV나 아래에서 제시되고 있는 J.B. Green의 번역에 가깝다.

26) J.B. Green, *The Gospel of Luke*. NICNT(Grand Rapids: Eerdmans, 1997), 82. Green의 이와 같은 해석은 그가 이 주석을 위해서 *NRSV* 성경 본문을 사용하면서 본문 비평상의 문제나 번역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NRSV*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단순히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이 문장의 앞부분이 본문 비평적 입장과 번역상의 입장에서 볼 때 “no word from God”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내 비치고 있는 것이다.

전치사 구에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그 원문을 결정하는 일이다. 원문의 결정이 전치사 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믿을만한 사본들 중 몇 개는 『네슬-알란트 27판』의 $\pi\rho\acute{\alpha}\varsigma\ \tau\omicron\upsilon\ \theta\epsilon\omicron\upsilon$ 대신에 $\pi\rho\acute{\alpha}\varsigma\ \tau\tilde{\omega}\ \theta\epsilon\tilde{\omega}$ 라고 이 전치사 구를 기록하고 있다. 외적 증거(external evidence)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나 네슬 알란트 27판의 독법(reading)을 지지해 준다. $\kappa^2\ A\ C\ \Theta\ \psi\ f(1)\ 13\ 33$ 은 $\pi\rho\acute{\alpha}\varsigma\ \tau\tilde{\omega}\ \theta\epsilon\tilde{\omega}$ 를 지지해 주는 반면에, $\kappa\ B\ D\ L\ W\ \Xi\ 565\ pc$ 는 $\pi\rho\acute{\alpha}\varsigma\ \tau\omicron\upsilon\ \theta\epsilon\omicron\upsilon$ 라고 읽고 있다. 여격이 뒤따르는 전치사 구의 독법을 지지해 주는 사본들의 분포를 근거로 이 독법이 더 믿을 만 하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²⁷⁾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본 계통의 짝인 고대-알렉산드리아 계통의(Proto-Alexandrian) κ 와 B와 서방 계통의(Western) D가 소유격을 지지해 주므로, 외적 증거는 소유격의 독법을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내적 증거(internal evidence)는 더 분명하게 여격이 아니 소유격을 지지해 준다. $\pi\rho\acute{\alpha}\varsigma\ \tau\omicron\upsilon\ \theta\epsilon\omicron\upsilon$ 라는 전치사 구가 사본 필사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코이네(Koine, 또는 헬라시대[Hellenistic]) 그리스어에서 전치사 $\pi\rho\acute{\alpha}\varsigma$ 가 소유격 $\tau\omicron\upsilon\ \theta\epsilon\omicron\upsilon$ 와 함께 쓰이면 “from God”을 의미하는 반면에, 사본 필사자들은 문맥이 “with(또는 for) God”을 요구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마도 누가 본문의 의미가 전치사와 함께 쓰인 소유격에 의해 부자연스럽게 되었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전치사 $\pi\rho\acute{\alpha}\varsigma$ 가 LXX의 창 18:14에서와 같이 여격과 함께 쓰여야만 한다고 필사자들이 생각했을 가능성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독법을 선호하는 원 독법 판단 기준(lectio difficilior)과 평행 본문에 맞게 조화를 이루도록 고쳐졌을 가능성이 없는 독법이 더 옳다는 조화의 원리(canon of harmonization)²⁸⁾ 둘 다 $\pi\rho\acute{\alpha}\varsigma\ \tau\omicron\upsilon\ \theta\epsilon\omicron\upsilon$ 가 더 믿을 만한 독법임을 지지해 준다.²⁹⁾ 사본 필사자들이 $\pi\rho\acute{\alpha}\varsigma\ \tau\omicron\upsilon\ \theta\epsilon\omicron\upsilon$ 를 $\pi\rho\acute{\alpha}\varsigma\ \tau\tilde{\omega}\ \theta\epsilon\tilde{\omega}$ 로 고칠 이유가 없었던 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이유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함께

27) Bock은 그의 주석 *Luke 1:1-9:50*, 131에서 여격을 지지하는 사본들이 더 끌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여격이 틀림없이 원래의 본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28) “Harmonization”과 관련하여서는 G.D. Fee가 E.J. Epp과 함께 쓴 책, *Studies in the Theory and Method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Grand Rapids: Eerdmans, 1993)의 9장에 있는 G.D. Fee의 논문 “Modern Textual Criticism and the Synoptic Problem: On the Problem of Harmonization in the Gospels”, 174-82를 참조하라.

29) 이 부분의 본문 비평학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의 오랜 동료인 신현우 박사가 유용한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그의 호의에 진심어린 감사를 표한다.

παρὰ τοῦ Θεοῦ를 지지해 줌으로 παρὰ τοῦ Θεοῦ가 원 독법일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만일 원문이 παρὰ τοῦ Θεοῦ라면, 이 전치사 구는 “하나님으로부터”(from God)로 해석하여야 한다.

2.2.3. 전치사 구의 의미 결정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전치사 παρὰ는 여격과 함께 쓰이든지 소유격과 함께 쓰이든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Marshall은, 이 전치사가 소유격 Θεοῦ와 함께 쓰이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를 의미해야 한다는 Tasker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 전치사가 소유격과 함께 쓰일 때 “~에게”(for)를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Luke, 72). 그는 그 전치사의 의미가 너무도 유연해서 소유격 명사와 쓰여도 “for”를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예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³⁰⁾

더 최근의 주장은 Bock에 의해 제기되었다(Luke 1:1-9:50, 131). 그는 이 전치사를 둘러싼 논쟁에서 생기는 혼동의 원인이 명사 ἵμῶν의 이중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이 문장이 창 18:14을 반영해 줌으로 ἵμῶν가 이중 의미(double connotation), 곧 “말” 또는 “일”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כַּבֵּר의 번역이고, 따라서 전치사가 어떤 격의 명사를 취하든지 간에 이 문장은 동일하게 해석된다는 것이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그의 주장은 그 중심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 명사가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왜 전치사 παρὰ가 같이 쓰인 명사의 격에 상관없이 뜻이 같아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παρὰ가 소유격과 함께 쓰일 때 이중 의미를 갖는다면(“from”이나 “with”)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을 것이나 그는 명사 ἵμῶν의 이중 의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명사가 이중 의미를 갖는다 할지라도 전치사 παρὰ가 무슨 격을 취하든 상관없이 뜻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³¹⁾ 따라서 Bock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만일

30) S.E. Porter도 그의 저서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167에서 이 전치사가 소유격과 쓰이면 “from”을, 여격과 쓰이면 “with”를 나타낸다고 적고 있으며, 어떤 예외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1) Bock의 주장을 따라 두 종류의 문장을 비교해 보자. 먼저 여격명사인 것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 또는 “하나님께는 어떤 말씀도 불가능하지가 않다.”

누가가 창 18:14의 의미 곧 “Is anything impossible with God?”이라는 뜻을 전달하고자 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칠십인역에 있는 독법(reading)을 따랐을 것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전치사 παρά가 소유격과 함께 쓰이면 예외 없이 언제나 “from”을 의미했다. (눅 8:49; 행 2:33; 3:2; 7:16; 9:14; 10:22; 17:9; 20:24; 26:10; 28:22.)³²⁾ 그 반면에 이 전치사는 여격과 함께 쓰이면 언제나 “with”나 “for”를 의미했다. (눅 18:27; 19:7; 행 9:43; 10:6.) 이러한 사항 자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3-24장과 사도행전에서와 누가복음의 유아기 기사에서 그리스어의 용법이나 의미가 서로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눅 1:37에도 그런 예가 또 하나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명사 ῥήμα의 용법이다.³³⁾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칠십

이 두 문장은 히브리어 명사의 이중의미를 생각할 때, 서로 의미가 같으나, 이 두 문장과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서로 뜻이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불가능하지 않다.”

32) 전치사 παρά와 소유격 명사 θεοῦ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요한복음에서만 5번 나타나는데, 그 모든 곳에서도 이 전치사 구는 “하나님으로부터”(from God)라는 뜻을 갖는다(5:44; 6:45,46; 8:40; 16:27). 그 반면에, 이 전치사와 명사의 여격 θεῶ의 사용은 신약 전체에서 8번 나타나는데, 그 모든 곳에서 이 전치사 구는 “하나님께는”(for or with)이라는 뜻을 전달한다(막 10:27; 눅 1:30; 18:27; 롬 2:11,13; 9:14; 고전 3:19; 갈 3:11). 이 구절들 중에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누가복음의 두 구절과 마가복음에 있는 구절 그리고 롬 9:14이다. 눅 1:30의 예는 우리가 다루는 본문과 동일한 문단 안에 있기 때문이고, 나머지 세 구절은 그 내용이 우리가 다루는 본문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1:30은 뒤에 본문에서 다루어질 것이므로, 18:27을 보면 다음과 같다.

ὁ δὲ εἶπεν, Τὰ ἀδύνατα παρὰ ἀνθρώποις δυνατὰ παρὰ τῷ θεῷ ἐστίν.

그러자, 그가 말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들은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들이다.”

의미상 눅 1:37과 더 가까운 문장은 막 10:27에서 발견된다.

Παρὰ ἀνθρώποις ἀδύνατον, ἀλλ’ οὐ παρὰ θεῷ· πάντα γὰρ δυνατὰ παρὰ τῷ θεῷ.

사람들에게 (그것은)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롬 9:14도 유사한 뜻의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

μη ἀδικία παρὰ τῷ θεῷ.

하나님께 불의한 것들이 있는가?

이 모든 예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결코 “with God” 이나 “for God”이라는 의미를 위해서 παρὰ τοῦ θεοῦ를 쓰지 않고 παρὰ τῷ θεῷ를 썼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누가는 물론 모든 신약의 저자들이 이 전치사와 격의 사용을 분명하게 뜻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이 단어는 신약에서 나타나는 68번 중 누가복음 3-24장과 사도행전에서 24번 나타나는데 하나의 예(5:32)를 제외하고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인역의 영향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는 설명으로 쉽사리 해결된다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명사 **בְּרַב**를 칠십인역에서 번역할 때 그 이중 의미를 담기 위해 **ῥῆμα**를 사용했고 칠십인역의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는 누가복음의 유아기 기사에 그 영향이 나타나 있다고 보면 설명이 된다 하지만, 전치사 **παρά**의 경우는 소유격과 쓰여 “~에게”를 의미하는 용법을 설명할 길이 없다. 칠십인역은 물론 고전 그리스어 문헌에서도, 또한 그 어떤 그리스어 문헌에서도 이 전치사는 소유격과 함께 쓰여서 “with”나 “for”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 중에 하나는 창 18:14의 히브리어 본문이 누가로 하여금 소유격의 사용을 강요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본문이 칠십인역보다 누가복음의 본문의 의미에 더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Turner의 주장대로,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이 경우에 전치사 구 **παρά τοῦ θεοῦ**의 의미는 “with God”이 아니라 “from God”이어야만 한다.³⁴⁾ 누가 복음의 본문에서 전치사 **παρά**가 소유격 명사와 함께 LXX의 창 18:14의 여격 명사가 쓰인 전치사 구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쓰여졌다고 보기 힘들다 소유격과 함께 쓰여 “with God”을 나타내는 전치사 구문의 용법은 칠십인역과 더 중요하게는 고전 그리스어와 헬라시대(Hellenistic) 그리스어의 용법과도 틀리기 때문이다 고전 그리스어와 헬라시대 그리스어에서 이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소유격은 만일 그렇게 쓰인다면, 아주 드물게 여격 대신 쓰이기는 하지만 심지어 이 경우에도 그 의미는 “with”가 아니라 “by”나 “near”이다(Liddell and Scott, 1302). 게다가, 전치사 **παρά**는 누가복음 1-2장에서 1장 37절을 제외하고 네 번 사용이 되는데 그 예들에서조차도 여격과 함께 쓰이면 “with”나 “in the presence of”라는 의미를 갖고(1:30; 2:52), 소유격과 쓰이면 “from”을 의미하고 있다(1:45; 2:1). 다시 말해, 그 전치사가 소유격과 함께 “with God”을 나타내는 것은 누가복음 1-2장의 문체와도 틀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 사항들은 누가복음의 본문이 소유격과 함께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을 의미하기 위해 의도되었다는 주장을 가능성이 적게 만든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반면 유아기 기사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균등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아래를 보라.

34) Turner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를 보라. 역설적이게도 히브리어 본문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번역할 때는 “for God” 또는 “with God”이라고 번역한다.

1) 누가복음의 전치사 구는 본문비평학상 여격이 아니라 소유격 명사를 가지고 있다; 2) 그 경우에 전치사 구의 의미는 “from God”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누가 “with God”이나 “for God”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소유격 명사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3) 명사 ῥήμα가 이중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전치사가 소유격을 취하든 여격을 취하든 의미가 같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 것은 이 명사 ῥήμα가 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는 문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들은 이 단어를 “말씀”이 아니라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치사의 뜻을 그 단어의 뜻에 맞추는 인상을 준다 다시 말해 이 명사의 뜻이 “일”이므로,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로 문맥이 요구한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눅 1:37에서 과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

2.3. ῥήμα의 의미

신약 성경에서 68번 사용되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사도행전 이외의 책에서 쓰이면, 언제나 “말”을 의미한다. 물론, 이 단어가 마 18:16과 고후 13:1에 “일”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는 하지만(BAGD, 735쪽), 그 둘 모두 구약성경 신 16:15의 인용이다.³⁵⁾ 이 단어가 24번 나타나는 누가복음 3-24장과 사도행전에서의 이 단어의 용법은 어떻게 BAGD에 따르면, 이 단어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일”이라는 의미로는 행 10:37(단수)과 5:32 그리고 13:42(복수)에서만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들 중 첫 번째와 세 번째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일”이라기보다는 “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거나 최소한 “일”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³⁶⁾ 두 번째만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것은 셈족어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

35) 마 18:14를 번역하면서, KJV(NKJV포함)과 RSV(NRSV포함)는 이 명사를 “말”(word)로 번역하고 있는 반면에 NIV는 “일, 사건”(matter)라고 번역하고 있다. 또한 고후 13:1의 경우에는 KJV(NKJV포함)는 “말”(word)로 RSV(NRSV포함)는 고소(charge)로 해석하며, NIV는 “문제”(matter)로 번역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명사가 이 구절들에서 두 가지 의미를 다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36) 행 10:37에서 NIV를 제외한 모든 영어 성경은 ῥήμα를 “말”로 해석하고 있다. τὸ γινόμενον ῥήμα καθ’ ὅλης τῆς Ἰουδαίας. 성경 원문이 만일 『네슬-알란트 27판』에 있는대로 36절에서 관계대명사 ὅν(을)을 포함하고 있다면 36절의 τὸν λόγον을 이 명사가 동격으로 받는 것으로 보아, “말”로 해석해야 한다. γίνομαι동사는 소유격 명사와 쓰인 κατά와 함께 사용되어 “go, come”을 의미하며 이때 문맥에서 이 부분은 “the message that has spread throughout all Judea”를 의미한다(BAGD, 160).

도들과 유대인 공회와 대제사장과의 대화 속에 나오며 그 의미도 반드시 “일”은 아니고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 비록 “일”을 의미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만, 두 가지 뉘앙스를 다 가지고 있다. 어쨌든,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오직 한두 구절만 제외하고는 모든 구절에서 “말”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일”이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에도 “말”로 해석함이 가능하며, 문맥이 그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단어는 누가복음의 유아기 기사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까 유아기 기사에서 1장 37절을 제외하고 8번 나타나는 이 명사는 때로는 “일”(1:65; 2:15, 19, 51)을 의미하나, 이런 용법은 “말”이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들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1:38; 2:17, 29, 50). 주목할 것은 이 명사가 한 문단 안에 두 번 나타나고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할 때는 명확하게 설명된다는 것이다.

περὶ τοῦ ῥήματος τοῦ λαληθέντος “말하여진 말 [메시지]”(2:17)과 τὰ ῥήματα πάντα “이 모든 일들”(2:19). 2장 51절과 52절도 똑같은 차이를 드러낸다. τὸ ῥῆμα ὃ ἐλάλησεν αὐτοῖς “그가 그들에게 (말)한 말”(50절); πάντα τὰ ῥήματα(51절) “이 모든 일들”.

누가복음 1장 37절로 돌아와서, 이 명사는 바로 다음 구절인 38절에도 나타나며 둘 모두 어떠한 수식어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두 명사는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으며 38절에서 이 명사는 분명하게 “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찰은 저자인 누가가 두 구절에서 이 명사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도록 의도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물론, 명사 ῥῆμα가 37절에서 히브리어에 있는 이중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은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 단어는 2:17과 2:50에서와 같이 “일”보다는 “말”로 번역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전자는 “행위나 문제”의 측면에 강조점을 두는 반면에, 후자는 “메시지나 말하여지는 것”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문맥 역시 이 단어를 “말씀”으로 해석함이 더 타당함을 보여준다. 전치사 구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임이 분명하며, 명사 ῥῆμα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일”이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또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³⁷⁾

37) 미래 동사의 의미를 위해서는 아래를 보라.

문맥 속에서 더 자연스러운 것은 첫 번째 번역이다. 따라서 이 단어의 뜻은 여기서 “말”로 번역함이 더 타당하다. 눅 1:37의 전체 문장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because no word from God will be impossible [disabled/made void/ disempowered/ emptied of its power). 이러한 번역은 38절에 있는 명사 ῥῆμα에 의해 힘을 얻는다. 두 문장은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것처럼 드러난다.

37절: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8절: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이다”

이 두 구절에서 ῥῆμα는 말하여 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45절의 엘리사벳의 반응과도 잘 연결된다

45절: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리³⁸⁾”

다시 한번, ῥῆμα의 이중 의미를 인식하면서도³⁹⁾ 그 강조점이 “말하여 진 것”(message)에 놓여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4. 동사의 시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동사의 시제다. 모든 한글 성경은 미래 동사 ἄδουατήρει를 현재로 해석하고 있다. 그 반면에 모든 영어 성경은 이 동사를 미래로 해석하고 있다. 이 동사를 미래로 해석하느냐 현재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만일 현재로 하면 눅 1:37의 천사의 말이 엘리사벳의 잉태에 좀더 초점이 맞추어지고 미래로 하면 마리아의 잉태에 초점이 맞추어 지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 이 문장이 직접 받는 것은 바로 앞 구절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을 바로 앞의 엘리사벳의 잉태 사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인용되고 있는 창 18:14의 문맥도 나이 많아 임신하지 못

38) 이 구절은 『개역 한글판』과 개정판의 번역이 다르다. 접속사 ὅτι의 해석을 전자는 이유절을 이끄는 “왜냐하면”을 해석하고, 후자는 동사의 내용을 설명하는 절(영어의 “that”)로 번역하고 있다. 영어 성경도 둘로 번역이 나뉘어진다. 그리스어 문법상 두 번역 모두 가능하다.

39) 이 명사가 유아기 기사에서 갖는 이중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Brown의 *The Birth of the Messiah*, 405, 477을 보라.

하는 여성인 사라의 잉태에 관한 것으로 엘리사벳의 잉태에 대한 언급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다. 이 경우에 미래 동사의 사용은 어색해 보인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예를 들면, Porter는 이 미래가 시간 개념 없는 미래(timeless future)라고 설명한다.⁴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1장 36절의 엘리사벳의 잉태에 관한 내용은 마리아의 질문 곧 “이것이(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⁴¹⁾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것에 대해 천사 가브리엘이 대답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를 확증하기 위해 하나의 예로 엘리사벳의 잉태 사실이 제시되었을 뿐이지 그것이 천사의 대답의 중심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된 한 예에 불과하다 이것을 알아 보기 쉽게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마리아의 질문-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합니까?(34절)

천사의 대답- 성령이 임하실 것이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35절)

예 제시- 이것은 가능한데 그 증거로 나이 많아 아이가 없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36절)

대답의 결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냐하면”은 앞 구절의 엘리사벳의 노년의 잉태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아 마리아의 동정녀 메시아 잉태가 가능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1장 37절이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의 결론이라는 사실이 잘 뒷받침해 준다 천사는

40) *Verbal Aspect*, 421-22. 이런 식의 그의 논의는 강력해 보이지만, 동사 시제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제는 원래 시간개념이 없다고 설명하려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미래 시상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눅 1:37의 미래 동사 사용에 대해서는 K. Stock의 “Die Berufung Marias(Lk 1,26-38)”, *Biblica* 61 (1980), 484-85을 보라.

41) 자신이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윗 가문의 왕이 될 아들을 장차 잉태할 수 있느냐는 마리아의 이 질문은 수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27절에 따르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천사는 마리아의 잉태를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묘사(31절)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가 이런 질문을 했는가는 수수께끼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V. Taylor의 *The Historical Evidence for the Virgin Birth*(Oxford: Clarendon, 1920)와 Nolland의 *Luke 1-9:20*, 53-4과 Fitzmyer의 *Luke*, 348-50을 보라. 또한 논의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저서인 J.G. Machen의 *The Virgin Birth of Christ*(New York: Harper, 1930), 145-46을 보라.

35절 중간에서 시작된 대답에서 장차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할 것을 얘기하고 그 아이가 거룩한 자라고 불리울 것을 말한 후에 확신을 주기 위해 엘리사벳의 예를 든다 그리고 다시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돌아와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가능한 근거로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제시하며 끝을 맺는다. 그에 대한 화답으로 마리아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소서”(38절)라고 대답하며, 다시 한번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믿은 여자는 복이 있도다”(45절)라고 언급하므로 마리아의 잉태를 강조해 주고 있다.⁴²⁾

2.5. 작성 순서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창 18:14 LXX를 앞에 놓고, 혹은 마음에 두고, 누가는 그리스어 구약 성경을 자신의 문맥이 요구하는 까닭에 변형시킨다. 첫째로, 의문문은 직설법으로 바뀔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동사의 시제는 마리아의 미래 잉태를 강조하기 위해 미래를 요구했다. 누가는 그 문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도록 만들고 싶었으며, 이것은 그로 하여금, 창 18:14 LXX에 있는 $\pi\alpha\rho\acute{\alpha} \tau\omega \theta\epsilon\acute{o}\omega$ 를 $\pi\alpha\rho\acute{\alpha} \tau\omicron\upsilon \theta\epsilon\acute{o}\omega$ 로 바꾸게 만들었다. 그는 여기서 명사 $\rho\acute{\eta}\mu\alpha\tau\alpha$ 에 의해 “말”이라는 의미를 의도했는데, 그 이유는 그 천사가 요한의 탄생(1:13)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둘 다를 말로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행 10:22에서 $\rho\acute{\eta}\mu\alpha\tau\alpha \pi\alpha\rho\acute{\alpha} \sigma\omicron\upsilon$ 가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말씀”(words from you)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 하다.

3. 맺는 말

본 논고는 누가복음 1장 37절의 올바른 번역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전치사 구 $\pi\alpha\rho\acute{\alpha} \tau\omicron\upsilon \theta\epsilon\acute{o}\omega$ 의 올바른 해석에 있음을 발견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본문 비평을 통해 그 전치사 구의 원문을 결정했다. 전치사 구와 관련해 『네슬-알란트 27판』에 있는 본문이 원문에 가까운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그럴 경우에 이 전치사 구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로 쓰여야 한다. 논의의 최저 선은 누가가 이 전치사 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with God” 이나 “for God”)라는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을 까닭이 없다

42) Green, *The Gospel of Luke*, 91-2.

는 것이다. 그리고 명사 $\rho\eta\mu\alpha\varsigma$ 가 이 본문에서 “말”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동사의 시제와 관련하여서도 구태여 누가 미래를 써서 현재를 나타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과 따라서 누가의 미래 사용은 의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누가가 마리아의 미래 메시아 잉태를 가리키기 위해 일부러 사용한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누가복음 1장 37절의 문장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because no word from God will be impossible)로 번역해야 함이 마땅하다. 개별 학자의 주석에서 이 구절을 설명하며 다른 번역과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가능하나, 성경 번역에서는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확실한 반증이 없는 한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놓고 번역,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본문의 문법적 현상들을 그리스어의 관점에서 우선 설명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표준 새번역』(개정판)이나 『공동 번역』(개정판)과는 달리 『개역 한글판』(개정판) 성경의 번역은 눅 1:37의 원문의 뜻을 대체로 잘 드러내 주고 있으며, 다만 접속사의 해석과 동사의 시제의 번역은 본 논고에서 살펴본 것에 근거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참고 문헌

- Bauer, W.,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rans. W.F. Arndt & F.W. Gingrich; rev. F.W. Gingrich & F.W. Dank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1979).
- Blass, F. and A. Debru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trans. et ed. by Robert Fun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Bock, D.L., *Luke 1:1-9:50. BECNT* (Grand Rapids: Baker, 1994).
- Brown, R.E., *The Birth of the Messiah: A Commentary on the Infancy Narratives in Matthew and Luke* (London: Geoffrey Chapman, 1977, rev. 1993).
- Danker, F., *Jesus and the New Age: A Commentary on St. Luke's Gospel* (Philadelphia: Fortress, 1988).
- Fee, G.D. and Epp, E.J., *Studies in the Theory and Method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Grand Rapids: Eerdmans, 1993).
- Fitzmyer, J.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Anchor Bible* (Garden City: Doubleday, 1981, 1990).
- Field, F., *Notes on the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9; rep. Hendrickson, 1994).
- Green, J.B., *The Gospel of Luke.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7).
- Jeremias, J., *Die Sprache des Lukas Evangeliums: Redaktion und Tradition im Nicht-Markusstoff des dritten Evangeliums*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0).
- Liddell, H.G. & Scott, R., *A Greek-English Lexicon* (rev. by Jones, H.S; rep. of 9th ed.; Oxford: Clarendon, 1958).
- Machen, G.J. *The Birth of the Messiah* (New York: Harper, 1930).
- Marshall, I.H., *The Gospel of Luke. NIGTC* (Exeter: Paternoster, 1978; rep. Grand Rapids: Eerdmans, 1989).
- New, D.S., *Old Testament Quotations in the Synoptic Gospels and the Two Document Hypothesis.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37* (Atlanta: Scholars Press, 1993).
- Nolland, J., *Luke 1-9:20. WBC 35a* (Dallas: Word Books, 1989).
- Porter, S.E.,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Sanders, J.A., "Isaiah in Luke", *Interpretation* 36 (1982).

Steyn, J.G., *Septuagint Quotation in the Context of the Petrine and Pauline Speeches of the Acta Apostolorum* (Kampen: Pharos Publishing House, 1995).

Stock, K., "Die Berufung Marias (Lk 1,26-38)", *Biblica* 61 (1980).

Taylor, V., *The Historical Evidence for the Virgin Birth* (Oxford: Clarendon, 1920).

Turner, N., "Some Observations on the Language in the Birth and Infant Stories of the Third Gospel", *New Testament Studies* ns. 1 (1954).

_____ "The Relation of Luke I and II to Hebraic Source and to the Rest of Luke-Acts", *New Testament Studies* ns. 2 (1955).

Wilcox, M., *The Semitisms of Acts* (Oxford: Clarendon, 1965).

<Abstract>

The Original Text and Translation of Luke 1:37

Chang-Wook Jung

The Greek sentence in Lk 1:37 of NA27, ὅτι οὐκ ἀδυνατήσει παρὰ τοῦ θεοῦ πᾶν ῥῆμα, is translated by the vast majority of English and Korean versions of the Bible as follows: “Since (because or for) nothing will (shall) be impossible with God.”

The issue centers on the translation of the prepositional phrase παρὰ τοῦ θεοῦ, which means “from God.” The above translation of most versions seems to rest on two elements: 1) the preposition παρὰ with the genitive, which means “from”, has the same meaning as with the dative, which means “with”, or Greek variants containing the phrase παρὰ τῷ θεῷ, which may mean “with God”, are reliable; and 2) the translators’ decision as to the meaning of ῥῆμα results in that translation. All of them understand the noun as “thing”, and not “word”; they seem to suppose that the sentence “nothing from God will be impossible” does not make good sense. It is also noteworthy that some of the English versions and all of the Korean translations interpret the future tense of the verb to convey present time.

This study argues that the prepositional phrase in Lk 1:37 of NA27, παρὰ τοῦ θεοῦ, is the original reading and the phrase should mean “from God.”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meaning of the noun ῥῆμα is to be “word” rather than “thing” in this verse and that the future tense refers to future events. Thus, the sentence in Lk 1:37 should be translated as “No word from God will be impossible (disabled/ made void/ disempowered/ emptied of its power).”

Bible Translation in the context of Scripture Engagement

Aloo Osotsi Mojola*

1. Introduction:

For a long time the Bible Societies have placed an emphasis on the **Bible as the source and tool of mission** and the concomitant imperative to make it accessible.

We can see this in the “Hakone formula” formulated at a UBS council meeting held in May 1963 in Hakone, Japan.

A Bible for every Christian home;

At least a New Testament for every Christian;

At least a portion for all who can read and for every new literate;

An opportunity for every church member to share in local Scripture distribution. (see Edwin H. Robertson, **Taking the Word to the World 50 Years of the UBS**, p97)

This formula dramatically captured the vision of the Bible Societies to bring the Bible or part thereof within reach of everyone worldwide in a language each could understand and at a price each could afford. At various UBS world assemblies held every 8 years and recently after 4 years, this vision was reinforced by means of other captivating slogans. Here are a couple-Hakone, Japan 1963 & Addis Ababa, Ethiopia 1972 Assembly **God’s Word for a New Age.**

* United Bible Societies, Nairobi, Kenya. Presentation to be given at the Korean Translation Workshop in Seoul, Korea, February 2003.

Chiang Mai, Thailand, 1980 Assembly **God Word :Open for All.**

Budapest, Hungary, 1988 Assembly **God's Word: Hope for All.**

Mississauga, Canada 1996 Assembly- **God's Word: Life for All.**

Midrand, South Africa 2000 Assembly- **God's Word: Light for the World.**

These slogans were carefully chosen to underscore the supreme importance and primacy of the Bible or God's Word in the life of all, everywhere. The dominant concern of the Bible Society movement since the beginning at least since the founding of the BFBS in 1804 has been the challenge to make God's Word available to all God's people everywhere. This is really the challenge of Christian mission. The need for Welsh Bibles dramatized by the popular Mary Jones story and captured in the memorable words "And if for Wales, why not for the Kingdom, and if for the Kingdom why not for the whole world" was one of the original impulses of this global missi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without the rise of the modern missionary movement and the Gutenberg revolution, all with beginnings around the same time, the history of the Bible Society movement and the translation and availability of Bibles around the world would have been different. It is evident too that without the availability of the Bible, the history of the missionary movement and of Christian outreach would have been vastly different.

As is well known the original texts of the Bible employ languages very few can read and understand. Thus for example, the original text of the New Testament was originally written in the Koine Greek spoken at the time of Jesus and the Apostles, while the original texts of the Old Testament were originally written in the ancient Hebrew tongue, except for a few chapters in the books of Ezra (4.8-6.18, 7.12-26) and Daniel (2.46-7.28) which are in ancient Aramaic a cognate of ancient Hebrew. We can see from this that **availability** does not necessarily imply **accessibility**. The challenge of accessibility is the impetus behind the challenge of **translating** the Bible in **languages** people can understand, at a **price** each can afford, in appropriate **formats** or **media**. The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is inseparable from that of Bible translation in the various

languages of the world wherever churches have been planted. Without the important work of Bible translators, very few people would have access to the Bible. The vast majority of Bible readers can only gain access to the Bible in translation, that is, in a language they can understan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erefore that for most people the translated Bible is their only access to the Word of God. Some even forget that the revered King James Version/Authorized Version of the Bible in English is also a translation. Everyone is thus indebted to Bible translators for their faithful and indefatigable labours.

It should be noted here in passing that the Bible in translation has motivated the invention of alphabets and orthographic systems for languages that previously had no writing system at all. In the process through translation and the production of literary materials, Bible translation has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revitalization and even preservation of languages under threat. Similarly it has contributed to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national languages and literatures. Dictionaries, grammars, the dissemination of local knowledges as well as the transmission of cultural values and the spread of the new faith.

[According to UBS records as at December 31, 2001, of the 2000 or so languages spoken in Africa at least 641 had a part or the whole Bible in translation. Of these 149 had the Bible, 279 had the New Testament and 213 had a portion (usually single biblical books, such as a Gospel) in translation. Globally of the 6000 or so languages spoken in the world, 2287 had at least a part or the whole of the Bible in translation. Of these 392 had the Bible, 1012 had the New Testament and 883 a portion in translation. If we turn to Bible distribution figures around the same time (i.e between November 1, 2000 and October 31, 2001) representing the Scripture Distribution by the Bible Societies and Bible Society offices (which form the United Bible Societies) excluding distribution figures by other publishers we have the following: In Africa 2,909,882 Bibles, 564,481 New Testaments, 1,375,838 Portions, 844,541 New Reader Portions (translations at a simple to read language level), 6,771,878 Selections (smaller pieces of the biblical text) and 192,751 New Reader

Selections were distributed. In Kenya during the same period 164,535 Bibles, 9,739 New Testaments, 13,485 Portions, 15,843 New Reader Portions and 233,858 Selections were distributed. Worldwide 23,210,404 Bibles, 19,029,747 New Testaments, 20,397,962 Portions, 12,084,008 New Reader Portions, 443,436,778 Selections and 37,396,552 New Reader Selections were distributed during the same period. From the above statistics it is clear that the consumption/availability of Bibles in Africa is fairly high. There are of course still so many who have no access to the Bible in any language or in any format.]

The task remains unfinished. Yet it has increasingly become clear that the challenge is not merely that of **availability** or of **accessibility** but of Bible use, of obedience to its eternal and ever relevant message and doing or living out of its message in everyday life. The challenge is to have the message of the Bible, God's Word, penetrate and transform every human institution, every community, every family and the every day life of every individual - to the praise and glory of God. The starting point therefore is the use to which the Bible is put.

2. The Place and Use of the Bible:

Until very recently the Bible Societies have expressed their common task as consisting in promoting "the widest possible effective distribution of the Holy Scriptures in a language which can be easily understood and is faithful to the original texts, without doctrinal note or comment, at an affordable price and appropriate format."

Bibles have been made available in various formats to meet several tastes, or in various media to cater to various needs. For example, for the blind the Braille format of the Bible is available in numerous languages. For non readers, preliterates, illiterates or those who prefer the audio medium, the Bible is now available in a number of languages on cassette or CD, while for those who prefer the audio visual media or film, the Bible is now increasingly being put to this form the Jesus Film or the

Visual Bible now available on video or DVD are just two of many examples of the Bible in this media form.

These innovations may all be interpreted as attempts to make the Bible available and accessible in convenient, appropriate and usable formats as part of the task of “achieving the widest possible, effective and meaningful distribution of the Holy Scriptures...” The **big question** still remains whether when these products reach their intended or target audiences they are put to good use or to their intended use? Do they also end up in some obscure corner or displayed in some conspicuous location in homes left to gather dust or to be merely enjoyed by the eye?

At the Mississauga World Assembly, September 26-October 3, 1996, (see UBS Bulletin 178/179,(1997)) one of the key international speakers, Dr Melba Maggay of the Philippines, a lecturer i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reminded the audience that:

“the major problem confronting many countries today is not the Bible’s **accessibility** but its **significance**, its perceived **relevance** to contemporary life. That biblical literacy is going down even among churchgoing people is indicative of the need to get the Bible read, presented in a form that can compete with the daily newspaper in its potential for attracting readership. This means that national Bible societies should work at producing texts that are not only **digestible** but also speak quite pointedly and prophetically to relevant social issues or major culture themes that need to be addressed from the Word”

(UBS Bulletin,178/179:36)

Another key speaker, Bishop Ole Christian Kvarme of Norway, addressing the challenge of the global village, identified:

“..two basic challenges- the **accessibility of the Bible, and its significance and relevance for contemporary life**” (ibid.45).

He posed the question: “**How can the Bible penetrate and transform the culture of tomorrow?**” (p49). He talked of the need of

“**providing necessary helps which stimulate the oral and visual**

communication of the biblical text as well as interaction with the biblical story”

At the Midrand World Assembly, October 10-14, 2000, (see UBS Bulletin 192/193 (2001)), the above UBS mission statement was slightly modified to read:

“achieving the widest possible, effective and meaningful distribution of the Holy Scriptures in languages and media which meet the needs of people worldwide in translations that are faithful to the Scripture texts in their original languages, and which communicate the biblical message at prices people can afford and of helping people interact with the Word of God”.

The last line which speaks of “helping people to interact with the Word of God” is what is really new. This addition has in mind the idea of encouraging people to **engage** with the Word of God, or **encounter** the Word of God. Distribution of Bibles is seen as important but not enough. Accessibility too is admitted to be important but not enough. Bibles have already been translated in a number of languages, and are made available through Bible Society channels as well as that of other agencies. Indeed many people everywhere, including Africa, now have a Bible or even several Bibles in their homes; and in translations in languages they can understand. In many homes or private family libraries, Bibles slowly gather dust and are hardly opened for family or personal Bible reading or study. The question of availability is important but for reasons of encounter or engagement and transformation.

Some representatives of the UBS at a meeting held in 2001 understood the idea of **Scripture engagement or encounter** to emphasize **“making the Scriptures discoverable, accessible, and relevant,”** i.e. **“recoverable and discoverable as sacred Scripture”** and **“accessible as the place of life enhancing and life transforming encounter”** as well as relevant to people in their real life situations and experiences. There is a clear need in our present circumstances for people to acknowledge, to affirm, to celebrate once again the Holy Scriptures as God’s Word, to

recognize and accept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Holy Scriptures, to turn to them as God's Word, as inspired and as relevant to the needs of today, as speaking relevantly to contemporary issues that affect the everyday life of individuals and of diverse communities in our midst and around the world. The Church needs to affirm its belief in the liberative and transformative power of Scripture and its indispensability to the life of the believer and of the church.

There is no doubt that the Bible squarely belongs within the confines of the Church. The Bible is the possession of the Church and serves the Church. This is the very reason why the Bible Societies cannot but continually seek to carry out their task in "partnership and co-operation with all Christian churches and with church related organizations". It is impossible to do it otherwise. The Bible is the foundation document of the Church, its guiding document, its compass point. Without this living Word there would be no reliable basis for Christian identity, no sure basis for the moral and doctrinal teaching of the Church. No sure foundation for Christian mission and outreach.

The Bible has from the very beginning played a key role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as well as in the daily life and work of Christian communities throughout the ages. It is inextricably linked to church growth and the expansion of the church and to periods of growth and renewal. In times of crisis, war, tyranny, persecution the Bible has been the one indispensable book believers as well as those on the margins of the Christian faith community turn to. It has proved itself many times over to be a source of encouragement, comfort, hope, courage, etc.

The role of the Bible in evangelism is widely recognized. No evangelist would dream of sharing the Gospel without their Bible or any referenceto its authoritative message. No street preacher, house to house evangelist, church preacher or communicator of the Word of life would dare do so without their Bible. It is like going to do battle without one's weapons. As Arthur Mitchell Chirgwin, a former General Secretary of the London Missionary Society and former UBS Research Secretary observed regarding evangelism "Again and again, and in country after country, the line of

church expansion has been that there was first a Bible, then a convert, then a Church. In cases without number the Bible begins the process. It is the main factor first of all in winning the individual to Christ, and then in his hands, it becomes the main means of bringing a worshipping community into existence". Moreover for Chirgwin: "The Bible more than anything else, brings a man to a decision. It seems to be able to do what private conversation, preaching, and personal counseling often fail to do. It supplies something which pierces through a man's defence and gets right home to his heart and conscience."

David Barrett, a former Anglican chaplain at the University of Nairobi in the late 60s and early 70s, makes a similar point in an article: "The Spread of the Bible and the Growth of the Church in Africa" (UBS Bulletin, 1982, No.128/129:5-18) in which he has African Christianity especially in mind. There he writes as follows: "The role of vernacular translations of the Christian Scriptures in this growth of organized Christianity has been very marked. The Scriptures have motivated the planting of Christianity in Africa at every stage; they have directly caused its expansion in countless regions; they have produced the strong and mature churches which we now observe in most parts of the continent, and they have nurtured them throughout" (p6).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Bible in revitalizing worship and liturgy is well acknowledged in most churches. In fact lively worship and liturgy draws heavily from it. It plays a key role in fostering close christian fellowships through common Bible study, reflection and mediation.

3. Bible Translation for Scripture Engagement:

Perhaps the idea of Scripture Engagement is not all that new. It could be argued that Nida's dynamic equivalent translation theory rests on some idea of Scripture encounter or engagement. Nida's early experiences and work in translation were based on extensive work and collaboration with missionaries in non-Christian lands. Thus his 1947 text **Bible Translating**

an Analysis of Principles and Procedures with special reference to aboriginal languages opens with the sentence “This book has been prepared to assist missionaries...”(p1) and is well known missionaries of all people are expected to place encounter with the message of the Bible at the top of their agenda. Nida’s involvement in Bible translation was certainly driven by missiological and missionary concerns, namely to make the message of the Bible available to people everywhere with the aim of winning them to the Christian cause. This is what moved Nida. At page 21 he writes: “In many instances missionaries have fallen into the habit of using a specialized vocabulary and the people at the mission station have learned to mimic it to perfection, so that the translation may seem perfectly understandable to this small group but quite inadequate for more extensive distribution and use. Non-Christians may not understand all of the Bible, but it should make some sense to them. The real test of the translation is its intelligibility to the non-Christian, who should be reached by its message”. Nida was concerned about the effects of the translation and about its being understood by all, especially the non-Christian. Similarly Nida was concerned that the Bible should serve the entire church and not just some section of it. He preferred that in cases where there was groups differed “an interpretation not contradictory to the exegetical position of any Christian constituency on the field”(p22) was to be preferred. At the same page 21 of the above book he wrote: “The Bible is the heritage of the entire church and should not be made the means of propagandizing one’s own special theories of interpretation”. The reasoning behind this may be the possibility that it provides for a wider acceptance of the new translation and hence likely to have more impact. Nida’s theory of translation was developed with these aims in mind.

“Dynamic equivalence in translation is far more than mere correct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In fact one of the most essential and yet often neglected elements is the expressive factor, for people must also feel as well as understand what is said.” (Nida and Taber 1969:25). In fact for Nida “ultimately the adequacy of the translation must be judged in terms of the way people respond to it” (ibid.24) The point here is that the

translation was to be such that it evoked a response, feedback, or in modern jargon engagement or encounter.

It is the zeal and concern to make the Good News of Jesus accessible to all that is the motivation behind the modern Bible Society movement. Mission and evangelism were the watchwords at the center of this movement, of which we are a part. We cannot therefore understand Nida for example, without understanding his missiological agenda. Nida placed linguistic science at the service of the Gospel and of Bible translation. In the contemporary period, Bible translators no doubt face the same challenge. A leading translation scholar, Douglas Robinson (1991:225-226) calls Nida a subversive, in the sense that he set out to dethrone the popularity of Bible versions which did not any longer make sense to the ordinary person, versions whose words may be English but the grammar is not, “and the sense is quite lacking”(Nida 1964.20-21), versions such as the American Standard Version. Robinson writes as follows:

“One of the best-publicized recent subversions of the KJV/RSV hegemony was Today’s English Version in the mid-sixties best publicized because one of its prime movers was the prolific and persuasive Eugene Nida, translation consultant to the United Bible Societies and the foremost theorist of sense-for-sense and response-for-response Bible translation in our day. It may seem strange to call ‘subversive’ a man who upholds the Bible translation principles of Jerome and Luther but in fact he is as subversive as Jerome and Luther, who similarly burst upon a scene dominated by rigidly fixed expectations and smashed them” (op.cit.p225).

Robinson notes that these fixed expectations and the conviction of some conservative readers that there is one and only one correct Bible translation or version which “they read, or were read to out of, in their childhood” (ibid.), and which is perhaps memorized, tends to become a “nostalgic locus of emotional stability and security”. This kind of translation ceases to communicate. It becomes a tranquilizer. Hence writes Robinson:

“Obviously if the translator wants to *reach* his or her TL reader, to be the instrument not of anesthesia but of conversion, a vehicle not of spiritual death but of awakening, rebirth, new life, there has to be something striking in the translation, something to catch the reader’s attention which is to say, something subversive. To convert, one must subvert. This is obviously true if one is speaking to nonbelievers; but it is also true if one is speaking to believers who are staid in their ways. Wake up, you Pharisees!” (op.cit.226)

Robinson concludes by correctly noting that Nida “directs the Bible Society’s subversion at the average Bible reader, the ordinary reader, the fourth-grade reader for whom newspapers are written”(ibid.).

The leaders of the Bible Society movement meeting at Midrand in 2000 did not therefore actually introduce a new idea. Their aim was to intensify this idea, to diversify it, to find ways of implementing it in the diversity of situations where the Bible Society is actively involved.

The Direction from Midrand commits members to advancing and enhancing the common task in a world “in which around 300 million people speak languages which lack any published portion of God’s Word, one half of the world is functionally non-literate, a majority of the citizens are classed by the United Nations as ‘absolutely poor’ and millions are subject to the pressures of religious fundamentalisms or tempted by the powerful voices of a revived paganism” and moreover where “many Scriptures already distributed are often inadequately used. In this context those at Midrand committed themselves to:

▷**Produce scriptures in a format that will encourage people to read or otherwise encounter God’s Word** with special attention to groups concerned with specific issues (such as youth, family and poverty) and situations (such as AIDS and natural disasters) and available in all formats, including non-print media.

▷**Create new products that encourage people to understand and engage personally with Scripture**

▷ **Look for ways in which we can work with others in holistic programs**, serving the whole person, recognizing our unique contribution of bringing the Word of life and Hope to people in need.

▷ **Develop appropriate biblical materials for non literate people and new readers.**

4. The Challenges on the Road Ahead:

Contemporary Bible translators are not treading an entirely new path. It is clear that Eugene Nida and his colleagues have cleared the path and laid a firm foundation for the challenges of today. It is true that there have bee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translation studies which are bound to contribute to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translation task, process, tools, techniques, etc. The emphases made at Midrand regarding interconfessional cooperation and sharing of resources (skills, gift, insight, experience and finance), strategic partnerships, encouragement of positive change in the domains of governance and leadership structures, funding frameworks,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instruments for evaluating effectiveness and relevance, etc. should hopefully make a difference in meeting the enormous challenge.

The **Direction from Midrand** makes it clear that the task ahead is not only unfinished but has expanded, greatly diversified and become much more complex, requiring a greater sensitivity and expertise. Midrand has recognized the great diversity and pluralism in the audiences we deal with. During the Nida era the aim was to produce common language translations in all major languages. Presently the emphases is on recognizing the many unmet and urgent Scripture needs out there. These in turn call for a diversity of texts or translations in relevant media and formats answering to the perceived needs. For example Scriptures created specifically for liturgical use, evangelistic use, pedagogical/educational use in churches, seminaries, colleges, schools, etc are recognized in many situations as a need. Scriptures intended for specific audiences such as youth, children,

people of diverse religious/cultural traditions, theological students, pastors, etc will need to be considered in response to audience and market demand. In addition a variety of study helps for readers will need to be considered to help readers understand better the source text cultures such as those that provide explanations of key terms, obscure customs and practices, historical backgrounds to places, events, geographical backgrounds to places, itineraries, battles, etc, biographical backgrounds to persons, etc.

A number of key decisions will become necessary at the beginning of any translation or product development planning exercise. For example it will become necessary to decide on the primary skopos/brief/expected function and use of any such product, decide on the primary intended audience for such a product (eg youth, women, children, non-christian, average person, etc., decide on the language level and type, dialect, medium to be used print, non-print, audio, audio visual, multi media, etc. The confessional status of the product may also become an issue. The preference is for interconfessional products but there will certainly be room for products whose primary target audience are from a single confession or a few confessions sharing certain characteristics. Clearly it will now no longer be possible for translators to commence any translation effort without thinking through these issues and making certain choices.

The challenges ahead are tough and call for a greater commitment, professionalism and higher level skills from translators. Translators are however not on their own. Their work is a ministry of the Church and done from that context. With adequate support and availability of necessary resources from the churches the burden will be made lighter. In the final analysis the work is God's and He will see to it.

성서와의 만남을 추구하는 성서 번역¹⁾

알루 모졸라*

1. 서론

성서공회는 오랫동안 성서를 선교의 재료이자 도구라고 강조하였고 그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성서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우리는 이 점을 1963년 5월 일본의 하코네(Hakone)에서 열린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나온 “하코네 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 성경전서 한 권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어도 신약성서 한 권을,
글을 아는 사람들과 새로 글을 배우는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성서
단편 하나를,
모든 교인들이 자국어 성서를 반포하는 기회를.

(Edwin H. Robertson, *Taking the Word to the World: 50 Years of the UBS*, 97쪽)

이 선언은 성경전서나 단편을 세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싼 값으로 반포하겠다는 성서공회의 비전을 아주 잘 드러낸다. 8년마다 열린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세계대회가 요즘은 4년마다 한 번 씩 열리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표어를 첨가하여 이 비전을 더 강화하였다. 다음은 그 예이다.

1963년 일본 하코네 대회와 1972년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대회

-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1980년 태국 치앙마이 대회 -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

1988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 -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의 희망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프리카 지역 번역책임자, 케냐 나이로비.

1) 2003년 2월 “성서 번역자 양성을 위한 세미나”의 두 번째 발표.

1996년 캐나다 미시소가 대회 -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의 생명**

2000년 남아프리카 미드랜드 대회 -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빛**

이 표어는 성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나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주의 깊게 선택한 것이다. 1804년 영국성서공회가 설립된 이래 처음부터 성서공회운동의 주요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나 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실로 그리스도교 선교의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웨일(Welsh)어 성서의 필요성을 드라마로 표현한 메리 존스(Mary Jones)가 한 유명한 말은 이 세계적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드러낸다. 곧 “[성서를] 웨일스인에게 줄 수 있다면 왜 영국에게 줄 수 없으며 영국에게 줄 수 있다면 왜 세계에게 줄 수 없겠는가(And if for Wales, why not for the Kingdom, and if for the Kingdom why not for the whole world)”하는 점이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근대 선교 운동의 등장과 구텐베르크 혁명이 없었더라면 세계 전역에서 성서공회운동의 역사와 성서의 번역과 반포가 달라졌으리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성서가 없었더라면 선교 운동사와 그리스도교 복음 선포가 상당히 달라졌으리라는 것도 자명하다.

알다시피 성서의 원문은 일반인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씌어져 있지 않다. 신약성서의 원문은 예수와 사도 시대에 상용된 코이네 그리스어로 씌어졌고, 구약성서의 원문은 고대 히브리어로 씌어졌다. 고대 히브리어의 인접어인 아람어로 씌어진 에스라서(4.8-6.18, 7.12-26)와 다니엘서(2.46-7.28)의 일부를 빼고 말이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성서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하려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저렴한 가격에 적절한 형태나 매체를 통하여 성서를 내놓아야만 한다. 그리스도교 선교의 역사는, 교회가 생겨난 곳은 어디서나 세계의 수많은 언어로 번역된 성서번역의 역사와 떼어놓을 수 없다. 성서 번역자들의 노력이 없다면 극히 적은 사람들만이 성서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성서를 읽는 대부분의 독자는 번역된 성서, 곧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성서를 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은 번역 성서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제임스왕역(KJV) 성서가 번역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지칠 줄 모르고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성서 번역자들에게 빛을 지고 있는 썸이다.

번역 성서는 이전에 글자가 없던 언어에 알파벳 철자 체계를 발명하게 하

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성서번역은 번역 과정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언어를 재생시키고 보존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서번역은 한 국가의 언어와 문화이 생기게도 하고 발달하도록 공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성서번역은 어떤 언어의 사전을 개발하거나 문법을 체계화시키기도 하며, 어느 지역의 존재와 그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새로운 신앙 전파하는데 공헌하기도 하였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기록에 의하면 2001년 12월 31일 현재 아프리카에서 상용되는 약 2,000개의 언어 중에서 성경이 전서나 단편이 번역된 것은 641개의 언어라고 한다. 이 중에서 성경 전서가 149개의 언어로, 신약성서가 279개의 언어로, 단편(보통 성서의 단일 책으로서 예를 들면 복음서 하나)은 213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세계에서 현재 사용되는 약 6,000여 언어 중에서 성경전서 또는 그 단편이 2,287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중 전서가 392개의 언어로, 신약성서가 1,012개의 언어로, 단편이 883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같은 시기(곧 2000년 11월 1일과 2001년 10월 31일) 동안 일반 출판사들의 성서 반포를 제외하고 여러 성서공회와 성서공회의 여러 지역(세계성서공회연합회를 형성하는 단위)의 반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에서 성경전서 2,909,882권, 신약성서 564,481권, 단편 1,375,828권, 새 독자 단편(New Reader Portions, 독해력 수준에 맞춘 쉬운 번역) 844,541권, 단편(Selections, 더 적은 성서본문) 6,771,878권이 분포되었다. 케냐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성경전서 164,535권, 신약성서 9,739권, 단편 13,485권, 새 독자 단편(New Reader Portions, 독해력 수준에 맞춘 쉬운 번역) 15,843권, 단편(Selections, 더 적은 성서본문) 233,858권이 분포되었다. 전 세계적으로는 성경전서 23,210,404권, 신약성서 19,029,747권, 단편 20,397,962권, 새 독자 단편(New Reader Portions, 독해력 수준에 맞춘 쉬운 번역) 12,084,008권, 발췌본(Selections, 더 적은 성서본문) 443,436,778권, 새 독자 단편 37,396,552권이 같은 기간에 분포되었다. 우리는 이 통계를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성서가 상당히 많이 반포되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아직도 세계에는 어느 언어나 어느 형태로든 성서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임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임무는 단지 누구나 쉽게 성서에 다가가 읽을 수 있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서를 어떻게 사용하게 하느냐 하는 점이다. 각 시대 상황 속에서 성서를 읽고 성서의 궁극적인 메

시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곧 우리의 임무는 성서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 제도, 모든 공동체, 모든 가족과 개인의 일상생활을 꿰뚫고 변혁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돌리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어떻게 사용하게 하느냐가 그 출발점이다.

2. 성서의 위치와 사용

성서공회는 매우 최근까지도 공통의 과제를 “성서를 이해하기 쉽고 원문에 충실하게 교리적 주석을 달지 않고 번역하여 저렴한 가격에 적합한 형태로 펴내어 가장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반포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성서는 다양한 구미에 맞추고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형태와 여러 매체로 나왔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점자 성경을 여러 언어로 펴내고 있으며, 글을 읽을 시간이 없는 이들과 취학 전 아동이나 글을 읽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는 카세트나 씨디로 성서를 담아 내놓고 있다. 또한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비디오나 영화 또는 디비디(DVD)로 제작하여 내놓기도 한다. 예수님 영화(the Jesus Film)나 보기 성경(the Visual Bible)을 비디오나 디비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매체들은 누구나 손쉽게 성서에 다가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곧 “적합한 형태로 펴내어 가장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반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렇게 지금은 누구나 성서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제작한 의도대로 사람들이 이러한 매체를 사용하느냐 하는 점이다. 집안 구석에 처박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거나 그저 눈만 즐겁게 하려고 장식용으로 진열되어 있지는 않을까?

1996년 9월 26일-10월 3일에 열린 미시소가 세계대회²⁾에서 주제 강연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필리핀의 밀바 매가이(Melba Maggay) 박사는 여러 문화권 사이의 대화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성서를 얼마나 잘 접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성서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곧 성서를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성경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날마다 신문을 읽는 것과 견줄 수 있어야 한

2) UBS Bulletin 178/179, 1997년.

다는 얘기이다. 곧 사람들이 읽고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가지고 사회 문제나 주요 문화 코드를 예리하고 예언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성서공회가 내놓아야 한다.” (UBS Bulletin 178/179:36)

다른 연설자인 노르웨이의 올레 크리스찬 크바르미(Ole Christian Kvarme) 감독은 지구촌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이렇게 말한다.

“성경을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성경이 오늘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두 문제이다.” (앞의 책 45 쪽)

크바르미 감독은 또한 “성경이 어떻게 뚫고 들어가 내일의 문화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49쪽) 하고 질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성서 본문을 말하고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2000년 10월 10-14일에 열린 미드랜드 총회³⁾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계 성서공회연합회의 임무를 약간 바꾸어 이렇게 선언하였다.

“전 세계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면서 그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값싸고 원문에 충실한 성경을 가능한 한 널리 효과적으로 뜻깊게 퍼내는 일.”

이 선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면서 그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이라는 부분은 새롭게 첨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새롭게 첨가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도록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조우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경을 반포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역시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성경은 이미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성서공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을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

3) UBS Bulletin 2001년, 192/193.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적어도 한 권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집에 있거나 개인 서고에 있는 성경은 점점 더 공부하거나 읽히지 않은 채 먼지만 뒤집어쓰고 방치되어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말씀을 만나 삶을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2001년에 열린 한 모임에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대표들은 성서와의 조우라는 개념을 “성서를 발견하여 만나고 삶에 의미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곧 “거룩한 말씀을 **되찾고 발견하는 일**” 그리고 “삶이라는 자리에서 그 삶을 한층 드높이고 변혁하도록 하는 **만남**”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상황과 경험 속에서 성서를 의미 있게 하는 일을 말한다.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여 받아들이고 기리는 일과 성서의 힘과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의 삶에 필요한 영감 받은 책으로 인정하는 일, 다시 말하자면 성경이 온 누리에 흩어져 살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와 개인의 삶과 여러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변혁하는 힘이 성경 속에 있기에 신자들과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경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성경은 교회의 소유물이며 교회를 섬긴다. 바로 이 때문에 성서공회는 교회 그리고 교회 연합기관들과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지속한다.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성경은 교회의 기본 문서이며 안내서이며 나침반이다. 이 살아 있는 말씀 말고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근거는 없다. 또 도덕적이고 교리적인 교회의 가르침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교회의 선교와 확장의 근거가 될 만한 토대가 없다.

성경은 처음부터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과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교회가 자라고 뻗어나가는 데 그리고 성장하고 새롭게 바뀌어 가던 시대에도 깊이 연관을 맺어 왔다. 위기와 전쟁과 독재와 박해가 있을 때에도 성경은 신자들에게 또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소외받던 이들에게도 없어서는 안될 책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책이다.

성경이 복음전파에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도자들이 성경이나 쪽복음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거리 전도자들이나 집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 교회 설교자들

또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이들이 성경 없이 복음을 나눌 수 있겠는가! 무기 없이 전투에 나서는 것과 같다. 런던선교회의 총무이며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연구 총무였던 아더 미첼 처윈(Arthur Mitchell Chirgwin)이 복음전파에 대해 말한 것처럼, “거듭 거듭 나라마다 교회의 확장은 먼저 성경이, 다음에는 개종자가 그리고 교회 순서로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성경은 복음전파를 시작한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는 일이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배공동체도 생겨난다.” 처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 때문에 결단한다. 개인적인 대화나 설교 또는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성경은 해낸다. 성경은 마음의 벽을 깨뜨리고 들어가 양심을 되찾게 한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나이로비 대학교의 성공회 채플린이었던 데이빗 베릿도 “아프리카의 성경 반포와 교회 성장”라는 글⁴⁾에서 아프리카 교회에 대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여러 방언 성경은 그리스도교 성장에 경이적인 역할을 해왔다. 성경으로 아프리카에 교회를 심을 수 있었으며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성경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의 전 지역에서 힘있고 성숙한 교회를 찾아볼 수 있다. 성경은 교회를 두루 양육한다”(6쪽). 성경 때문에 예배와 예전이 활기차게 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점은 여러 교회가 잘 알고 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명상하면서 신자들이 서로 친교를 다질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3. 성경과의 조우(遭遇)를 목적으로 하는 성경 번역

성경과의 조우라는 말은 전혀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나이다의 내용의 동등성 번역 이론은 성경과의 만남 또는 성경과의 조우라는 생각에 기초한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이다는 초기에 비그리스도교 권에서 일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두루 일한 경험이 있다. 1947년 그의 책 『성경 번역하기 - 원주민 언어에 초점을 맞춘 원칙과 과정 분석』(Bible Translating - An Analysis of Principles and Procedures)을 이러한 말로 시작한다. “이 책은 선교사들을 위하여 쓴 책이다”(1쪽).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만나게 하는 일을 최고의 과제로 삼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 책은 잘 알려져 있다. 나이다가 성경 번역에 참여한 이유는 순전히 그가 선교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곧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성경을

4) UBS Bulletin, 1982, 128/129:5-18.

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을 말한다. 이것이 나이다를 움직인 이유이다. 위의 책 21쪽에서 나이다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경우 선교사들은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는 버릇에 빠지게 된다. 선교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용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들 그룹 내에서는 이러한 특정한 용어가 들어 있는 번역이 통용되지만 외부 사람들에게 이 번역을 널리 전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뜻은 통해야 할 것이다. 번역이 얼마나 잘 됐느냐 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하는 점에 달려 있다. 그래야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때문이다.” 나이다의 관심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마찬가지로 나이다는 교회의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스도교회의 여러 교단 사이에서 주석적인 문제로 충돌하지 않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22쪽)는 입장을 나이다는 지니고 있었다. 위의 책 같은 쪽에서 나이다는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전 교회의 유산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해석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주장 뒤에는 새로운 번역을 좀더 폭넓게 받아들여 좀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려는 것이다. 나이다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번역이론을 발전시켜 나갔다.

“내용의 동등성이라는 말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사실 가장 중요하지만 때때로 소홀하기 쉬운 점은 표현하는 방식이다. 누구나 말한 것을 똑같이 느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Nida and Tabor 1969:25). 나이다는 “번역이 얼마나 타당한가 하는 점은 사람들이 그 번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앞의 책 24쪽)라고 말한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번역이란 반응, 반향을 일으켜야 한다는 점이다. 요즘 용어로 말하자면 피할 수 없는 만남 또는 조우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하려는 열정과 관심 때문에 현대 성서공회 운동이 시작되었다. 선교와 복음 전파는 이 운동의 중심 표어이며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이다는 그의 선교적인 관심을 빼놓고 이해할 수 없다. 나이다는 언어학을 복음과 성서번역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오늘날에도 성서번역자들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저명한 성서학자인 더글라스 라빈슨(Douglas Robinson)은 나이다를 위협한 인물이라고 했는데(Robinson 1991:225-226), 이는 일반 사람들이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없는 번역 성서, 곧 말은 영어이지만 문법은 영어가 아닌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Nida 1964:20-21) 『미국표준역』(ASV) 같은 번역 성서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점을 폄하하는 뜻에서 그렇게 나이다를 부른 것이다. 라빈슨은 이렇게 말한다.

“『제임스왕역』(KJV)과 『개정표준역』(RSV)의 헤게모니를 뒤집어 엮은 것은 1960년대 중반에 아주 잘 알려진 『복음성경』(TEV)이다. 잘 알려진 이유는, 원문이 씌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뜻이 똑같고 반응이 똑같아야 한다는 이론을 개진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고문 유진 나이다 때문이다. 나이다는 설득력 있는 글을 많이 쓴 현대 최고의 번역이론가이다. 제롬과 루터의 성서번역 원칙을 고양시킨 사람을 ‘위험한 인물’이라 부른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직된 고정 관념을 까발려 부숴버린 제롬과 루터만큼이나 나이다는 위험한 인물이다”(앞의 책 225쪽).

라빈슨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보수적인 독자들은 “자신들이 어릴 적부터 읽어 왔고”(앞의 같은 쪽) 또 외우기도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끼고 향수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 그 성경 하나만이 바른 번역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으로는 서로 대화할 수가 없고 다만 신성안정제 역할만 할 뿐이다. 라빈슨은 또 이렇게 말한다.

“번역자가 번역을 통하여 읽을 것으로 예상하는 독자에게 다가가 마취제 역할이 아니라 개종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곧 번역을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깨어나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 깜짝 놀랄 만한 뭔가가 번역에 있어야 한다.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뒤집어 엮을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개종한다는 것은 뒤엎는 일이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말은 적어도 사실이다. 또한 고정관념에 얽매어 있는 신자들에게도 이 말은 사실이다. 일어나라, 너희 바리새인들이!”(앞의 책 226쪽)

라빈슨은 나이다를 다음과 같은 평가로 결론을 맺는다. “나이다는 성서공회를 성경독자의 수준, 곧 일반독자 수준으로, 신문을 읽을 수 있는 4학년 수준으로 뒤집어 놓았다”(앞의 책 같은 쪽).

이런 점에서 볼 때 2000년 미드랜드에서 모임을 가진 성서공회 지도자들은 새로운 생각을 내놓았다고 말할 수 없다. 단지 이러한 생각을 강화하고

다양하게 하고 성서공회가 일을 하고 있는 장(場)의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고 했을 뿐이다.

각 성서공회는 미드랜드에서 시작된 이러한 방향에 따라 이 세계 속에서 이러한 임무를 발전시키고 한층 고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곧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부분이라도 출판된 적이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3백만이나 되고, 인구의 절반은 글을 읽을 수 없고, 유엔이 ‘절대적인 빈곤층’으로 부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종교적인 근본주의에 갇혀 있거나 되살아나는 이교주의에 유혹받기 쉬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다. 더구나 “성경이 많이 반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드랜드 총회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에 헌신하기로 하였다.

⇒ 사람들이 읽을 만한 형태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형태로 성경을 제작한다. 특별히 청소년 문제나 가족 문제, 가난과 같은 특정한 문제나 에이즈 또는 자연 재해 같은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꼭 인쇄 매체를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성경을 만든다.

⇒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여 자신을 성경 속에 침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

⇒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곧 생명의 말씀과 희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임무를 각성하고 모든 사람이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섬김의 길을 모색한다.

⇒ 글을 읽지 못하는 이들과 새로운 독자들을 위해 성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료를 개발한다.

4.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현대의 성서번역자들은 지금까지 밟아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진 나이더와 그의 동료들은 길을 닦았고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번역의 임무와 과정과 도구와 기술 등을 좀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번역학 분야가 발전해온 것이 사실이다. 미드랜드 총회에서 강조한 점은 교단 전통을 뛰어넘어 협력하는 일 그리고 여러 자원(기술, 재능, 통찰, 경험, 재정)을 나누는 일, 함께 전략을 세우는 일, 지배와 지도 체제에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일, 일이 얼마나 효과적이며 적절한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일 등으로, 새로운 상황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드랜드 총회가 제시한 방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이렇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널리 다양하게 또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 점을 예리하게 간파하여 더 확실한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미드랜드 총회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다가서려는 이 세계가 다양성과 다원성이란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나이다 시대에는 단지 주요 언어로 쉬운 번역을 내놓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서두루지 않으면 안될 상황, 곧 아직도 성경이 충분치 않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말은 곧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나 형태로 다양한 번역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예배용 성서, 선교용 성서, 교회 교육용 성서, 신학대학원용 성서, 대학용 성서, 중고등학교용 성서 등 그 상황과 필요에 따른 성서가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다. 곧 청년이나 어린이 또는 다양한 교육과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 신학생, 목회자 등 특정한 여러 계층의 독자가 읽을 수 있는 성서를 시장 논리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생소한 성서 속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는 내놓아야 한다. 주요 용어, 불분명한 관습, 사건이나 장소나 전쟁의 역사적, 지리적인 배경, 인물의 개인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담은 여러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주요 결정은 번역이나 자료개발의 기획 초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작업의 일차적인 스코프스, 곧 예상하고 있는 기능을 미리 결정해야 한다. 누가 사용할 것인가(청소년, 여성, 어린이, 비그리스도인, 보통의 사람들 등)도 미리 결정해야 하고, 말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고 또 어떤 방언으로 해야 하며, 그 형태나 매체는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가(인쇄물, 비인쇄물, 오디오, 비디오, 이를 혼합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등)도 미리 결정해야 한다. 또한 그 제작물은 어떤 교단을 겨냥한 것이냐 하는 점도 중요한 문제이다. 초교단 용으로 내놓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특정한 성격을 지닌 소수 교단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기도 해야 한다. 번역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따라 대상을 결정하지 않고 번역 기획에

착수할 수는 없다.

앞으로의 과제는 쉽지 않다. 번역자들에게는 철저한 헌신과 고도의 전문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 번역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일은 교회라는 선교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이다. 교회가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 번역자들의 짐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다.

번역: 이환진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전무용*

1. 머리말

『공동번역 신약전서』는 1972년에 번역이 되었으며, 1977년에 개정이 되었고, 1977년에 공동번역 구약 번역이 완료되면서, 신약의 개정판과 구약이 함께 『공동번역 성서』(1977)로 묶여서 출간이 되었다.

1988년부터 규범문법인 학교문법의 한글맞춤법이 달라져서, 국내의 모든 출판물들이 개정된 맞춤법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번역 성서』의 한글 맞춤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고, 그동안 사용하면서 발견된 번역 및 편집상의 오류들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 가톨릭으로부터 공동번역 가톨릭용의 편집을 고쳐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1995년 1월 21일에 가톨릭에서 파송된 위원과, 공동번역 성서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한성공회에서 파송된 위원과, 대한성서공회의 번역 책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동번역성서개정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추후에 여건이 허락되면, 공동번역을 문화어 맞춤법에 맞게 고쳐서 쓰고 있는 북한측 대표를 위원회에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개정 작업은 1998년 2월 27일에 완료되었으며, 개정의 원칙이 어떤 내용인지는 그 대강의 내용이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머리말”에 드러나 있다. 이 글에서는 공동번역의 개정 경과와 각각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를 유형별로 밝히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맞춤법의 문제로 개정한 사안들 중에서 특별히 논란의 소지가 없는 개정 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이 아닌 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2. 개정 이유와 배경

*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1) 『편수자료 II-4』,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표기 용례), 문교부, 1988년 3월 1일 초판 발행.

2.1. 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1호 ‘한글 맞춤법’과 문교부 고시 제88-2호 ‘표준어 규정’이 발표되었다. 1986년 1월 7일에는 문교부 고시 제 85-11호 ‘외래어 표기법’이 발표되었다. 그 이후로 학교의 교과서와 모든 국어사전들과 신문 잡지들과 모든 국내 출판물들이 개정된 맞춤법을 따라 출판이 되고 있다. 공동번역 성서는 1977년에 출간된 것이므로, 개정된 맞춤법을 따라서 본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2.2. 1994년 1월 10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공동번역 성서 재편집 등에 관한 요청”을 대한성서공회로 보내왔다.

2.3. 1994년 2월 26일, ‘대한성서공회’에서 편집 수정을 하기로 하는 답신을 보냈다.

2.4. 1994년 4월 7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담당자가 성서공회를 방문하여 공동번역 개정작업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의 범위: 그 동안 사용하면서 발견된 결점을 보완하는 개정을 하되, 가톨릭쪽 자료(수집)와 성서공회쪽 자료, 추가 연구 검토로 발견되는 자료를 토대로 개정한다.

2) 맞춤법을 교정한다(현재 각급 학교 교과서를 비롯하여 모든 출판물에 적용되는 맞춤법은 문교부 고시 88-1 ‘한글 맞춤법’이다. 『공동번역 성서』는 그 이전의 맞춤법을 따라 적었다).

3) 가톨릭용 성서 편집 순서를 *Nova Vulgata*를 기준으로 하여 고친다.

4) 개정위원회 구성: 신약학자, 구약학자, 국어학자(국어 교정자)로서 가톨릭쪽 2-3명, 성서공회 1명, 성공회쪽 1명, 개신교쪽 1명으로 한다. (조선기독교도련맹에서 출간한 성경이 “공동번역 평양교정본”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징적으로 북측 대표 1명을 공식으로 두기로 하였다)

5) 개정 결정은 전원 합의제로 한다

6) 가톨릭 교회의 출판 승인(Imprimatur)을 받는다.

3. 개정위원회 회의

1995년 1월 21일 제1회 개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조직을 하고, 이때부터 『공동번역 성서』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1998년 2월 27일 제14회 개정위원회를 마지막으로 개정 작업을 완료하였다.

4. 개정 원칙

- 1) 명백히 틀린 것만 고친다(소폭 개정의 원칙).
- 2) 현재의 공동번역 성서와 통용할 수 있게 한다.
- 3) 가톨릭용은 노바 불가타의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재편집한다

5. 개정 개관

5.1. 소폭 개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경우에서 명백히 틀린 것만 고쳤다.

- 1) 고쳐서 본문의 표현이 좀더 부드러워진다 하더라도, 현재의 번역이 틀리지 않았으면 그대로 두었다.
- 2) 명백한 개선이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공동번역을 존중하여 그대로 두었다.

5.2. 개정 자료는 위원 각자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하였다. (문체 문제로서 꼭 검토할 필요가 있는 곳은 없는지, 탈자 오자는 없는지, 누락된 본문은 없는지, 등등.)

- 1) 누락된 본문의 체계적인 확인을 위하여 성서학 전공자2명에게 현재의 『공동번역 성서』를 『개역한글판』과 대조하여 읽도록 하고, 누락 또는 오역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만 “대조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 2)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확인 검토하고 논의하여 개정 본문을 결정하였다

5.3. 가톨릭용은 노바 불가타 순서를 참고하여 재편집을 하였다 ‘제2경전’을 뒤에 따로 모으지 않고 합쳐서, 현 공동번역 성서(가톨릭용) 초판의 목차 순서대로 편집하였다.

- 1) 노바 불가타를 참고로 하는 편집 교정은 천주교 쪽에서 맡았다(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강대인 부장 재편집 자료 제시).
- 2) 노바 불가타에 있는 다른 본문이나 추가 설명은 반영하지 않았다

5.4. 맞춤법 교정도 소폭 개정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폭으로, 명백히 틀린 것만 고쳤다.

- 1) 맞춤법의 교정과 오타자의 수정은 성서공회에서 맡았다
- 2)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에게 문교부 고시 제88-1호 ‘한글 맞춤

법'에 따른 교정을 의뢰하였다. (이화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학생 2명)

3) 교정 때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것은 성서공회 개정업무과 교정 실무자들이 확인하였으며, 천주교 쪽에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의 문장 교정자가 추가로 검토하였다.

4)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붙여 쓸 수 있는 것은 붙여서 교정하였다.

5) 맞춤법 교정자가 제기하는 어색하거나 틀린 문장의 문제는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선별 처리하였다.

6) 위와 같이 교정한 것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개정 본문을 결정하였다.

6. 개정 내용

다음에 소개하는 개정 내용은 몇 가지씩 예를 든 것이다²⁾

6.1. 맞춤법은 문교부 고시 제88-1호 “한글 맞춤법”을 따랐다.

시편 116:3 끄나불이 > 끄나풀이

시편 5:6 거깃말장이를 > 거깃말쟁이를

잠언 8:5 풋나기 > 풋내기

욥기 20:13 아까와서 > 아까워서

잠언 22:7 빗장이의 > 빗쟁이의

마태 9:34 빌어 > 빌려

이사 1:11 수양의 > 숫양의, 수염소의 > 숫염소의

이사 7:17 일찌기 > 일찍이

이사 44:25 점장이 > 점쟁이

이사 61:8 댓가를 > 대가를

예레 16:8 잔치집에 > 잔칫집에

6.2. 비표준어는 표준어 규정에 따라 바로잡았다.

창세 14:20 붙이다 > 부치다

예레 50:39 샅쟁이와 > 살쟁이와

에제 8:17 돈구어 주었다. > 돈우어주었다.

2) ‘>’ 표의 왼쪽 부분을 오른쪽과 같이 고침.

미가 3:3 남비에 > 냄비에

6.3. 오자, 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사 40:12 천평으로 > 천칭으로

예레 23:5 일으킨 > 일으킬

요한 2:9 그 술을 > 그 술이

욥기 25:3 ㉔ 26:5 ㉔에서 난하주 내용의 ㉔과 ㉔을 바꾸었다.

잠언 6:22 (21절 끝에 각주 첨가) “6장 22절은 5장 19절 다음으로 옮겼다.”

6.4. 누락 본문을 확인하여 복원하였다.

창세 20:6 “네가 마음에 걸릴 일을 하지 않은 줄은 나도 안다. 그러나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너를 지켜 준 이가 누구지 아느냐? 너로 하여금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20:6 하느님께서 또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마음에 걸릴 일을 하지 않은 줄은 나도 안다. 그러나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너를 지켜 준 이가 누구지 아느냐? 너로 하여금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느헤 11:5 그 옷대는 아다야, > 그 옷대는 하자야. 그 옷대는 아다야,

시편 102:28 하느님의 종들의 자손은 편안히 살아가고

그들의 후손은 하느님 앞에 굳게 서 있으리이다

(한 절 전체 누락된 것을 복원함)

예레 27:3 모압 왕과 > 모압 왕과 암몬인들의 왕과

6.5. 오역을 바로잡았다.

이사 9:20 므나쎄는 에브라임을 서로 뜯어먹는구나.

> 므나쎄와 에브라임이 서로 뜯어먹는구나.

호세 2:11 양털과 모시옷을 벗기고 버리리라.

> 양털과 모시옷을 벗겨버리리라.

오바 1:20 예루살렘에서 사렘다로 > 예루살렘에서 스바랏으로

묵시 8:13 천사들의 불나팔 소리가 > 천사들이 불 나팔 소리가

6.6. 우리말 표현이 잘못되거나 다른 뜻으로 오해할 수 있을 때, 이를 고쳤다.

1) 낱말 수준의 잘못된 표현: “홍해바다”는 “역전앞”처럼 같은 뜻의 말이 중첩되어 있어서 고쳤고, “알아 맞추다”는 “알아맞히다”가 바른 표기여서 바로잡았다.

시편 106:7 홍해바다에 > 홍해에

마태 26:68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맞추어 보아라

>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2) 대명사는 오해될 수 있을 때 실명사로 바꾸거나 본 뜻을 정확하게 옮길 수 있는 다른 대명사로 사용하였다.

지혜 14:17 그들은 그들이 경배하는 왕의 초상을 만들어서

> 그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는 왕의 초상을 만들어서

지혜 18:21 그는 그의 거룩한 직분의 무기를 들고

> 그는 자기의 거룩한 직분의 무기를 들고

3) 셈 수를 문맥에 맞게 썼다.

바룩 4:28 십 배의 열심으로 그분을 찾아야 한다

> 열 배의 열심으로 그분을 찾아야 한다

‘십 배’든 ‘열 배’든 어느 쪽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소리 내서 읽는 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말 형태인 “열 배”로 개정한 것이다.

4) 잘 쓰지 않는 조사나 어미는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나와의”에서 사용된 조사 “-와의”, “그리스도 안에서”에서 사용된 “-에서의” 등 ‘-의’와 결합된 몇몇 조사는 번역문투에서 가끔 쓰기도 하는 말이어서 틀렸다 하기는 어렵지만, 사전에 하나의 조사로 올라 있지 않고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조사의 형태가 아니어서 고쳤다

시편 132:12 네 후손이 나와의 계약을 지키고

> 네 후손이 나와 맺은 계약을 지키고

호세 1:9 로암미이라고 > 로암미라고

지혜 2:4 누가 우리의 한 일을 기억해 주겠느냐?

> 누가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해 주겠느냐?

에페 4:17 소제목: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

>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 생활

“-에서의”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특히 이오덕님이 일본어의 영향이라고 하여 비판한 적이 있다.³⁾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일본어에서도 이러한 어

3) 이오덕, 『우리를 바로쓰기』, 한길사, 1989년, pp. 85-145.

법은 인구언어와 접촉하면서 새로 생겨난 어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이러한 어법이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아니라는 이오덕 님의 견해는 타당한 것이다. 우리말이나 일본어는 서술어 중심의 언어이다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어를 포함한 인구언어는 명사문의 특징을 띠고 있는 언어이다 위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은 명사가 명사를 꾸미는 전형적인 명사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이라고 하면 ‘-의’의 내포적 의미인 “사는”이 살아나서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 되었다. 우리말의 특성에 잘 맞는 표현은 후자와 같은 문장이다.

5) 문장 수준의 오류.

이사 60:10 귀여운 생각이 들어 너를 가엾게 본 때문이다

> 귀여운 생각이 들어 너를 가엾게 보았기 때문이다

에제 7:1 끝이 가까왔다 > 끝이 가까이 왔다

즈가 7:6 내 앞에서 먹고 마실 적에도 전혀 너희끼리만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 내 앞에서 먹고 마실 적에도 너희끼리만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유딧 13:20 이와 같은 당신의 성취한 일들을,

> 이와 같이 당신이 성취한 일들을

지혜 7:11 지혜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물이 있었다.

> 지혜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물이 있었다.

마르 3:31 소제목: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이나?

>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특히 한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잘못 사용해온 어법 가운데 하나가 “가까왔다”는 말이다. “가깝다”는 말은 형용사이다. 형용사에 “-왔/였-”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아름다웠다, 고왔다, 예뻐다” 등과 같은 표현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말하는 이가 스스로 경험한 과거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가까왔다”를 “다가왔다”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다가오다”는 동사이다. 에제 7:1을 “끝이 가까이 왔다”처럼 개정한 것은 한국어의 어법에 맞게 표현을 바로잡은 것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이나?”와 같은 표현은 하나의 주어 아래 ‘-며’로 연결이 되어서, 내용상 누가 어머니인 동시에 형제인지를 묻는 이상한 말이 되었다. “그는 시인이며 교수이다”⁴⁾ 하면, ‘-며’가 동시적인 내용임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연결어미 ‘-고’를 써야 할 곳이다.

4) 『표준국어대사전』, 2129쪽, ‘-며’ 항 참조.

6) 낱말 수준의 오류: “축복”이 틀리게 사용된 곳을 고쳤다.

- 창세 39:5 야훼의 축복 > 야훼의 복
- 출애 20:11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 안식일에 복을 내리시고
- 레위 7:13:15 받은 축복이 > 받은 복이
- 신명 11:26:29 축복 > 복
- 신명 12:15 축복해 주신 대로 > 복을 내려주신 대로
- 시편 28:9 유산을 축복하소서 유산에 복을 내리소서
- 시편 37:26 축복을 받으리라 > 복을 받으리라
- 시편 147:13 백성을 축복하시니 >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니

“축복”의 오용 문제는 종종 논란이 되는 것이다. ‘축복(祝福)’은 복을 빈다는 말이다. “‘갑’이 ‘을’을 축복하다”와 같은 말은 “‘갑’이 ‘을’을 두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다. 복을 내리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제 3의 어떤 대상에게 복을 빌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다”는 잘못 사용된 말이다. 제사장이나 목사가 다른 사람의 복을 하나님께 빌 수 있다.

7) 맞지 않는 준비법은 적합하게 바로잡았다.

지혜 9:18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⁵⁾

8) 명령형

직접명령은 ‘-아/어라’ 꼴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소제목도 이를 따름) ‘-거라, -너라’ 등의 명령형에서만 예외를 인정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금지령을 나타내는 명령어 “말라, 마라, 말아라”는 문법 규칙을 따라 ‘마라’로 적는다.⁶⁾

- 시편 105:4 그의 곁을 떠나지 말아라. > 그의 곁을 떠나지 마라.
- 호세 2:4 배신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라 > 배신한 이스라엘을 고발하여라
- 호세 12:1 소제목: 돌아 오라 > 돌아오너라
- 바룩 4:14 시온의 이웃들아, 이리 오라. > 시온의 이웃들아, 이리 오너라.

6.7. 인용문⁷⁾

5) 형용사의 준비법에 대해서는 『성서한국』 1993년 12월호, 36-38 참조.
 6) 『표준국어대사전』(2035쪽), “말다³⁾”에 대한 설명 참조.
 7) 쉽표와 인용법에 대해서는, 왕대일 엮음,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에서 “성서 번역과 국어 문체-쉽표와 인용법을 중심으로” 참조. pp. 389-412.

1) 인용문이 문장일 때에는 규칙을 따라 문장부호를 찍는다. 인용조사
이사 6:8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내가 여쭙었더니

>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내가 여쭙었더니

예레 20:9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고 하여도,

>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 하여도,

예레 22:18 “가엾어라 우리 형님, 가엾어라 우리 누님’

이렇게 애곡할 사람이 없으리라.

> “가엾어라 우리 형님, 가엾어라 우리 누님.’

이렇게 애곡할 사람이 없으리라.

지혜 12:12 누가 감히 주님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고

> 누가 감히 주님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고

2) 인용조사 ‘-고’는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것만 고친다. 다음에 예
를 든 본문들은 직접인용이므로, 내용에 맞게 ‘하고’를 붙였다.

잠언 30:9 배부른 김에, “야훼가 다 뭐냐” 고 하며,

> 배부른 김에, “야훼가 다 뭐냐?” 하며

이사 29:12 “책이 밀봉되었는데 어떻게 읽겠느냐?” 고 할 것이다.

> “책이 밀봉되었는데 어떻게 읽겠느냐?” 할 것이다.

이사 42:22 “돌려주어라.” 고 역성들어 주는 자 없다.

> “돌려주어라.” 하고 역성들어 주는 자 없다.

3) 직접인용의 조사는 ‘-라고’보다는 ‘하고’를 쓴다. 기록의 인용과
같은 경우에는 ‘-라고’를 쓸 수도 있다. 기록의 인용으로 “-라고”를
쓸 때에는 띄우지 않고 맞춤법을 따라서 붙여서 적었다. ‘-고, 라고’
등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낱말이 아니므로 붙여서 적었다

요엘 4:10 ‘나는 용사다’라고 외쳐라.

> ‘나는 용사다!’ 하고 외쳐라.

요한 9:23 그의 부모가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 그의 부모가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
어 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집회 18:33 난하주: (1) 히브리 사본에는 “이중의 가난이 뒤따른다” 라고

되어 있다. > (1) 히브리 사본에는 “이중의 가난이 뒤따른다”라고 되어 있다.

에스 16:11 마침내는 그를 “나의 아버지” 라고 불렀고
> 마침내는 그를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4) 드러냄표로 쓴 인용부호는 작은따옴표를 쓴다.

이사 60:14 그들은 너를 “야훼의 도읍”이라,
> 그들은 너를 ‘야훼의 도읍’이라,

집회 22:14 그 이름이 바로 “어리석은 자” 이다.
> 그 이름이 바로 ‘어리석은 자’이다.

갈라 2: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른바 “이방 죄인”은 아닙니다.
>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른바 ‘이방 죄인’은 아닙니다.

5) 표현에 무리가 있는 인용문 속의 이중인용문 또는 삼중인용문을 무리가 없도록 간접인용으로 바꾸고, 문장 수준에서 조정한다.

예레 22:8 “……‘……야훼께서는 어찌하여 이 큰 도움을 이 꼴로 만드셨을까?—하고 물으면, 9 이 백성이 저희 하느님 야훼와 맺은 계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며 섬겼기 때문이지—하고 대답하리라.”

> “……‘……야훼께서는 어찌하여 이 큰 도움을 이 꼴로 만드셨을까, 하고 물으면, 9 이 백성이 저희 하느님 야훼와 맺은 계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며 섬겼기 때문이지, 하고 대답하리라.”

6.8. 문장부호를 적절하게 바로잡는다

1) 쉼표 줄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쉼표나, 맞춤법에서 쓰지 않도록 한 문장 접속부사 뒤의 쉼표는, 줄였다.

시편 112:4 어둠 속의 빛처럼, 정직한 사람을 비춘다.
> 어둠 속의 빛처럼 정직한 사람을 비춘다

이사 11:10 그 날, 이새의 뿌리에서 돋어난 새싹은
> 그 날 이새의 뿌리에서 돋어난 새싹은

이사 13:7 그리하여, 모든 손의 맥이 다 풀리고
> 그리하여 모든 손의 맥이 다 풀리고

요엘 1:6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암사자의 송곳니 같은 것들이,

7 내 포도원을 짓밟고
 >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암사자의 송곳니 같은 것들이
 7 내 포도원을 짓밟고

2) 쉽표 삽입: 문백상 쉽표가 꼭 필요한데 없는 경우는 쉽표를 넣어서 문맥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였다

아모 3:14 나를 거슬러 죄짓는 이스라엘을 찾아 가는 날
 내가 베델의 제단에 벌을 내리리라.
 > 나를 거슬러 죄짓는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날
 내가 베델의 제단에 벌을 내리리라.

지혜 1:1 지상의 통치자들이여 정의를 사랑하여라
 > 지상의 통치자들이여, 정의를 사랑하여라.

3) 인용부호 조정

이사 42:4 기다린다.’ > 기다린다.”

4) 부름말 뒤의 감탄형 문장 부호 조정

에제 13:3 예언자들이아, > 예언자들이!
 시편 113:1 야훼의 종들이아 찬양하여라.
 > 야훼의 종들이아, 찬양하여라.

이사 41:8 너, 내가 뽑은 자,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예야
 > 너, 내가 뽑은 자,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예야;

6.9. 띄어쓰기

1) 사전의 올림말은 붙이고 붙여쓰기가 허용된 것은 붙이는 쪽으로 고쳤다.

어쭙지 않거든 > 어쭙지않거든
 잘 되다 > 잘되다
 죄 없다 > 죄없다
 큰 소리 큰 소리
 큰 일 > 큰일
 한 마디 > 한마디

간 데 없이 > 간데없이

2) 사전에 올라 있지 않아도 문맥에 따라 하나의 이름으로 쓰인 곳은 붙인 채로 두었다(땅 이름, 관직 이름, 제사 이름 등). ‘생명나무’ ‘소금바다’와 같이 고유 명사화된 말은 붙이기로 하였다

이사 22:1 환상골짜기 (이 말은 초판에서도 붙여서 적었던 말이고 개정판에서도 붙여서 적는 것을 유지하였다.)

이사 34:9 역청 바다 > 역청바다

예레 31:38 모퉁이문까지 (초역을 유지함.)

다니 9:27 희생 제사와 곡식 예물 봉헌을 > 희생제사와 곡식예물 봉헌을

스바 1:10 생선문(초역을 유지함.)

3) 명사 앞에 접두사처럼 붙어서 그것의 재료를 나타내는 말은 붙였다. ‘가죽옷, 불칼’ 등 재료의 성격이 있는 복합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붙이기로 하였다(예외: ‘낙타털 옷’ 따위). ‘양떼, 소떼’ 등도 붙여 쓰기로 하였다.

다니 10:5 모시옷을 입고 순금 띠를 띠고

> 모시옷을 입고 순금띠를 띠고

4) 사전에 한 낱말로 올랐더라도 통사적인 구조의 결합이라서 붙일 수 없는 곳은 띄운다.

예레 48:20 아르논강 가 사람들에게도

> 아르논 강 가 사람들에게도 (초역대로 ‘강 가’ 띄움.)

예레 51:63 유프라테스강 물 속에 던지시오

> 유프라테스 강 물 속에 던지시오(초역대로 ‘물 속’ 띄움.)

요나 3:5:6 굵은 베옷을 > 굵은 베 옷을 (‘굵은’이 ‘베’를 꾸미는 구조이므로, ‘베 옷’을 띄어서 적음.)

5) 통사적인 구조의 결합이라도 사전에 한 낱말로 오른 말은 붙였다.

지혜 8:18 지혜와 말을 주고 받는 가운데

> 지혜와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지혜 8:19 나는 좋은 기질을 타고 난 어린이였으며

> 나는 좋은 기질을 타고난 어린이였으며

집회 45:18 광야에서 들고 일어났다.

> 광야에서 들고일어났다.

6) 사전에 올림말이 없거나 통사적 결합인 경우는 띄어서 적었다
 시편 119:123 당신의 구원을 눈빠지게 기다리오며

> 당신의 구원을 눈 빠지게 기다리오며

시편 132:4 눈붙이고 잠들지 못하겠습니다.

> 눈 붙이고 잠들지 못하겠습니다.

이사 14:7 이제 온 세상이 한숨돌리고 평온해져

> 이제 온 세상이 한숨 돌리고 평온해져

이사 16:9 여름과일을 > 여름 과일을

이사 26:18 우리는 임신한듯, 해산하듯 몸부림쳤습니다.

> 우리는 임신한 듯, 해산하듯 몸부림쳤습니다.

이사 40:20 손재간있는 > 손재간 있는

예레 26:23 서민공동묘지에 > 서민 공동묘지에

이사 16:2 새끼새 > 새끼 새

7) 4자 한자어들도 사전에 올리지 않은 말은 띄어서 적었다

원칙적으로 ‘띄어쓰기’ 규칙은 각 낱말을 띄어서 적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용언과 보조용언을 붙여서 적는다면, 명사가 앞뒤로 이어져 있을 때에도 붙여서 적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규칙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글 맞춤법에서, 명사의 경우에는, “한국대학교”와 같은 고유명사나 “만성골수성 백혈병” 같은 전문 용어에 대해서만 붙여쓸 수 있다고 허용하였고, 그 밖의 다른 붙여쓰기 규정이 없다. 규정이 미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에서 복합명사는 국어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붙여서 적고,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낱말은 띄어서 적었다

명사 복합어도 동사 복합어와 마찬가지로 널리 쓰이는 말은 한 말로 인식되어 사전에 올라 있고, 자주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경우가 흔히 있다. 또 사람에 따라서 한 말로 생각하거나 두 말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개인차가 있다. 다음에 예를 든 말들도 어떤 사람은 붙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전의 올림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개인차를 피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사 40:2 복역기간이 > 복역 기간이

예레 11:3 계약조문을 > 계약 조문을

다니 7:27 천하만국을 > 천하 만국을

다니 8:23 권모술수를 > 권모 술수를

다니 11:10 전쟁준비를 > 전쟁 준비를

다니 11:12 의기양양하여 > 의기 양양하여

다니 12:11 정기제사가 > 정기 제사가

지혜 6:7 대소만물을 > 대소 만물을

출애 25:4 자주빛 양털, 붉은 보라빛 양털, 진홍색 양털, 고운 모시실, 염소털, 5 분홍색 수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나무, 6 등잔기름, 향유, 가루향에 넣는 향료,

> 4 자주빛 양털, 붉은 보라빛 양털, 진홍색 양털, 고운 모시실, 염소털, 5 분홍색 수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6 등잔 기름, 향유, 가루향에 넣는 향료,

창세 49:2 문병왔다는>문병 왔다는

출애 23:1 권세부리는>권세 부리는

어떤 말을 복합어로 생각할지 통사적 결합으로 생각할지는 사람에 따라서 인식의 편차가 있다. 사전을 따르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말을 붙이고 어떤 말을 띄울지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하기는 하지만, 사전에 나오는 “양털(창세 31:19) 양가죽(유딧 12:15)”은 붙이고, 같은 구조의 낱말인 “수양 가죽” “돌고래 가죽”은 띄어야 하는 불균형이 생겼다.

똑같은 현상이 명사 동사 합성어에서도 생겼다 “문병하다” 같은 말은 붙여서 적을 수 있는 말이지만, 같은 구조의 낱말인 “문병 왔다”는 사전에 올라 있지 않아서 붙여서 적지 않은 것이다. “권세 부리다”와 같은 낱말도, 초판에서와 같이, 복합어로 보고 붙여서 쓸 말로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사전에 복합어로 올라 있지 않으며, “권세(를) 부리다”와 같은 통사적 결합에서 조사 “-를”이 생략된 형태로 보고 띄어서 적었다.

이러한 결정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허용규칙을 따라서 동사와 보조동사를 모두 붙여서 적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붙여서 적을 수 있는 말은 모두 붙여서 적는 원칙을 따르는 것인데, ‘동사+동사’는 물론이고, ‘명사+동사’나 ‘명사+명사’의 경우에도 조사나 어미 없이 이어져 있을 때에는 붙여서 적는 것이 균형이 맞는 띄어쓰기이지만 현재의 띄어쓰기 규칙은 일관성을 지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8)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다.⁸⁾

음역된 외국 강 이름 산 이름 뒤의 ‘강, 산’은 띄우고, 이에 준하여 이름 뒤에 나오는 ‘왕’도 띄우되, ‘-족, -어, -인’ 등은 접미사로 보고 붙였다. 이

8) 『국어 어문 규정집』, 문교부 고시 제 85-11호, “외래어 표기법” 제 3절 제 1항 참조,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8, pp 301-302.

규칙에 따라 나무 이름도 외래어 뒤에 올 때는 띄었다. 이러한 띄어쓰기도 규칙을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포도나무(판관 9:12) 가시나무(판관 9:14) 송백나무(1열왕 5:20) 무화과나무(시편 105:33)” 등 사전에 올라 있는 우리 나무들은 복합어로 보아서 붙여서 적으면서, 그렇지 않은 외래어 나무 이름들은 띄어서 적는 것도, 띄어쓰기 규칙의 미비함 때문에 생긴 불균형이다

이사 11:15 유프라테스강을 > 유프라테스 강을

이사 14:28 아하즈왕이 > 아하즈 왕이

이사 15:2 느보산 > 느보 산

이사 17:10 아도니스신의 > 아도니스 신의

이사 30:33 몰록신 > 몰록 신

이사 41:19 올리브나무를 > 올리브 나무를

예레 1:15 예루살렘성과 > 예루살렘 성과

예레 21:9 바빌론군에게 > 바빌론 군에게

예레 31:38 하나넬탑에서 > 하나넬 탑에서

예레 43:9 파라오궁 > 파라오 궁

6.10. 외래어 표기 교정

1) 초중고교 교과서에 나오는 인지명은 교과서 표기를 따랐다(이집트,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에스파냐, 키프로스 등).

2) 잘못된 음역은 바로잡았다.

출애 6:17 리브나 > 리브니

이사 60:6 스바 > 세바

예레 48:31 키르하레스 > 키르헤레스

시편 60 수산에롯 > 수산 에돏

집회 32:6 에머랄드 > 에메랄드

3)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외래어는 쓰지 않았다.

다니 3:23㉠ 난하주, 223 페이지에 > 223쪽에

4) 하나의 음역 원칙에 따라 음역을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문제는 과제로 남겨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6.11. 가톨릭용 편집에서는 ‘외경’이라는 용어는 난하주에서도 ‘제2경전’으로 고쳤다. 개신교와 가톨릭의 용어의 차이를 편집에 반영하는 것이다.

6.12. 잘못 표시된 절 위치를 바로잡았다.

마태 12:45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다시 나와 45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일곱을

>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45 그는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일곱을

마태 13:38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38 밭은 세상이요,

6.13. 각주 정리: 각주 표현에 일관성이 없어, 적절한 수준으로 용어와 문장 형식을 통일하였다.

1) “히브리어 본문, 원문, 본문, 히브리 원문” 등은 “히브리어 본문”으로 통일하였다.

2) “70인역, 그리스어 번역”은 “70인역”으로 통일하여 적었다. “라틴어 성서”는 ‘불가타 성서’로, ‘시리아어역’ ‘타르굼’ ‘사마리아 오경’ 등은 그대로 적었다.

3) ‘구교’와 ‘신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로 적었다.

4) 문장 형식은 ‘-임’ ‘-함’ 등으로 하지 않고, 정식 문장으로 적었다.

5) ‘종래 성서’는 “개신교에서 쓰는 종래 성서”로 적었다.

6.14. 공동번역의 약자는 천주교와 대한성공회의 약자 체계를 고려하여 각 책의 제목의 첫 두 자로 적었다

7. 결론

공동번역 성서의 이번 개정은, 개정 원칙에서 밝힌 것처럼 초판 사용자를 배려한 최소한의 개정이었다. 그렇더라도 그동안 사용하면서 발견된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나, 오역을 바로잡은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한 개정이었다. 맞춤법을 바로잡은 것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말도 익히게 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일찍이 했어야 할 작업이었다.

‘띄어쓰기’는 크게 두 가지 원칙밖에 없다. 붙여서 적을 수 있는 말을 모두 붙이는 쪽으로 편집을 하는 방법과, 그 반대로 띄어서 적을 수 있는 말을 모두 띄어서 적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붙여서 쓸 수 있는 것은 붙여서 적는 원칙을 따랐다. 그러나 규칙의 제약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동사 결합어를 붙여서 적는다면, 같은 원리로, 조사가 없이 앞뒤로 이어서 사용된 명사어들도 붙여서 적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맞춤법 규칙은 그런 일관성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사전을 기준으로 복합어를 정하는 것은 개인의 저술이 아닌 경우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사전의 올림말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불균형도 있었다. 이러한 아쉬움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맞춤법 규칙의 보완을 기대하는 마음과, 『공동번역 성서』의 표기가 현재의 맞춤법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이 글은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각각의 개정 건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은 다 하지 않았다. 대부분 기본적인 한국어 문법 규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하여 주었다.

‘소폭 개정’이라는 원칙 때문에, 손질을 하면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겠지만, 현재대로도 틀리지는 않았다는 점 때문에 검토 과정에 개정에서 배제된 본문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1977년에 번역이 나온 때로부터 20년만에 이루어진 이번 개정으로, 『공동번역 성서』의 이런저런 미비점이 보완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초판의 서문에서 밝힌 대로 “독자들이 원문을 읽는 사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번역한 『공동번역 성서』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성경 독자들이 본문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A Report on the *Revised Common Translation*

Moo-Yong Jeon
(Korean Bible Society)

This paper reviews the revision process of the *Common Translation* (1977), and classifies the revised details according to the kinds of modifications made to them, such as correcting the text per the Korean orthographic and standard Korean rules, amending the parts where there are incorrectly spelt words and missing letters, restoring the lacunae in the text, and modifying the mistakes made in sentence and word levels.

One point that is always considered during the process of **Korean** Bible translation is whether to translate pronouns into nouns or replace them with other pronouns that could accurately address the meaning of the text.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nouns that have been seriously discussed during the revision process of the *Revised Common Translation* (2001), and lists the honorifics that have been of issue in the revision process, and the auxiliary words and suffix that have been revised and the reasons for the revision. It also states the adjustments made at the sentence level, including duplicated or triplicated quotations that are difficult to express. In addition, the places where a comma has been either omitted or added were reviewed and the reasons for change were specified.

In the case of words for which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compound words or syntactic combinations, their spacing has been decided according to what is stated in the dictionary. The paper further reviews the problems of transliterations, and specifies cases where loan words were replaced with Korean native words. Instead of discussing every detail of the revision work, this paper focuses more on providing an overall picture of the revision.

히브리대학교 성서 케테르 예루살라임

이익상*

이 글은 히브리 대학교에서 2000년에 처음 간행하였고, 늦은 2002년에 이르러 일반인들의 손에 처음으로 쥐어진 히브리대학교 성서 케테르 예루살라임(כתר ירושלים *keter Yerushalaim, Jerusalem Crown*)을 소개하는 글이다. 아주 학문적인 글이라기보다는, 언제부터 히브리대학교에서 성서 편찬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떠했으며, 기존에 발간된 히브리어 성서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무게의 중심을 두었고,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독특한 지면 구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성서를 활용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다. 독자들은 이 글을 통하여 손쉽게 히브리대학교 성서를 이해하고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개할 내용은 히브리대학이 케테르 예루살라임을 간행하면서 함께 출판한 안내서 “히브리대학교 성서 케테르 예루살라임”(כתר ירושלים-הנוף האוניברסיטאי העברית בירושלים) *Jerusalem Crown-The Bible of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을 근거로 한 것임을 밝힌다.

*

히브리대학교는 1950년대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알렘포 사본을 기초로 한 성서편찬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물들을 차례로 내어 놓았다. 처음 결실은 1953년에 움베르토 카수토(Umberto Cassuto) 교수가 알렘포 사본과 다른 사본들을 비교 연구한 노트인데, 그는 이 작업을 마치지 못하고 타계하였다. 이후 히브리대학교 성서 토라 네비임 케투빔(תורה נבאים כתובים)이 발간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케테르 예루살라임이 발간되었다.

1940년대에 히브리대학은 수세기를 걸쳐 내려온 다양한 전통의 성서들을 바탕으로 삼아 더 정확한 성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에 이르러 히브리대학교 성서 프로젝트(the Hebrew University Bible Project)

* 히브리대학교 석사과정 재학 중.

를 세웠다. 이 프로젝트가 계속되는 동안 권위 있는 런던과 레닌그라드의 사본들이 속속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방대한 연구조사와 열띤 토론 끝에, 일반에게는 알렘포 사본이라고 알려져 있는 *케테르 아람 쯔바*¹⁾ (כתר ארם צובא, the Aleppo Codex, Manuscript No.1 of the Ben-Zvi Institute for the Study of Jewish Communities in the East)가 현재까지 발견된 사본 중에 가장 정확한 최고의 사본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히브리대학교 성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본문으로 확정하였다

**

그렇다면, 왜 알렘포 사본인가? 알렘포 사본의 무엇이 특별하기에 알렘포 사본을 가장 권위 있는 사본으로 결정 내리고 이 사본을 기반으로 새롭게 성서를 발행하였을까? 비록 알렘포 사본이 성서의 수많은 사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본 중의 하나일 지라도, 이보다도 약 천 년이나 더 오래된 사해 사본도 있는데 말이다. 알렘포 사본은 티베리아스에서 10세기 초반 기록된 것이다. 1세기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워진 티베리아스는 성전 멸망 이후,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BT. Rosh Hashanah 31a), 예루살렘 탈무드 (תלמוד ירושלמי talmud yerushalmi, ‘팔레스타인 탈무드’라고도 한다)가 4세기에 완성된 곳이기도 하다. 명망 있는 랍비들이 티베리아스에서 활동하였으며,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중심지가 되었다 티베리아스와 연관되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히브리어 모음 음가 표기 (ניקוד niqud)와 마치 노래하듯 성서를 읽을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액센트 및 끊어 읽기를 가르치는 억양법 (טעמים te’amim)이 성서 본문과 결합하여—모음 표기는 이미 바빌론과 팔레스타인 전통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티베리아스의 마소라 본문이 가장 발전되고, 정확하게 성서본문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받아들여졌다—마소라 (Masorah)라고 불리는 통일되고 확증된 성서 본문이 집대성된 것이다. 더욱이 10세기에 티베리아스에서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단지 문학작품이나 예전을 집전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장소에서만 히브리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말하고 서

1) *케테르* כתר의 문자적인 의미는 ‘왕관’이다. 특별히 이것은 성서 두루마리 장식의 맨 위에 있는 왕관 모양의 장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케테르*라는 말은 관용적으로 ‘기록하고 값진 성서’, 특별히 알렘포 사본을 말한다. 알렘포 사본의 중요성과 그 명성 때문에 특별히 알렘포 사본(כתר ארם צובא) 앞에서는 *케테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כתר ארם צובא는 צוב ארם로 쓰여질 수도 있다). *쯔바*는 시리아의 지역 이름이다. 시리아 알렘포의 유대인 공동체들이 이 필사본을 *케테르 아람 쯔바*라고 부른 것은 이 사본이 처음 알려진 이후 몇 백 년이 지난 후부터였다.

로 의사소통을 하였으니, 티베리아스에서 알렘포 사본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알렘포 사본의 중요성과 그 정확성을 이해하는 데에 더없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 더하여 알렘포 사본이 다른 사본보다 더 중요하며 권위가 있는 사본으로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원자료가 된 괄목할 만한 이유는 알렘포 사본이 마소라 학자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마소라 학자들은 성서의 본문에 관하여서 그 후학들과 자손들에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필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도 정밀하게 전수하였다. 마소라 학자들의 이 반대하고도 정밀한 작업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전수되었고, 티베리아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 공동체는 그들이 기록한 성서 사본이 다른 사본에 비해서 더욱 정확하게 성서의 내용과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마소라 전통에 의거한 사본은 수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되었고, 필사되었지만, 그 중의 소수의 사람의 이름만을 알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하고도 대표적인 사람은 알렘포 사본을 만든 아론 벤 모세 벤 아셀(אהרן בן משה בן אשר Aharon ben Moshe ben Asher)이다²⁾. 그가 죽은 후, 이 사본은 11세기 중반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 카라이트³⁾(קראים)들에 의해서 보존이 되었다. 이 사본은 이집트를 거쳐 알렘포의 유대인의 손에 전해졌다. 티베리아스-예루살렘-이집트-시리아(알렘포)에 걸친 긴 여정 속에서도 이 사본은 손상되지 않은 채, 완벽한 모습으로 1000년 이상 잘 보존되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잉크가 벗겨져 나가고, 부분적으로 손상되기도 하고, 19세기 이르러서는 곰팡이 때문에 홍조를 띤 보랏빛의 자국만 남은 부분도 생기게 되었지만 알렘포 유대인 공동체의 사본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오래된 많은 사본들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사본이 되었다. 하지만, 이 사본에도 시련은 있었다. 1947년 반 유대주의가 시리아 지방에 확산이 되면서,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이들의 폭동이 알렘포에서 발발하였고, 폭도들은 알렘포 사본이 보관된 회당에 불을 질러 버렸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부분의 사본들은 이미 은밀한 장소로 옮겨져서 참혹한 비극의 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본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존되지는 못했다. 다섯 개의 두루마리 중, 아가

2) 알렘포 사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현재 러시아의 성 페테르스부르크(St. Petersburg 레닌그라드)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카라이트들의 성서 사본에서 밝혀졌다.

3) 9세기 아난 벤 다윗(אנן בן דוד Anan ben David)에 의해서 창시된 유대인의 한 종파이며, 그 수는 아주 적었다. 이들은 기록된 토라 만을 정경으로 삼고 구전 율법을 거부하였다. 다른 말로 하자면, 카라이트들은 랍비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첨가된 모든 가르침들을 거부하였다.

서의 마지막 부분 (3¹¹이하)부터, 전도서, 애가, 에스더서가 분실되었고, 다니엘, 에스라 역시 분실되었다.

알렉포 사본은 1986년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의 사본 복원 연구실로 보내어져서 10년 동안 사본의 복원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분실된 사본의 어떻게 복원되었을까? **분실된 사본을 복원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분실된 사본을 찾는 것이었다.** 예를 들자면, 역대기의 중간부분의 경우, 폭동 당시 알렉포의 유대인 공동체는 이 부분을 회당의 마루바닥 아래에 숨겨 두었다. 그 후 알렉포 공동체의 후손은 이 사본을 아무도 모르게 미국으로 옮겼고, 한 유대인의 서랍장에 숨겨져 있다가 1981년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다. 또, 출애굽기의 한 부분은 미국으로 이주한 알렉포 공동체의 유대인의 지갑 속에 보관되어 오다가 이스라엘에 기증되었다. 또 다른 방법의 복원 작업 방법 중 한가지는 **알렉포 사본을 인용한 책들 안에서 분실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다.** 알렉포 사본은 그 권위와 정확성 때문에 당대, 내지는 후대의 여러 학자들이 알렉포 사본을 근거로 하여 성서 본문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현재 전해지지 않는 사본들은 이들의 책이나 기록물들의 인용구들을 통하여서도 복원해 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래와 같다.

1) 16세기 말 이새 벤 아므람 하 코헨 아마디(יֵשׁוּ בֶן עֲמֵרָם הַכֹּהֵן עֲמַדִּי) *Yishai ben Amram ha-Cohen Amadi*가 알렉포 사본을 따라 교정하였던 토라⁴⁾

2) 카수토가 1943년에 알렉포 사본을 연구할 당시 발견한 알렉포의 성서 두루마리와 알렉포 사본과의 다른 점 열 한가지를 기록해 놓은 알렉포 랍비 므낫세 시트혼(רַבּ מְנַשֶּׁה סִיטְהוֹן) *Rabbi Menashe Sithon*의 노트

3) 1850년 예루살렘의 아쉬케나즈⁵⁾(אַשְׁכְּנַז *Ashkenaz*) 랍비, 야곱 사피르(יַעֲקֹב סַפִּיר) *Ya'aqob Sapir*가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다섯 두루마리의 철자법과 읽는 법, 그리고 억양법들을 당대 최고의 문법학자이면서 마소라 전통의 전문가인 알렉포의 랍비 므낫세 시트혼에게 물어본 500 가지가 넘

4) 1490년에 인쇄된 오경을 이새 벤 아므람 하 코헨 아마디가 알렉포 사본을 따라 교정한 것으로, 뉴욕의 Jewish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발견되었다.

5) 원래 이 말은 독일을 유대인들과 11, 12세기 그들의 유대교에 대한 자료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후에, 아쉬케나는 독일 뿐 아니라, 북동 유럽의 유대인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는 질문과 답변의 목록

4) 랍비 샬롬 샤크나 옐린(ר' שלום שכנא ילין) R. Shalom Shakhna Yellin)의 성서⁶⁾

아직까지 찾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며, 이렇게 분실된 사본의 조각 조각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이제 학자들은 이러한 분실된 사본의 문제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알렘포 사본들의 사진 자료들 역시 복원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알렘포 사본의 세 쪽을 찍어 놓은 두 장의 사진이 발견되었다. 각각의 사진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촬영된 것이다. 첫 번째 사진은 1887년에 영국 학자인 윌리엄 워스(William Wickes)가 출판하였는데, 창세기 27장을 찍은 것이고, 두 번째 사진은 선교사 조셉 시걸(Joseph Segall)이 1910년에 촬영한 것으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 부분이다. 카수토는 알렘포에서 연구 당시, 이 사본을 사진을 찍어 복사본을 남기려고 하였으나, 알렘포에서 사진 필름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사진의 질 역시 너무나 낮았을 뿐 아니라, 알렘포의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이 반대로 사본을 사진으로 찍으려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다.

마소라 전통에 근거한 많은 사본들 중에, 특별히 알렘포 사본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간략하게 알아보자. 얼마나 많은 초기의 성서 사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1500년 이전에 기록된 성서 사본의 수를 세보면 그 수가 200을 넘는다. 그리고 알렘포 사본은 그 많은 사본들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좁혀 마소라 학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인 10세기와 11세기에 성서 전체 내지는 성서 일부분을 기록한 사본의 수는 초기 사본으로 분류되는 200이 넘는 사본의 숫자 가운데 고작 열 둘이다. 그리고 이 열 둘조차도 그 중의 반은 성서 각 권의 일부분만을 기록하고 있는 사본의 조각들이다. 학자들은 마소라 전통에 의거한 사본들을 철자법이나, 모음의 표기, 억양법 등 다양한 언어학적인 측면의 연구를 통해서 그 정확성과 다양성을

6) 랍비 샬롬 샤크나 옐린은 리투아니아(Lithuania) 사람으로 성서 교정의 전문가이다. 그는 성서를 읽으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철자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을 성서의 여백에 빼곡히 기록하여 사위를 통해서 알렘포로 그 성서를 보냈고, 그의 성서에는 그의 질문에 대한 알렘포 사본을 근거한 답변들이 있다.

연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권위 있고, 정확한 사본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본의 권위와 정확성을 ‘알 수 없음’으로 내버려 둘 것인가? 이제부터 알렘포 사본의 권위와 정확성에 대해서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기로 하겠다.

내적인 증거 (알렘포 사본을 기록한 마소라 학자들의 정확성):

1. **마소라 주기 (Masoretic notes).** 때때로 모음이나 억양법 기호를 빼먹던가, 적합하지 않은 강세가 본문에 적용이 되는 서기관들의 부주의한 실수들이 사본에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소라 주기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떠한 동사가 완전서법으로 기록되어야 하는데 필사자의 실수로 불완전 서법으로 기록되었을 경우, 마소라 학자들은 마소라 주기에 어김없이 그 원래 형태인 완전서법의 단어들의 목록들을 정리해 놓았다

2. **마소라 본문 비평적 각주.** 다양한 많은 사본들과 마소라 사본들을 비교하여 놓은 마소라 장치는 마소라 학자들이 얼마나 사본들에 정통하고, 사본의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마소라 주기와 함께 마소라 본문 비평적 각주는 초기 성서 사본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마소라 본문의 장치들이다. 학자들은 이러한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과 수천 가지의 연구방법으로 알렘포 사본을 연구하고, 다른 사본들과 비교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다.

이 사본의 모음 음가 표기법이나 억양법은 사본들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후기 사본의 필사자들이 이미 잊어버린 초기 억양법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연구한 티베리안 성서 사본 중에서 알렘포 사본은 가장 정확한 사본이다. 예이빈 (יֵיבִין Yeivin)

알렘포 사본을 아주 세심하게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소라 학자들의 이토록 놀랍고도 완벽한 필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마소라 학자들은 모음 표기법과 억양법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모든 필사자들 중에 마소라 규칙과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고 필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고, 사본들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랍비 모 르드개 브뤼어 (ר' מרדכי ברוך Breuer)

레닌그라드 사본으로 알려진 사본에는 예언서에서만 250개가 넘는 완전서법과 불완전 서법간의 모음 표기의 실수가 발견되었고 카이로 사본의 예언서에서는 130개가 넘는 모음 표기상의 실수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알렘포 사본에서는 예언서에서 단 두 군데에서만 모음 표기상의 실수가 발견되었다. (랍비 모르드개 브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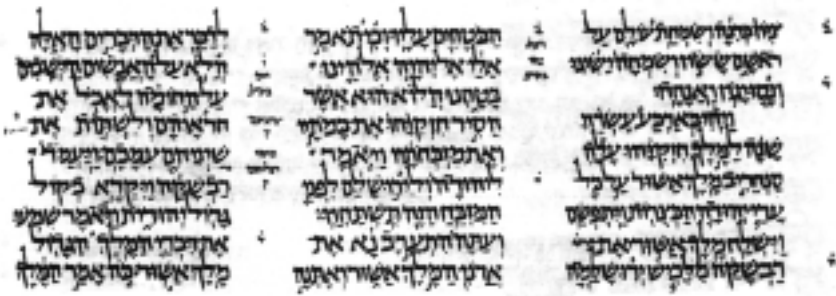
외적인 증거 (알렘포 사본의 필사자 아론 벤 모세 벤 아셀): 외적인 증거는 알렘포 사본을 기록한 아론 벤 모세 벤 아셀이 마소라 학자들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알렘포 사본은 다른 많은 사본들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사본이다.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알렘포 사본은 아론 벤 모세 벤 아셀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초기 사본 필사자들이 그의 사본을 따라 필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에 있다. 1008년에 쓰여진 레닌그라드 사본의 맨 뒤에는 이렇게 써 있다. “사무엘 벤 야곱(שמאל בן יעקב) *Shmuel ben Ya'aqob*이 이 사본 (레닌그라드 사본)의 마소라 주기를 복사하고, 음가를 붙이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 작업은 아론 벤 모세 벤 아셀의 책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의 마소라 모음 표기와 억양법 체계는 당시 다른 사본 필사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성서 필사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안내서였다. 12세기에 이르러서 알렘포 사본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당대 가장 뛰어난 유대 주석학자 마이모니데스 (רבי משה בן מימון *Rabbi Moshe ben Maimon* 내지는 הרמב"ם *ha Rambam*)는 마소라 전통에 근거한 사본 중에서 알렘포 사본을 가장 완벽한 성서의 사본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렘포 사본을 바탕으로 한,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주요한 참조서: 케테르 예루살라임은 알렘포 사본의 본문과 마소라 주기를 바탕으로 편집되었으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초기 사본들을 따르고 있다. 성서류 Leningrad Codex, St.Petersburg, Russian National Library EBP I B19^A; Sassoon 1053, Rabbinic Bible (printed in Venice). 단일 사본류, 오경 London, British Library Or.4445; Jerusalem, Jewish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24° 5702 (formerly Sassoon 507); ¹⁴ (formerly Cairo, Gottheil 14). 예언서 Cairo, Gottheil 34. 성문서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Add. 1753. 캠브리지의 성문서 필사본인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Add.

1753. (15세기 예멘계 유대인들이 기록)을 제외한 사본들은 모두가 10세기와 11세기에 근동에서 기록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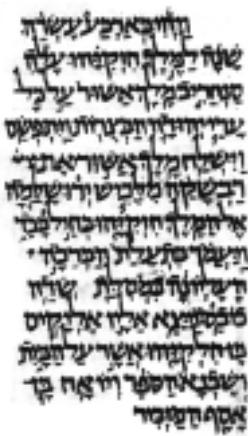
각 권의 순서: 케테르 예루살라임 각 권의 순서는 개신교 각 권 성서의 순서와는 다르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BHS의 순서와는 같다.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알렘포 사본의 순서는 현재 출판된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순서와는 성문서 부분에서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12 소예언서 뒤에 위치한 성문서의 순서가 케테르 예루살라임에서는 시편—잠언—욥—아가—룻—애가—전도서—에스더—다니엘—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의 차례를 따르고 있지만, 알렘포 사본에서는 역대기—시편—욥—잠언—룻—아가—전도서—애가—에스더—다니엘—에스라 (느헤미야)의 순서를 지키고 있다.

지면 구성과 서체: 케테르 예루살라임은 알렘포 사본과 마찬가지로 성서본문의 지면을 3단으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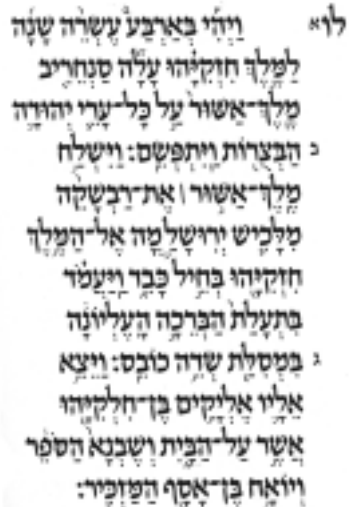


알렘포 사본 3단 구성의 예

이와 같은 3단 구성은 알렘포 사본만의 독특한 성서본문의 지면 배치 구조는 아니다. 알렘포 사본 이외에도 많은 사본들이 알렘포 사본과 같이 3단 구성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5세기 인쇄술이 발전하고 성서가 필사가 아닌, 인쇄의 기술로 보급된 이후, 사본의 고유한 지면 구성들이 무시된 채, 보다 수월한 인쇄작업과 읽기 쉬운 지면 배치라는 기능성 강조 일면도로 인해서 일반적인 문학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단의 구분이 없이 출판되어져 왔다. 그러나 케테르 예루살라임은 알렘포 사본과 같은 지면의 구성과 배치를 추구하여 본문의 정확성과 함께 그 전통을 함께 내려 받기에 충실하였다. 또한,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서체 역시 알렘포 사본의 서체를 바탕으로 그 서체 고유한 모양 그대로를 컴퓨터에서 인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컴퓨터 서체를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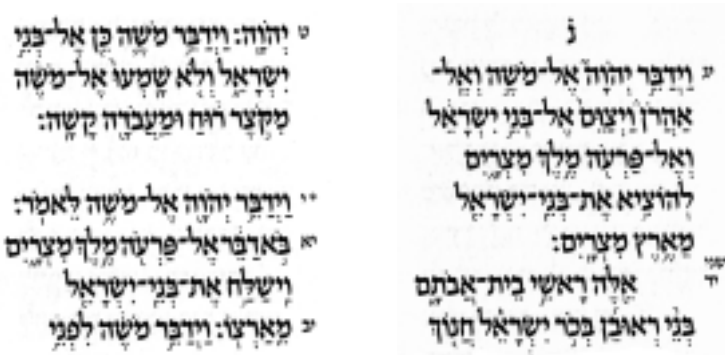
알렘포 사본, 이사야 36¹⁻³



케테르 예루살라임, 이사야 36¹⁻³

히브리대학교 성서 프로젝트 팀이 새로 간행될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서체를 사본의 서체에 기초하여 출간할 것을 결정한 뒤 줄곧 사본 서체의 컴퓨터 서체화 작업이 연구되었고, 1998년부터 3년여 동안 케테르 예루살라임 전권에 이르는 타이핑 작업과 교정 작업이 계속되었다. 교정은 히브리어 학회 (Academy of the Hebrew Language)의 연구진들이 팀을 이루어 3회에 걸쳐서 정밀한 교정 작업을 전개하였다. 이 작업에서는 고대의 서기관들이 그러하였듯이 흔히 혼동되거나, 잘못 기록될 가능성이 있는, ך, ם, ן, ף, ץ, ץ, ם, ם, ן, ף의 혼동과 오기, 액센트의 혼동 등, 문장, 단어, 구문, 문장 부호에 걸친 모든 부분의 오류에 대해서 바로잡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지면의 구성과 서체를 알렘포 사본의 것과 동일하게 하였다고 하여서 알렘포 사본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같은 페이지에 같은 단어들이 같은 자리에 마치 복사하듯이 그대로 옮겨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본을 기록한 학자는 글자의 장평과 글자 사이의 간격을 손으로 기록하였기에 각각의 글자를 완벽하게 같게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줄에는 다른 줄과는 달리 더 많은 글자들이 뺄뺄하게 기록된 곳이 있고 어떤 줄에는 다른 줄과는 달리 글자들이 좀 더 널찍하게 기록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컴퓨터화 된 서체는 이처럼 장평과 자간을 사람이 직접 옮긴 것처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마치 복사기로 사

본을 복사한 듯이 한 줄에 알렘포 사본과 같은 글자와 글자 수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었다 (위의 이사야 36¹⁻³의 비교 그림을 참조하라)dml h 361-3 35-36. 케테르 예루살라임에서 성서 본문의 단락과 단락은 빈 줄로 나누어 짐을 표시를 했다. 주의할 것은 종종 단락과 단락을 나누는 빈 줄이 단의 맨 처음인 단의 맨 위나, 맨 아래에 올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성서를 읽는 낭독자가 단락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것을 무시하고 지나치지 못하도록 빈 줄의 가운데에 ׀ 과 그 위에 • 을 함께 표기해 놓았다. 이와 비슷한 장치는 알렘포 사본에도 있다.



단락과 단락의 구분 단락을 구분하는 줄간 여백이 맨 위에 있는 경우

단락의 구분은 알렘포 사본을 그대로 따랐으며, 오경에서 분실된 부분의 단락 구분은 알렘포 사본에 근거하여 성서를 설명하고 있는 마이모니데스의 것을 따랐고, 예언서와 성문서의 분실된 부분의 단락 구분은 살롬 샤크나 엘린의 성서를 바탕으로 하였다.

시가, 시편, 잠언과 읍 : 성서에는 다양한 시가들 (노래들)이 있는데, 이들의 지면 구성은 마소라 전통에 근거한 사본들의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므로, 케테르 예루살라임이 세 개의 단을 나누어 기록한 사본의 지면 구성을 그대로 따르는 한편, 시가나, 시편, 잠언과 읍의 경우는 편집을 위한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기본 지면 구성 원칙인 삼단구성을 벗어나 마소라의 전통 대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의 경우에는, 그 배열을 알렘포 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단의 배열을 따랐다. 예멘 전통의 사본 역시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70 줄의 긴 노래이다. 원래 이 노래는 알렘포 사본과 예멘 전통의 사본에서 67줄로 기록되어 있으나, 케테르 예루살라임에서는

유대인 공동체들의 전통인 MS Jerusalem 24°를 따라서 70줄을 고수하였다. 예언서와 성문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노래들은 알렘포 사본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다: 여호수아 12장의 가나안 왕들,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 에스더 9장의 하만의 열 아들들, 역대기상 16장의 아삽의 노래. 알렘포 사본과 다른 사본들에서 시편, 잠언, 욥은 시가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독특하게 각 열의 가운데에 여백을 두었다. 많은 성서들이 이러한 전통을 무시하고 있지만, 케테르 예루살라임은 사본들의 전통을 따라 배치하였다.

철자법 : 모르드개 브뤼어 이후 요셉 오페르 (יוסף עופר Yosef Ofer)는 예언서의 경우, 레닌그라드 사본은 250군데 넘는 곳, 카이로 필사본의 경우는 300여 군데가 넘는 곳에서 마소라 전통과 일치 하지 않은 곳이 발견된 가운데, 알렘포 사본에는 오로지 한 군데에서만, 마소라 전통과 배치되는 곳이 발견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언서와 성문서는 알렘포 사본의 전통을 따른다. 오경에서는 아홉 군데 철자법상 유대 전통과 다른 곳이 발견되었는데, 예멘 전통의 사본은 이러한 아홉 군데 철자법상의 문제들이 없이 완벽하였고, 알렘포 사본은 오로지 한 군데에서만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오경은 예멘 전통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같은 예멘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아쉬케나즈 공동체 (אשכנזי Ashkenazi)와 스파라드 공동체 (ספרדי Sfaradi) 또한 철자법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아래 쪽의 여백에 ספרים אחרים (sfarim acherim: 다른 책들)이라는 표기를 해두었다.

음가, 억양법, 그리고 보조 강세들: 케테르 예루살라임의 음가, 억양법, 그리고 보조 강세들은 알렘포 사본의 것을 기초로 하였다. 그리고 때에 따라 다른 다른 사본에서 다른 독법이 제시된 경우 해당 단락의 아래에 이독 (異讀) 들을 표기하였다. 그리고 알렘포 사본 중, 현재 분실되어서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의 독법은 레닌그라드 사본의 것을 따랐다. 그리고 메텍 (מֵטֶק meteg)이나 자켄 카톤(זָקֵף קָטוֹן zakef katon)과 같은 보조 강세들은 레닌그라드 사본 이외의 다른 사본들을 함께 참고하였다. 여기서 반드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연구개음이 아닌 자음 (non-guttural consonant) 아래에 있는 반모음 (חֲטָף chataf)의 용례이다. 케테르 예루살라임에서는 때때로 알렘포 사본에서 사용된 유동 쉘바 (שְׁוּאָה sheva na) 들을 고쳐서 다시 표기하였다. 이렇게 고쳐서 표기한 이유는 현재의 발성법이 티베리아스의 마소라의 발성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반모음인 유동 쉘바의 발음은 현대 대부분의 유대인 공동체의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케테르 예루살라임에서는 알렘포 사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동 쉘바를 더 적합한 음가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메텍의 위치도 알렘포 사본의 것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후기 성서들에는 메텍이 개음절에서 자주 나오는 반면에, 알렘포 사본에는 메텍이 드물다. 그래서 케테르 예루살라임은 두 가지 종류의 메텍을 사용하고 있다. 자음 아래의 긴 세로줄 보조 강세는 알렘포 사본 내지는 레닌그라드 사본에 원래부터 있는 메텍이고, 그 보다도 짧은 메텍은 다른 사본을 참고로 하여, 추가된 메텍이다.

여백에 표시된 특수한 기호들 (Marginal notation): 매주마다 유대인들이 읽어 나아가는 성서의 단위 단락인 파라샤 פָּרָשָׁה *parasha*⁷⁾는 오른쪽 페이지인 경우,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의 페이지인 경우에는 왼쪽의 위 구석에 책 이름과 함께 세로 줄 옆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성서 본문에도 오른쪽 여백에 파라샤의 이름과 알리야 עלייה *aliyah*, 마프티르 מַפְטִיר *maftir*를 표기해 놓았다. 파라샤를 나누는 원칙은 대부분의 유대인 공동체가 사용하는 파라샤 구분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와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읽는 부분인 파라샤의 첫 부분에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각 절의 오른쪽 여백에는 별표(*)로 그 나뉘어짐을 표시하였다. 종종 나타나는 왼쪽 여백의 **ד**은 히브리어 세데르 סֵדֶר *seder*의 약자로, 유대인들이 3년 동안 걸쳐 읽어 나아가는 성서의 단락이 나뉘어짐을 표시하는 기호이다.

7) 파라샤는 7개의 알리와 1개의 마프티르로 구성되어 있다. 알리는 매일 매일 읽는 파라 안의 작은 단락들이고, 마프티는 파라를 마치는 맨 마지막 단락이다.

8) 이 표기법은 이스라엘 전통에 따른 성서 읽기 방법이다. 이세데를 따라 읽어 가면, 3년 내지는 3년 반 만에 오경을 읽을 수가 있다.

6 שמות שמות ה

1 **3**
 ודבר יהוה אל משה ואל־
 אהרן ודעם אל בני ישראל
 ואל־פרעה מלך מצרים
 להוציא את בני ישראל
 מארץ מצרים: **2**

אלה ראשי בית אבותם
 בני ראובן בני ישראל חנוך
 ומלוא חזרון וכישי אלה
 משפחת ראובן: ובני שמעון
 ישואר ומיזן ואהר ויזון וגמור
 ושאל בני־הכנענית אלה
 משפחת שמעון: ואלה שמות
 בני־לוי להלויים גרשון
 וקהת ומררי ושני חי לוי
 שבע ושלשים ומאת שנה:
 בני גרשון לבני ישמעאל
 למשפחתם: ובני קהת עמרם
 ויגור וחבירון ומיזאל ושני חי
 קהת שלש ושלשים ומאת
 שנה: ובני מררי מחלי ומושי
 אלה משפחת הלוי להלויים:
 ויחס עמרם את־יוכבד רותו
 לו לאשה ותלד לו את־אהרן
 ואת־משה ושני חי עמרם
 שבע ושלשים ומאת שנה:
 ובני יצהר קרח ותמג וחסרי:
 ובני עיזאל מיזאל ואלצפן
 וסתרי: ויחס אהרן את־
 אלישבע בת־עמינדב אחות

פרוהו אתם לתת להם את־
 ארץ כנען את ארץ כנעניהם
 אשר־צרו בה: וגם אני
 ששיתי את־נאפת בני ישראל
 אשר מצרים פעבדים אתם
 והוצאתי את־פרוהו: לכן אמר
 לבני־ישראל אני יהוה
 והוצאתי אתכם מתחת
 סבלת מצרים והדלתי אתכם
 מעבודתם ובאלתי אחכם
 ביוזע נטויה ובשפטים
 גדלים: ולקחתי אתכם לי לעם
 והייתי לכם לאלהים וידעתם
 כי אני יהוה אלהיכם המוציא
 אתכם מתחת סבלות מצרים:
 והבאתי אתכם אל־הארץ
 אשר נשאתי את־ידי לתת
 אתה לאברהם ליעקב וליצחק
 ונתתי אתה לכם מורשה אני
 יהוה: ודבר משה כן אל־בני
 ישראל ולא שמעו אל־משה
 מקצר רוח ומעבדה קשה:

3 וידבר יהוה אל־משה לאמר:
 באדבר אל־פרעה מלך מצרים
 וישלח את־בני־ישראל
 מארצו: ודבר משה לפני
 יהוה לאמר הן בני־ישראל
 לא־שמעו אלי ואיך ישמעני
 פרעה ואני ערל שפתים:

לנו עשו והנה עבדך מכים
 והזקאת עשה: ויאמר נרפם
 אתם נרפם על־כן אתם
 אמרים נלכה נכחה ליהוה:
 והנה לנו עבדו ותבן לא־ישתן
 לכם ותבן לבנים ותגט: וירא
 שטרו בני־ישראל אתם פרע
 לאמר לא־תגרשו מלכבנים
 ודבר־יום ביוזע: ויפגע את־
 משה ואת־אהרן נעבים
 לקראתם בצאתם מאת
 פרעה: ויאמרו אלהים היא
 יהוה עליכם וישפט אשר
 הבאתם את־ריחטו בעיני
 פרעה וכעניו עבדו לתת־חרב
 בידם להיגט: וישב משה אל־
 יהוה ויאמר ארני למה הדעתה
 לעם הזה למה זה שלחתי:
 ומאן באתי אל־פרעה לדבר
 בשמה הרע לעם הזה והצל
 לא־הצילתי את־עמקו: ויאמר
 יהוה אל־משה שעה תראה
 אשר אעשה לפרעה כי כיד
 חזקה ישלחם וכיד חזקה
 נרשם מארצו: **6**

וידבר אלהים אל־משה
 ויאמר אליו אני יהוה: וארא
 אל־אברהם אל־יצחק ואל־
 יעקב באר שדי ושמי יהוה לא
 נודעתי להם: וגם הקמתי את־

케테르 예루살라임, 출애굽기 5¹⁷-6²³

1. 단락 구분 여백이 단의 맨 위에 있는 경우,
2. 파라샤 안의 알리야와 마프티르,
3. 파라샤의 첫 알리야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
4. 긴 메텍과 짧은 메텍,
5. 세데르,
6. 파라샤의 이름.

<Abstract>

A Review of the Hebrew University Bible, *keter Yerushalaim*

Ick-Sang Lee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introduce the Hebrew University Bible, *keter Yerushalaim*. Since the early 1940s,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had tried to publish an accurate text of the Bible, and the Hebrew University Bible Project (HUBP) was established during the 1950s. Recently, thanks to the effort of the HUBP and many scholars, the Hebrew University published *keter Yerushalaim*, which is based on Aleppo Codex.

In this review, not an overly scholastic article, I will describe from when the Hebrew University came to cherish the idea of publishing the new Bible, how the preparations proceeded, and how this Bible is different from all others. Furthermore, I will elucidate how readers may make good use of this Bible based on its unique system.

I explain that this review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Jerusalem Crown? The Bible of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כתר ירושלים—תנ"ך האוניברסיטה העברית).